

언어학개론

- 언어학개론 목차 -

1주차 1차시	인간과 언어	1
1주차 2차시	언어학의 역사	6
2주차 1차시	언어의 소리 : 음성학 1	10
2주차 2차시	언어의 소리 : 음성학 2	16
3주차 1차시	언어의 소리 체계 : 음운론 1	21
3주차 2차시	언어의 소리 체계 : 음운론 2	24
4주차 1차시	언어의 단어 구조 : 형태론 1	28
4주차 2차시	언어의 단어 구조 : 형태론 2	32
5주차 1차시	언어의 문장 구조 : 통사론 1	36
5주차 2차시	언어의 문장 구조 : 통사론 2	40
6주차 1차시	언어의 의미 : 의미론 1	44
6주차 2차시	언어의 의미 : 의미론 2	48
7주차 1차시	언어의 맥락 의미 : 화용론 1	54
7주차 2차시	언어의 맥락 의미 : 화용론 2	58
8주차	중간고사	

9주차 1차시	언어와 문자 : 세계의 문자와 한글 1	62
9주차 2차시	언어와 문자 : 세계의 문자와 한글 2	67
10주차 1차시	언어와 역사 : 세계의 어족과 언어 1	72
10주차 2차시	언어와 역사 : 세계의 어족과 언어 2	78
11주차 1차시	심리언어학 1 : 심리언어학 개관	84
11주차 2차시	심리언어학 2 : 언어습득과 언어이론	89
12주차 1차시	사회언어학 1	95
12주차 2차시	사회언어학 2	99
13주차 1차시	언어와 문학 : 텍스트 장르와 문체	103
13주차 2차시	언어와 문학 :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107
14주차 1차시	언어와 컴퓨터 : 전산언어학 1	111
14주차 2차시	언어와 컴퓨터 : 전산언어학 2	115
15주차	기말고사	

1주차 1차시 인간과 언어

I.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과 언어의 기원

1.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

- 언어란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며, 복잡한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언어라는 도구 없이는 사회생활은 물론 문화세계 창달을 이룩할 수 없다.

1)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인류학자들은 다음 여섯 가지의 특징을 들고 있다.

- ✓ 인간은 두 발로 서서 다닌다는 직립성이다.
- ✓ 몸의 크기에 비해 인간은 동물들보다 머리가 크다.
- ✓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 ✓ 인간만이 사고할 수 있다.
- ✓ 인간은 놀이나 장난을 즐기고 나아가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많이 발달되었다.
- ✓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인간의 정신 작용은 사고와 추리 등 모든 정신 기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인간의 정신 작용

-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 즉 정신 작용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지적 욕구, 정적 욕구, 의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1) 지적 작용

- 인간이 사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가치적 판단을 하며 사물의 이치를 분석하고 논리적 체계를 세우는 등의 기존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 수많은 학문적 지식 체계를 갖추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 동물은 스스로 깨닫고 지식적 체계를 통한 지적 학습은 불가능하다.

(2) 정적 작용

- 기쁨과 슬픔을 느끼며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능이다.
- 인간은 삶 속에서 수많은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며 산다.
- 인간의 감성은 아주 민감하며 논리적 이치나 원칙, 규칙을 초월하여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인간의 정적 작용은 인간의 슬픔을 극복하고 보다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수많은 역사를 통해 예술작품을 창출하기도 했다.
- 이러한 정적 욕구와 예술적 감각은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3) 의적 작용

- 인간이 양심에 바탕을 둔 선행을 추구하려는 기능이다.
- 지적, 정적 욕구를 성취하려는 실천적 기능이 되기도 한다.
- 인간의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2. 인간과 언어

1) 언어의 정의

- 언어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표현(mental representation)이며 우리와 더불어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한 수단이다.
- 언어는 곧 정신 활동(mental act)이며 이러한 정신 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신 구조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 서로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언어를 바탕으로 서로의 생각을 대화를 통하여 주고받는 사회적 활동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다.
-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정신 작용의 기능이 있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독특한 존재이다.
- 이러한 정신 작용을 구체화하고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관리해 가는 데는 언어가 하나의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인류의 역사 발전 및 문화 창달은 인간의 언어 사용에서부터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2) 언어의 기능

-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며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 인간의 정신 작용의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는 언어가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
- 인간이 자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자기표현이나 나아가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사회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것도 언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 언어는 학문적 이론과 체계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 미래 세계에 대한 추상적 관념이나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규범이나 가치체제도 개념화된 언어의 기능 없이는 불가능하다.

3) 인간과 언어의 관계

- 언어는 모든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
- 인간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모국어도 비슷한 정도의 구사력을 갖추게 된다.
- 동물은 단순한 모음 몇 가지 소리만 가능하나 인간은 모음과 더불어 자음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입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인간의 혀는 음식을 먹는 데 사용하지만, 말을 하는데 더 큰 기능을 한다.

3. 언어의 기원

- 일반적으로 언어의 기원에 대한 학설은 크게 신수설과 발명설이 있는데 인간의 언어는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보는 신수설과 인간 스스로가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는 발명설이 대표적이다.

1) 신수설

- 언어는 화자와 청자가 있을 때 가능하며 서로의 의사를 공감할 수 있는 정신적 기능이 필요하다.
-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는 신과 인간뿐이며, 신이 언어를 먼저 창조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세기 1:3)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9-10)

-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다.
- 오늘날 5,000여개에 달하는 지구상의 언어도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혼잡하게 한 결과이다.

2) 발명설

- 신수설과는 달리 근세 이후 언어의 기원은 인간이 필요에 의해 발명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나타난다.

(1) 자연발성을 기원설

- 놀라움, 두려움, 기쁨 등의 감정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소리에서 인간의 언어가 발달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 감정에서 표출에서 나온 감탄사와 같은 소리에서 언어가 발달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2) 의성을 기원설

- 자연계의 여러 가지 소리를 모방하는 데서 언어가 발달했다는 가설이다.
- 원시인이 자연의 여러 가지 소리, 예를 들면 동물의 우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파도치는 소리 등을 모방하면서 언어가 발달했다고 보는 견해이다.

(3) 원시적 노래 기원설

- 인류의 언어는 원시적으로 노래에서 발달했다는 견해이다.
- 인간의 언어는 원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침이나 노래와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4) 몸짓 기원설

- 독일의 민속심리학자 분트(W. Wundt)는 몸짓언어에서 음성언어가 발달했다는 가설을 제창하였다.
- 인간의 언어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몸짓만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II. 언어의 유형적 분류와 특징

1. 의사소통의 기본적 형태

1) 말하기(speaking)

- 구두적 표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적 활동에 큰 제약 없이도 수행이 가능하다.
- 비교적 환경적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대화의 상대가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억양은 물론, 어조, 음량, 발음 방법 등을 포함하는 발화 형태를 가미한 음성을 매체로 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상호 간의 의미 전달 및 파악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높다.
- 음성화가 되면, 수정이 쉽지 않고 특정한 저장 수단을 쓰지 않는 한 영속성(perpetuity)을 유지할 수 없다.

2) 글쓰기(writing)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영속성을 가진다.
- 말과는 달리 시각적 표현으로 신체는 물론, 환경으로부터 제약을 받는다.
- 글을 쓰기 위해서는 신체 외적인 도구나 장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 글쓰기는 작가가 궁극적으로 자신이 쓰는 글을 읽는 독자의 부재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글에 대한 독자의 즉각적 반응을 얻기 어렵다.
- 글은 보이지 않는 생각을 시각화 시켜주므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현존하는 최고의 수단이다.
- 우리의 문화와 문명과 관련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그리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대중매체로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언어의 유형적 분류

- 지구상의 모든 언어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을 근거로 하여 언어 유형의 형태적 구조의 특징을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함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특징에 의한 분류

(1) 고립어(isolating language)

-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어형의 변화 없이 단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가 어순에 의해서만 표시되는 것으로 하나의 낱말이 하나의 형태소로 구성된 언어이다.
- 예를 들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이 이에 속한다.

(2)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

-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에 조사 또는 접미사 등이 결합되어 새로운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형태소로 구성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한국어, 터키어, 몽골어 언어, 만주어 등의 알타이어가 이에 속한다.

(3) 굴절어(inflectional language)

-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가 변화하면서 여러 문법형태로 구성되지만 형태소별로 구별되기 어려운 언어이다.
- 예를 들어 그리스어, 인도·유럽어족이 이에 속한다.

(4) 포함어(incorporating language)

-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결합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언어로 하나의 낱말에 여러 요소를 포함한다.
- 예를 들어 그린란드어, 에스키모어 등이 이에 속한다.

2) 어순에 따른 분류

- SOV, SVO, VOS 유형이 98% 이상이다.
- SOV 유형은 44% 정도이며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힌디어, 에스키모어 등이 있다.
- SVO 유형은 35% 정도이며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그리스어, 핀란드어 등이 있다.
- VSO 유형은 19% 정도이며 히브리어, 타갈로그어, 아일랜드어, 아랍어 등이 있다.

3. 인간 언어의 특징

1) 인간 언어의 일반적인 특징

(1) 발성-청취 경로(vocal-auditory channel)

- 신호의 발신자는 성도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산출하고 수신자는 청취장치를 이용해 그 신호를 수신한다.
- 발신자의 발음기관에 의해 산출된 메시지는 입 밖으로 나오면서 음파를 형성, 이 음파가 수신자의 고막을 두드려 신호를 수신하게 된다.
- 이러한 음파의 특성이 의미를 지니는 언어가 가능하게 하고 인간은 이러한 음파를 발생할 수 있는 입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음파를 듣고 공통된 의미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광범위한 전파와 방향 수신(broadcast transmission and directional reception)

- 인간은 음파의 특성을 통해 음파가 들려오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3) 일시성(rapid-fading)

- 전파 매개체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그 신호는 빨리 사라진다. 따라서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 (4)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 신호체계 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기체인 발신자는 그 동일한 신호체계 속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수도 있다.
- (5) 완전 환류(total feedback)
- 발신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정보원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수신자의 반응을 살펴본다.
- (6) 특수화(specialization)
- 의사전달은 간접적으로 어떠한 표정이나 상황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지만 언어-발화는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 (7) 의미성(semantics)
- 신호체계 내에서 신호가 갖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속성이다.
- (8) 자의성(arbitrariness)
- 신호의 표현과 내용, 소리의 면과 의미의 면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언어기호의 속성이다.
- (9) 이산성(discreteness)
- 언어의 체계는 연속적이 아니라 이산적인 요소들이 통일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 (10) 분절성(articulation)
- 언어는 연속체로 나타나지만 분절되어 지각되고 인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 (11) 체계성(systemicity)
- 문장의 단어는 일정한 단어의 구조적 배열에서 의미가 있으며 문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언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 2) 인간 언어만의 고유한 특징
- (1) 대치성(displacement)
- 발화행위가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에 있어 멀리 떨어진 사물과 사건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언어의 속성이다.
- (2) 생산성(productivity)
- 유한수의 언어 요소를 가지고 무한수의 문장을 산출할 수 있는 언어의 특징이다.
- (3) 전승성(traditional transmission)
- 언어 능력이 일정한 교육을 통한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생활환경에서 부모로부터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 (4) 언어 구조의 양면성(duality of patterning)
- 언어 구조에 있어서 음성과 의미는 상호 결합하는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구조상의 특징이다.

1주차 2차시 언어학의 역사

I. 고대, 중세의 언어학

1. 언어, 언어학, 언어학자

- 언어란 인간의 고유하고 중요한 정신적 능력이다.
- 언어학이란 인간의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 언어학자란 언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이다.

1) 언어의 특성

- 언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 인간은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 추상적인 의미의 언어도 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속성으로서의 언어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언어 일반)

'language'	'a language'
추상적인 언어 능력, 언어 과정	개별 언어(한국어, 중국어, 영어 등)

2) 언어학의 대상

- 언어는 추상적 언어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구체적인 개별 언어이다.
- 어느 한 언어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언어 일반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다.
- 언어 연구는 구체적인 언어를 통하여 추상적인 언어에 접근한다.

3) 언어학자의 능력

- 많은 언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polyglot)과 언어학자는 다르다.
- 언어학자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인간 언어의 보편성을 간파하는 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두 개의 언어를 깊이 연구함으로써도 언어와 인간 정신에 기여할 수 있다.

2. 언어 연구의 역사

1) 고대 그리스 시대의 언어관과 자의성 문제

(1) 호기심 목적의 연구

- 고대 그리스의 언어에 대한 관심은 호기심의 목적이 선행된다.

- ✓ 언어는 어느 정도로 자연적인가? 관습적(필연적, 자의적)인가?
- ✓ 언어는 얼마나 구조적이고 규칙 지배적인가? 비규칙적(유추적, 변칙적)인가?

- 언어와 소리와의 관계에 관한 자연성과 관습성의 문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관습성에 무게를 실는 경향이 있다.

- [예시]
- ✓ 영국-dog, 한국- 개
 - ✓ 불휘-뿌리

-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물(의미)을 일컫는 소리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의성어는 어느 정도의 자연성 혹은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예시]
- ✓ 영어-bowwow[바우와우] 한국- '멍멍'

(2) 실용적인 관점의 연구

-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고전의 교육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언어를 연구하였다.
- 디오니시우스 트락스(Dionysius Thrax)

- ✓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이다.
- ✓ 기원 전 100년경 처음으로 그리스어의 음운론과 형태론 연구를 시작하였다.
- ✓ '문법'을 시인과 산문 작가들의 언어 사용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 "문법의 가장 소중한 목적은 문학 작품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것"

-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경험적 방법을 사용, 시제 작품 속의 언어를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 고대 그리스인의 언어 연구의 업적

- 중세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문법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 ✓ 그리스어 'grammatikē' → 'grammar' (문법)

- 당시 대부분의 라틴어 문법은 그리스어 문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문법 교육은 교양 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실용적 목적을 가졌다.

3) 중세의 내성문법과 르네상스 이후의 언어관

(1) 중세 시대의 언어 연구

- 고대 로마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라틴어 문법을 교육의 도구로 중시하였다.
- 변증법, 수사학, 음악, 수학, 기하학, 천문학, 문법을 중요한 학문으로 간주하였다.

(2) 후기 중세

- 라틴어 문법을 철학의 한 분야로 간주하게 되었다.
- 13세기~14세기의 내성문법(speculative grammar)은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언어 연구가 적극적으로 발현된 것이다.

① 내성문법

- 내성문법의 목적은 라틴어 문법의 철학적 정당성을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 설명적 타당성을 추구하기 위해 문법은 언어를 인간의 정신과 연결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 [예시]
- ✓ 명사 : 계속 존재하는 것
 - ✓ 동사 : 시간에 매인 일시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것

- 인간의 모든 언어들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과 언어 보편소(linguistic universals)에 관한 이론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 내성 문법의 가치는 유럽의 언어 연구를 천년 이상 지배해 왔던 문헌 기반의 문법을 거부하고, 내성적 방법을 통하여 인간 정신의 탐구라는 철학적 목적을 위한 언어 연구를 내세운 것이다.

(3) 르네상스 시대의 언어 연구

- 신대륙 발견과 함께 새로운 수많은 언어들 발견되었다.
- 유럽 내에서는 민족국가들이 성립됨에 따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 라틴어의 권위에 눌러 왔던 개별 언어들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인쇄술의 발전은 언어 연구와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대개의 문법은 실용적 목적을 가진 문법 교육은 위한 것이었다.
- 상류사회에서의 고전 이해에 대한 필요성과 일반인들의 외국어 습득에 대한 필요성이 언어 연구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 포르루아얄(Port Royal) 문법학자 등에 의해 보편성을 추구하는 철학적 문법의 전통도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II. 르네상스 이후의 언어학

- 르네상스 이후 세계의 여러 언어가 유럽에 알려짐에 따라 19세기에는 언어를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론이 등장하였다.
- 훔볼트(W.von Humboldt), 슐레겔(F.Schlegel), 슐라이허(A. Schleicher) 등 독일의 언어학자들이 세계의 언어를 고립어, 첨가어, 굴절어로 분류한 것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 언어학에서 '유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세기 이후부터이다.

1. 비교언어학의 성립

-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팽창은 식민지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다.
- 18세기 말 인도에서 관리로 일한 윌리엄 존스는 인도산스크리트어와 유럽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와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이들 사이의 필연적 관련성을 주장하였다.
- 지역적으로 떨어진 다른 언어들이지만 조상은 하나였고 이 언어들은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하나의 언어 가족, 즉 한 어족에 속한다는 것이었다.
- 비교언어학은 인도와 유럽 여러 언어들 사이의 친족관계를 밝히고 그 언어들 조상의 형식을 추정하여 재구성(reconstruction)하고자 하는 언어 연구이다.
- 비교 언어학(역사비교언어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로 철학의 울타리 안에서 연구되어 오던 언어 연구를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시켰다.

2. 구조주의 언어학과 생성문법

1) 소쉬르와 구조주의

- 19세기 언어 연구는 역사적 연구, 통시적(diachronic)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 20세기 초 소쉬르(F. de Saussure)는 언어 연구의 중심을 한 시대의 언어 상태를 기술하는 공시적(synchronic)연구로 돌려놓았다.
- 소쉬르는 통시와 공시를 구별하고 공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언어 기술에서 구조를 중시함으로써 20세기 언어학은 구조주의(Structuralism)언어학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언어는 단순히 요소의 집합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전체 시스템 내의 어떤 층위에서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구조주의적 사상은 20세기 언어학의 기본 사상이 되었으며, 언어학뿐 아니라 인류학, 문예비평 등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 랑그(langue)와 파롤(parole)

- 소쉬르가 현대 언어학에 미친 중요한 공헌 중의 하나는 언어를 랑그와 파롤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눈 것이다.
- 랑그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언어이며, 파롤은 개인마다 다른 각 개인의 사적인 체계로서의 언어이다.
- 소쉬르는 랑그가 언어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2) 시니피양(signifiant)과 시니피에(signifié)

- 언어가 기호의 한 종류임을 명확히 하였다.
- 기호의 표현의 면을 시니피양, 기호의 내용이나 의미를 시니피에로 불렀다.
- 시니피양은 소리(청각 영상)이며 시니피에는 의미(개념)이다.

- (3) 통시적(diachronic) 언어 연구, 공시적(synchronic) 언어 연구
- 역사 언어학은 언어의 역사를 탐구하는 통시적 연구를 수행할 때 체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공시적 연구는 여러 시대의 언어 자료를 뒤섞어 사용하면 안 된다.
- (4) 실질(substance)과 형식(form)
- 실질은 물질과 유사한 개념, 형식은 그 물질에 부여하는 어떤 모양을 의미
 - 언어의 실질은 소리와 의미, 소리와 의미가 언어체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에 형식이 부여되기 때문
 - 소리의 형식이 음소(언어체계), 의미의 형식이 어휘화(어휘체계)이다.
- (5) 계열적(paradigmatic)관계와 결합적(syntagmatic) 관계
- 언어 표현들은 어떤 언어적 환경에서 (계열적으로)대치될 수도 있고 서로 결합할 수도 있다.
 - 계열적 관계는 품사 내지 더 하위의 단어 부류와 관련이 있고 결합적 관계는 통사적, 의미적으로 올바른 표현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다.
- 2) 구조주의의 발전
- 소쉬르 이래 구조주의 언어학이 유럽에서 자리 잡았으며, 스위스(제네바), 덴마크(코펜하겐), 체코(프라하)를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다.
 -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언어들을 기술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다.
 - 문자가 없는 언어의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 미국의 언어학자들은 소리, 형태소, 단어, 문장으로 이어지는 여러 층위의 언어 기술의 엄밀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했다.
 -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언어 현상에만 기반을 둔 언어 기술 방법이다.
- 3) 촘스키와 생성문법
- 촘스키(N.Chomsky)는 1957년 『통사 구조』(Syntactic Structure)라는 저서를 내놓으면서, 당시의 미국 구조주의 연구 방법을 비판하고 내성적인 방법을 통하여 언어를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 언어 연구를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인식하여, 언어학을 인지심리학의 한 분야로 파악하였다.
 - 이러한 사상은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드리아학파에서부터 로마 시대와 중세 시대의 실용 문법, 19세기 역사 언어학을 관통하여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에 나타나는 철저한 관찰주의와 경험주의적 관점을 거부하고, 스토아학파와 중세의 내성문법에 나타난 이성주의를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다.
- (1)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 언어가 아주 복잡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가 어떤 언어든지 모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생득적인 인간 특질로서 보편문법을 인정하게 만든다.
- (2)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
- 생성이란 일정한 수의 규칙으로 무한한 결과를 산출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유한한 수의 단어를 사용하여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기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 (3) 언어 능력(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
- 언어 사용자는 언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언어 사용의 상황에서는 물리적, 생리적 제약으로 인해 불완전한 발화가 생길 수도 있다.
 - 언어에 관한 지식을 언어 능력으로, 실제로 발화되는 것을 언어 수행으로 명명하였다.
 - 촘스키는 언어 연구의 대상은 언어 수행이 아니라 언어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
 -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 구분과 개념적 관련이 있고, 언어 연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면에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2주차 1차시 언어의 소리 : 음성학 1

I. 말소리의 생성

1. 소리에 대한 연구

-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소리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는 분야는 음성학(phonetics)과 음운론(phonology)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음성학이란 어느 한 특정한 음성이 화자의 발성기관의 일부인 성도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 음운론이란 이렇게 만들어진 음성이 그 음성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음성들과 어우러져 어떤 소리로 변하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1) 음성학의 하위 분야

① 조음 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

- 화자의 발성기관의 일부인 성도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음성이 만들어지는가를 밝히는 학문이다.

②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s)

- 화자의 음성이 공기를 통과할 때 발생하는 음파(sound waves)를 물리학적 장치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③ 청각 음성학(auditory phonetics)

- 화자의 음성이 청자의 청각기관에 도달하여 청취되고 우리의 두뇌에서 인지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2. 말소리의 생성과정

1) 말소리 산출에 사용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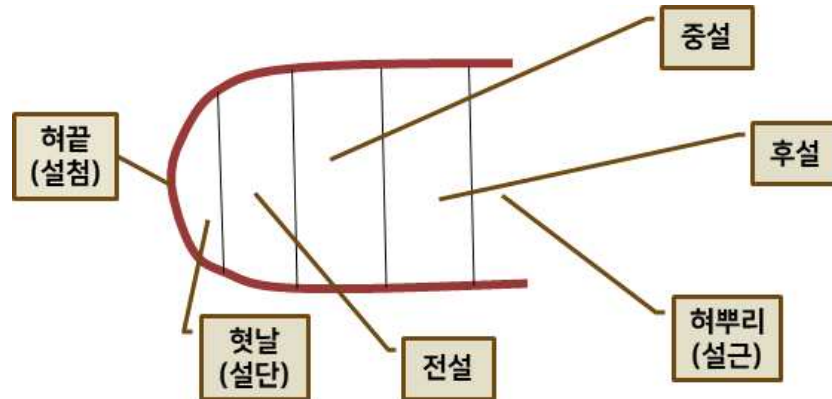
(1) 발음기관

- 음성의 조음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발음기관의 모양과 기능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

〈그림〉 발음기관



〈그림〉 혀의 부위별 명칭



① 후두

- 기관의 맨 위쪽에 있는 반지연골(cricoid cartilage)로부터 위로는 혀뿌리에 붙어 있는 목뼈(hyoid bone) 사이의 부분을 통칭하는 것이다.

② 혀

- 혀의 가장 앞부분을 혀끝(설첨,舌尖, tongue tip), 보통 입을 다문 자연스런 휴식 상태에서 치경(잇몸) 부와 닿아 있는 부분을 혀날(설단,舌端, tongue blade), 나머지 혀의 위 표면을 통틀어 혀몸(설배,舌背, tongue body)라고 한다. 혀몸은 다시 전설(front), 중설(central), 후설(back)로 나눌 수 있다.

③ 입천장

- 입천장은 윗니 뒤쪽으로 약간 볼록한 치경(齒莖, 잇몸, alveolar ridge), 그 뒤쪽으로 뼈가 있어서 딱딱한 경구개(硬口蓋, 단단입천장, hard palate), 뼈가 없어서 물렁물렁한 연구개(軟口蓋, 물렁입천장, soft palate), 연구개의 끝부분이며 구강 쪽으로 드리워져 있는 구개수(口蓋垂, 목젖, uvula)로 나뉘어진다.

(2) 구강음(oral sound)과 비음(nasal sound)

- 연구개를 올려 인두벽에 대어 비강 통로를 차단하면 허파에서 올라온 기류가 비강으로 흐르지 못하고 구강으로만 흐르게 되어 구강음이 형성된다.
- 연구개를 내린 상태로 허파에서 조달된 기류가 흐르게 되면 비강으로 공기가 통하게 되어서 비음(nasal sound)이 생성된다.

3. 말소리 산출의 과정

1) 발동 과정

- 말소리의 대부분은 폐에서 내뿜어진 기류가 성대(vocal folds)와 성도(vocal tract)를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 발동과정은 기류의 조달 장소와 기류의 방향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 세상에 존재하는 말소리의 대부분은 기류의 조달 장소가 폐이고 기류의 방향이 안에서 바깥쪽이다.
- 부아소리(pulmonic sounds)는 기류의 조달 장소, 발동 기관이 폐인 소리이다.
- 날숨소리(egressive sounds)는 기류의 방향이 안에서 바깥쪽인 소리이다.
- 세상에 존재하는 말소리의 대부분은 부아날숨(pulmonic egressive sounds)의 발동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 말소리 중에는 발동 장소가 폐가 아닌 경우도 있고, 기류의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인 경우도 존재한다. 기류 조달 장소는 폐 외에 성대와 연구개가 있다.
- 부아 들숨과 연구개 날숨은 말소리에 사용되지 않는다.

〈표〉 발동에 따른 말소리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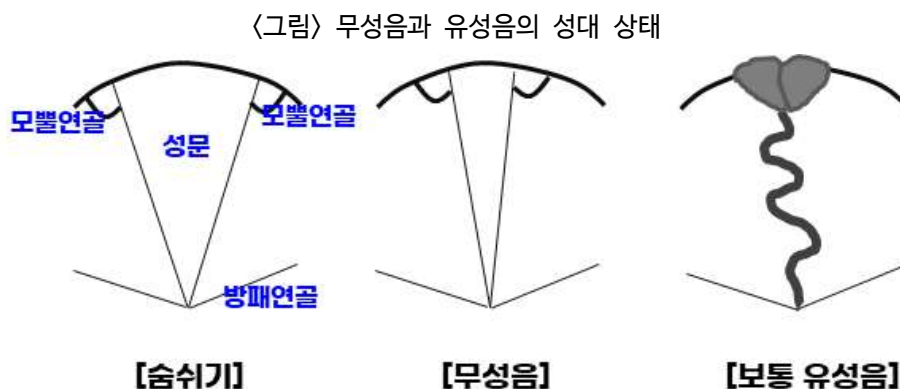
기류	조달장소	방향	폐쇄음의 이름
부아 날숨소리	폐	안에서 밖으로	폐쇄음
성문 날숨소리	성대	안에서 밖으로	방출음
성문 들숨소리		밖에서 안으로	내파음
연구개 들숨소리	연구개(혀)	밖에서 안으로	흡착음

2) 발성 과정

- 발동 과정을 통해 조달된 기류는 성대(聖帶, vocal folds)에서의 조절 작용을 거치게 된다. 성대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류 조절 과정을 발성(發聲, phonation)이라고 한다.
- 성대는 모음(adduction)과 벌림(abduction)운동을 통하여 폐로부터 올라온 기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유성음은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는 소리로, 성대의 전체 혹은 일부가 빨리 여닫혀서 진동을 하게 된다.
- 무성음은 성대의 진동을 동반하지 않는 소리로, 성대가 서로 떨어져서 성문이 열린 상태가 되거나 서로 붙어서 성문이 닫힌 상태가 된다.

3) 조음 과정

- 발동 과정을 통해 조달되고 발성 과정을 거치면서 조절된 기류는 성도(聲道, vocal tract)를 통과하면서 변형된다.
- 기류가 통과하는 이 공간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킴으로써 다양한 말소리를 만들어 낸다.
- 자음(consonant)은 기류가 구강의 중앙 통로에서 방해 받으면서 나는 소리이다.
- 모음(vowel)은 기류가 구강의 중앙 통로에서 방해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II. 자음의 체계

1. 공명음 대 장애음

- 공명음(共鳴音, sonorant)은 기류가 성도를 빠져나오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로 기류의 교란으로 인한 소음이 없다.
- 장애음(障礙音, obstruent)은 성도의 일부가 일정 정도 이하로 좁아지면서 성도를 빠져나오는 기류가 장애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로 기류의 교란으로 인한 소음이 동반된다는 음향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1) 장애음의 생성 방법

- 기류가 통과하는 통로를 일정 정도 이하로 좁혀서 난기류(turbulence airflow)가 생성되도록 하여 지속적인 소음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예 : 마찰음)
- 기류를 일정정도의 시간 동안 꼭 막았다가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열어서 순간적인 소음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다.(예 : 폐쇄음)
- 파찰음은 폐쇄와 마찰이 순차적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2. 자음의 분류

- 음성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자음과 모음으로 구분되며 어느 언어이든지 이 두 종류의 음성이 존재한다.
- 공기가 허파로부터 나와 발음기관을 거쳐 입 밖으로 나갈 때, 그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 받을 때 나는 소리가 자음이다.
-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을 때 생기는 소리이므로, 그 장애가 조음부의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그림〉 국제음성기호(IPA) 자음

	Bilabial	Labiodental	Dental	Alveolar	Postalveolar	Retroflex	Palatal	Velar	Uvular	Pharyngeal	Glottal
Plosive	p b			t d		ʈ ɖ	c ɟ	k ɡ	q ɢ		ʔ
Nasal	m	ɱ		n		ɳ	ɲ	ŋ	ɴ		
Trill				r					ʀ		
Tap or Flap		ⱱ		ɾ		ɽ					
Fricative	ɸ β	f v	θ ð	s z	ʃ ʒ	ʂ ʐ	ç ʝ	x ɣ	χ ʁ	ħ ʕ	h ɦ
Lateral fricative				ɬ ɮ							
Approximant		ʋ		ɹ		ɻ	j	ɰ			
Lateral approximant				l		ɭ	ʎ	ʟ			

1) 조음 방법

① 파열음(plosive)

- 조음기관끼리 닿아서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가 갑자기 터질 때 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p, b, t, d, k, ɡ] 등이 있다.

② 비음(nasal)

- 파열음과 같이 구강에서 공기의 길을 차단하였다가 파열시키지만, 파열음과 달리 입천장을 내려서 그것이 뒤의 인두벽과 닿지 않으므로써 비강으로 통하는 공기길을 열어 놓을 때 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m, n, ŋ] 등이 있다.

③ 전동음(trill)

- 조음기관이 떨면서 나는 소리. 두 입술이 진동시키거나([B]) 혀날을 치경에 대고 떨거나([r]) 목젓을 혀의 뒷부분에 대고 떠는 소리([R])가 있다.

④ 탄설음(tap, flap)

- 혀를 치경 부분에 한번 탁 부딪쳐 내는 소리. 우리말의 음절 초에 있는 ‘ㄹ’ 소리가 치경 탄설음[t]에 해당하고 영국 영어의 어두의 ‘r’ 소리가 탄설음으로 발음된다.

⑤ 마찰음(fricative)

- 조음기관들이 접근하여 공기가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마찰을 일으킬 때 내는 소리이다.
- 모든 조음위치에서 마찰음이 가능하다.
- 예를 들어 [f, v, θ, ð, s, z, ʃ, ʒ] 등이 있다.

- ⑥ 설측음(lateral)
- 공기가 혀의 옆으로 빠져 나오면서 나는 소리로 알파벳으로 'l'로 쓰는 소리이다. 보통의 근접음(approximant) 설측음[l]과 마찰을 동반한 설측음이 있다.
- ⑦ 근접음(approximant)
- 조음기관의 접근이 마찰의 경우만큼 심하지는 않고 좀 간격을 두고 접근할 때 나는 소리이다.
 - 미국 영어의 음절 초의 'r'이 근접음[r]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 ⑧ 파찰음(affricate)
- 파열음과 마찰음의 연속으로 간주되어 IPA 단자음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파열과 그 직후의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영어의 'church', 'judge' 등의 단어의 첫 소리[tʃ, dʒ], 우리말의 'ㄷ'에 해당한다.
- 2) 조음 위치
- 자음은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경음, 후치경음, 전경구개음, 권설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인두음, 성문음으로 나뉜다.
- ① 양순음(bilabial)
- 위아래 입술이 작용하여 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파열음[p, b], 비음[m], 마찰음 [ɸ, β] 등이 있다.
- ② 순치음(labiodental)
- 윗니와 아랫입술이 근접하여 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마찰음 [f, v], 비음[m] 등이 있다.
- ③ 치음(dental)
- 혀끝이 이 사이에 끼어서 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마찰음 [θ, ð] 등이 있다.
- ④ 치경음(alveolar)
- 혀날이 치경에 닿거나 접근하여 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t, d, s, z, r, l] 등이 있다.
 - 파열음, 비음, 마찰음, 유음이 존재한다.
- ⑤ 치경경구개음(postalveolar)
- 치경과 경구개 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다.
 - 예를 들어 [ʃ] 'shoes', [ʒ] 'vision' 등이 있다.
 - [ʒ]은 프랑스어의 일인칭 대명사 'je' 등 많은 단어에서 나타난다.
- ⑥ 권설음(retroflex)
- 혀를 말아서 혀의 아랫부분이 치경과 경구개 사이에 닿거나 근접하여 나는 소리이다.
 - [ʈ, ɖ, ɳ, ʂ, ʐ] 등 치경음과 대응하는 소리로 중국어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 ⑦ 경구개음(palatal)
- 혀몸이 경구개에 닿거나 접근하여 나는 소리로서 파열음 [c, ɟ], 비음[n], 설측음[ɕ], 마찰음[ç] 등이 있다.
 - 경구개 비음은 우리말에서 /l/ 모음 앞의 'ㄴ'이 갖는 음가와 비슷하다.
 - 경구개 마찰음은 독일어에서 'ich' 등에서와 같이 [i] 모음 뒤에서 쓰이는 'ch'의 소리이다.
- ⑧ 연구개음(velar)
-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거나 접근하여 나는 소리로서 파열음[k, g], 비음[ŋ], 마찰음[X] 등이 있다.
 - 연구개 마찰음은 독일어의 'Bach' 등에서와 같이 [a] 또는 [u] 뒤에 쓰이는 'ch'의 소리이다.
- ⑨ 구개수음(uvular)
- 목젖과 혀의 뒷부분이 관여하는 소리로 파열음[q, G], 비자음[N], 전동음[R] 등이 있다.

⑩ 인두음(pharyngeal)

- 인두강이 좁아져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로, 인두마찰음[ħ, ʕ]이 있다.
- 아랍어에 특징적으로 쓰인다.

⑪ 성문음(glottal)

- 성문이 조음에 관여하여 나는 소리이다.
- 성문을 닫았다가 갑자기 터뜨려 내는 성문 파열음[ʔ]과 무성, 유성 마찰음[h, ħ]이 있다.

3) 한국어 자음의 특징

- 우리말의 자음은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b]와 [p]와 같은 유성과 무성의 대립이 기능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ㅂ,ㅃ,ㅍ/ 삼중대립을 보인다.
- 모두 무성음으로서 무기음, 기음(유기음), 경음이며 발음기호로는 [p, p^h, p']로 표시한다.

2주차 2차시 언어의 소리 : 음성학 2

1. 모음의 체계

1. 모음의 정의

- 모음이란 조음 과정에서 기류가 구강 통로의 중앙부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만들어지는 소리
- 조음적으로 성대 진동을 위한 공기역학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성도강형상(vocal tract configuration)을 가지고 산출되기 때문에 모두 유성음이다.
-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을 때 나는 소리이므로, 자음과 같이 조음기관이 닿거나 근접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다.

2. 단모음 분류의 음성학적 기준

- 모음을 분화시키는 세 가지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변수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 ✓ 혀의 높이(고저)
- ✓ 혀와 입천장 사이의 협착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 ✓ 셋째, 입술의 돌출이 일어나는가?

1) 혀의 높이

- 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high), 반고(mid-high), 반저(mid-low), 저(low)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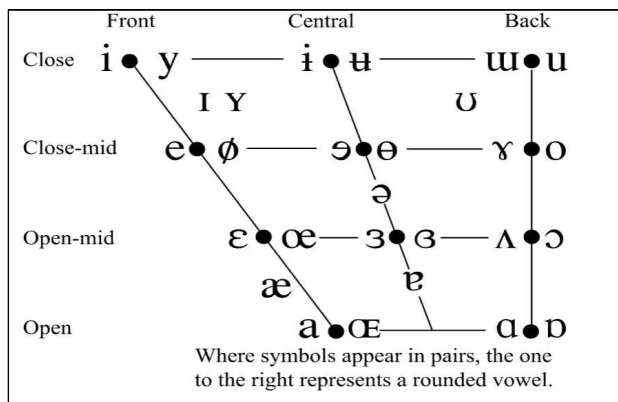


- 혀의 높이는 입을 벌린 정도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고모음(high-vowel)은 폐모음(close-vowel)으로, 저모음(low vowel)은 개모음(open-vowel)으로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고, 반고, 반저, 저는 각각 폐(close), 반폐(close-mid혹은 half-close), 반개(open-mid혹은 half open), 개(open)로도 불린다.
- 혀의 높이가 3단계인 경우에는 반고나 반저, 반폐나 반저는 설정되지 않는다. 대신, 고모음과 저모음 사이에 중모음(mid-vowel)을 설정하여 고(high),중(mid), 저(low)의 3단계를 설정하게 된다.
- 혀의 고저가 모음의 질(vowel quality)을 달리하게 되는 이유는 혀의 높이에 따라서 성도의 형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강의 형상 차이는 공명 주파수의 차이를 초래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질을 가진 소리로 산출된다.

2) 전·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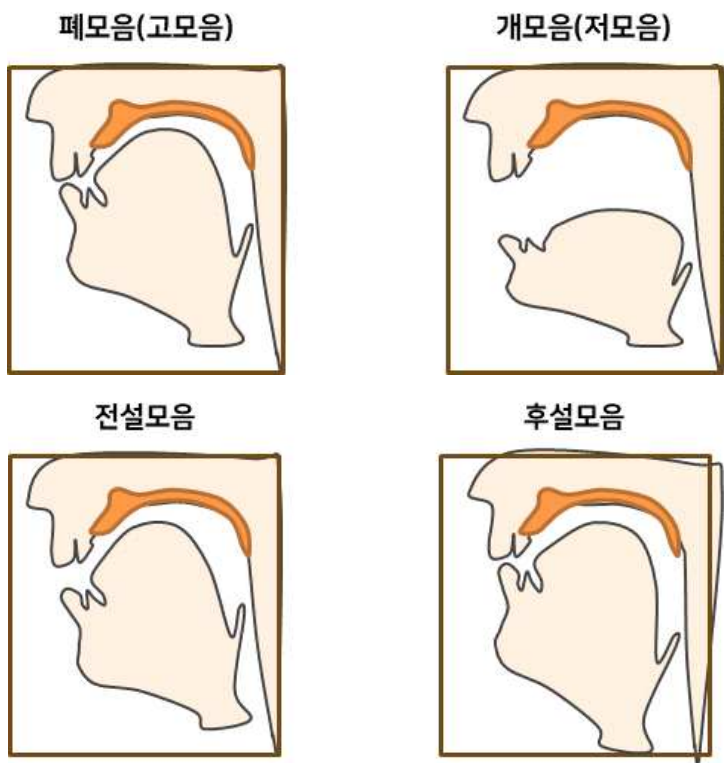
- 모음은 성도 전체에서 가장 좁아지는 협착의 위치가 혀를 기준으로 어디인가에 따라서 전설모음(front vowel), 중설모음(central vowel), 후설모음(back vowel)으로 나뉜다.

〈그림〉 국제음성기호(IPA) 모음



- 혀의 위치를 보면 [i]는 혀의 정점이 입의 앞쪽인 전설모음이고 [u]는 혀의 정점이 입의 뒤쪽인 후설모음이다.
- 성도를 하나의 관으로 단순화했을 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성도의 어느 위치에서 협착이 이루어지는가는 결국 협착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앞쪽 관과 뒤쪽 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 협착이 앞쪽, 즉 혀를 기준으로 전설 쪽에 만들어진다면 협착 위치를 기준으로 앞쪽 관은 짧고 뒤쪽 관은 길 것이며, 협착이 뒤쪽의 후설 쪽에 만들어진다면 협착 위치를 기준으로 앞쪽 관은 길과 뒤쪽 관은 짧을 것이다.
- 서로 다른 관의 길이는 서로 다른 공명 주파수를 갖게 되므로 서로 다른 질의 모음이 산출된다.
- 폐모음(고모음)과 개모음(저모음),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기관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모음의 발음 모양



3) 원순성

- 모음은 입술의 돌출 여부에 따라서 원순 모음(rounded vowel)과 평순 모음(unrounded vowel)으로 나눌 수 있다.
- 성도관을 하나의 관으로 단순화했을 때 입술의 돌출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관의 길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 입술이 돌출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하여 관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 전체 관의 길이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되면 관이 갖게 되는 공명 주파수에 차이가 생기게 되어 서로 다른 질의 모음이 산출되는 것이다.

3. 한국어의 모음(단모음)

- 한국어의 단모음은 ‘ㅏ, ㅓ, ㅗ, ㅜ, ㅡ, ㅣ,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10개이며 ‘ㅑ, ㅓ’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표〉 한국어의 단모음 체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고모음	ㅣ [i]	ㅑ [ü/wi]	ㅡ [i]	ㅓ [u]
중모음	ㅓ [e]	ㅕ [ö/we]	ㅗ [ə:]	ㅛ [o]
저모음	ㅗ [ɛ]		ㅜ [a]	ㅠ [ʌ/ɔ]

- /ㅜ/ 는 중설 (中舌)에 가까운 [ä]이다.
- /ㅗ/ 는 흔히 비원순 중저모음(非圓脣中低母音) [ʌ]로 표시되는데 서울 방언의 /ㅗ/는 완전한 비원순 모음이 아니라 원순과 비원순의 중간적인 발음이다. 따라서 이 모음은 [ʌ] 에 보조 기호 ‘v’(원순성이 더함)를 달아 [ʌ^v] 로 표시하거나 [ɔ] 에 보조 기호 ‘c’(원순성이 덜함)를 달아 [ɔ^c] 로 표시해야 더 정확한 표기가 된다.
- 한국어의 /ㅡ/[i]는 3모음의 세 가지 특징([저설성], [전설성], [원순성])이 없고, 음성학적으로 가장 특징이 없는 무표 모음, 외래어 차용에 사용된다.
-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노년층을 제외하고 /ㅗ/와 /ㅓ/의 구별이 상실되어 동일한 소리로 발음 된다. 그 음성은 [ɛ] 와 [e] 의 중간 소리다. 또 서울 방언도 평양 방언도 단모음 음소로서 /ㅕ/, /ㅑ/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모음의 종류가 가장 적은 서울 방언 화자의 경우 단모음은 일곱 가지(/ㅏ, ㅓ, ㅗ, ㅛ, ㅜ, ㅠ, ㅡ/)밖에 없다.

II. 운율

1. 운율의 개념

- 자음과 모음은 독립하여 낼 수 있는 하나의 낱소리, 즉 분절음(segment)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립하여 발음할 수 없고 반드시 분절음에 실려 실현되는 음성적 특성들을 운율(prosody)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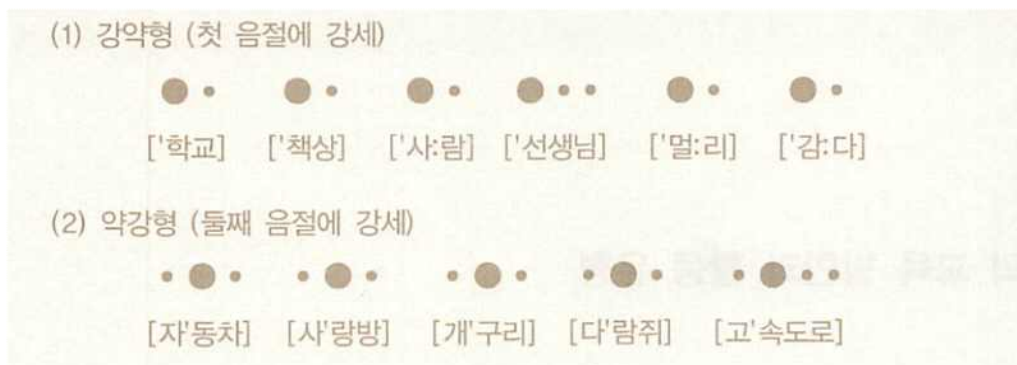
2. 운율의 유형

1) 강세

- 분절음을 발음할 때 크게 혹은 작게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이러한 특성은 강세(stress)현상을 드러낸다.
- 우리말에서는 강세가 큰 의미를 갖지 않지만 영어에서 모든 단어는 강세를 가진다.
- 동일한 분절음의 연속이 강세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단어가 되기도 한다.

[예시]
 ✓ 'perfect'
 - 강세가 앞에 올 때 : 완전하다(형용사)
 - 강세가 뒤에 올 때 : 완전하게 만든다(동사)

- 한국어의 강세는 강약형, 약강형의 두 가지 형태의 리듬이 존재하는데 주로 첫 음절에 오며, 3음절 이상인 낱말에서 첫 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온다.



- 두 개의 말토막이 합쳐져 다른 하나의 말마디를 이루는 경우는 마지막 말토막에 두었던 강세는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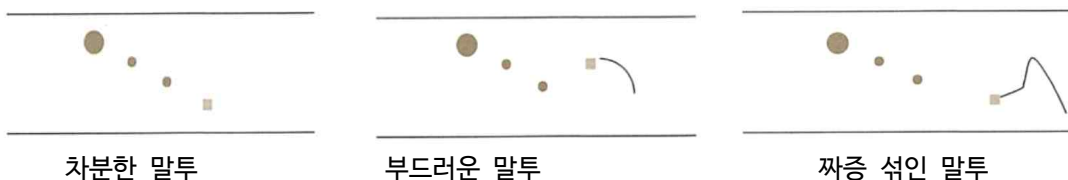
[예시]
 ✓ 한 번만() 강세를() 두세요. ()
 [한 번만] [강세를] [두세요]
 ✓ 한 번만() 강세를 두세요.()
 [한 번만] [강세를 두세요]

2) 억양과 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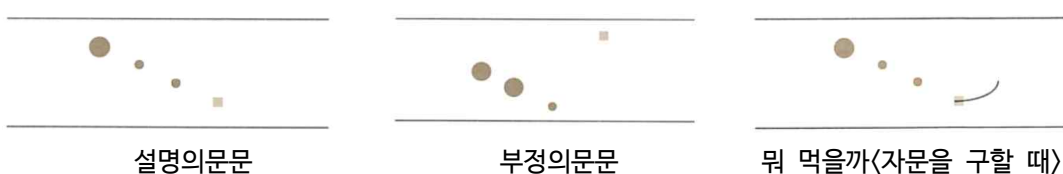
(1) 억양

- 음성 파도의 파장은 주파수와 반비례한다. 주파수가 높으면, 즉 파장이 짧으면 높은 소리이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이다. 말을 할 때 음성의 기본 주파수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게 된다.
- 특히 문장의 끝 부분에서의 소리 높이 변화는 단언, 질문, 명령 등을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운율적 특성이다. 구, 절, 문장 등 소리의 연속체 전체와 관련된 음높이의 변화를 억양(inton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우리말의 말토막 억양에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마지막 음절에 얹혀 표현된다.

① 평서문의 억양 “밥 먹었어.”



② 의문문의 억양 “뭐 먹을래?”



③ 명령문의 억양 “밥 먹어.”



(2) 성조

- 어떤 언어에서는 하나의 분절음 모음에서 음의 높이의 차이와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성조(tone)라고 한다.
- 표준 중국어는 평음(high level), 상승(rising), 하강상승(falling-rising), 하강(falling)의 네 가지 성조가 있다.
- 우리말은 중세어에는 성조가 있어 방점으로 표시했으나 오늘날은 경상 방언을 제외하고는 상실되었다.

[예시]

✓ “가-가-가-가?” : “그 애가 그 애냐?”

3) 음의 길이

- 마찰 자음이나 모음은 길게 혹은 짧게 소리 낼 수 있다. 음의 길이도 분절음에 실려 나타나는 운율적 요소이다.
- 우리말의 경우 ‘눈’, ‘밤’, ‘발’ 등의 일음절어 단어처럼 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의 쌍들이 있다. (어휘적 장음)
- 발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표현적 장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시]

✓ 저기[저:기] 멀리[멀:리] 보이는 게 뭐지?

4) 휴지(pause)

- 음성을 발음하는 중간에 소리가 없는 시간을 의미한다.
- 휴지의 유무에 따라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될 수 있다.

[예시]

✓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 “아줌마파마해주세요”

3주차 1차시 언어의 소리 체계 : 음운론 1

I. 음성과 음소

- 언어의 소리가 음성(speech sound, phone)이다.
- 지식으로서의 언어음은 음소(phoneme) 혹은 음운이다.
- 음소는 언어의 소리 체계 내에서 다른 소리와 구별되어 독립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다.
- 음운론이란 언어의 소리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1. 양순파열음(영어와 한국어)

1) 영어의 양순 파열음

'pie'

'bye'

- 영어 자음 중에는 무성음과 유성음이 존재한다.
- 최소 대립쌍(minimal pair)이란 하나의 소리만이 다르고 다른 분절음이 모두 같은 단어들의 쌍이다.
- 최소 대립쌍을 성립하게 하는 두 개의 소리는 각각 다른 음소들이다.
- 영어의 소리 체계 내에 대립하며 독립적인 소리를 차지하고 있다.

'pie' [p^hai]

'spy' [spai]

- 'pie'의 /p/는 기(氣,aspiration)를 동반한 무성 파열음[p^h]이다.
- 'spy'는 기가 없는 단순 무성 파열음 [p]이다.
- 영어에는 [p, p^h, b] 세 가지 양순 파열음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p^h], [p]의 구별을 하지 못하고 같은 소리로 듣는다.
- [p^h], [p] 두 음성은 /p/의 변이음(이음,allophone)이다.
- 유성음 /b/는 한 가지 음성[b]로 실현된다.

2) 우리말의 양순 파열음

(1) [p], [b]

- 우리말에도 [p]와 [b]가 존재하나, 둘 다 'ㅂ'으로 표기한다.

'봄' [pom]

'가방' [kabang]

- 음소적 관점에서 두 소리는 구별되지 않는다.

'부부' [pubu]

- 하나의 음소의 이음들은 최소대립쌍을 형성하지 않으며 우리말 소리 체계 내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 'ㅂ'의 경우 모음 등의 유성음 사이에서는 [b]으로 발음되지만(유성음화), 그 밖의 환경에서는 [p]로 발음된다.
-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와 관련하여 같은 환경에 나타나지 못하는 언어 요소들이 있을 때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한다.
-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두 개의 음성은 언어 소리 체계 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음소의 변이음이라고 할 수 있다.

(2) ㅂ [p], ㅃ [pʰ], ㅍ [pʷ]

- 우리말 무성음 중에는 보통의 무성음 이외에 [p], [pʰ], [pʷ] 가 있다.
- 세종대왕은 이 세 소리를 구분하여 ‘ㅂ, ㅃ, ㅍ’를 만든다.
- 이러한 삼중 대립은 양순음 이외에도 치경음(/ㄸ, ㅌ, ㅆ/), 연구개음(/ㄱ, ㅋ, ㆁ), 경구개파찰음(/ㅈ, ㅊ, ㅍ/)에서도 나타난다.
- 이들 소리에 대한 유성음[d] (‘아들’), [g] (‘아기’), [dʒ] (‘아주’)이 음성적으로 존재하지만 음소적 관점에서 우리말에 유성음이 없다.

3) 영어와 한국어의 비교

우리말	영어
/ㅂ/ - [p] (‘발’) [b] (‘가발’)	/p/ - [p] (‘spy’) [b] (‘pie’)
/ㅃ/ - [pʰ] (‘팔’)	/b/ - [b] (‘bye’)
/ㅍ/ - [pʷ] (‘빨래’)	

*(/ : 음소 표시, [] : 음성 표시)

- 우리말의 경음을 제외하면 우리말과 영어는 동일한 양순파열음 [b], [p], [pʰ]를 가지고 있다.
- 음운론적 관점에서 보면 영어에는 따로 기음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말에서는 유성음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이것들은 특수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이음’들일 뿐이다.

2. 음소(음운)의 정의

1) 음소의 개념

(1) 심리적 정의

- 음소는 언어 사용자가 인식하는 혹은 아는 소리이다.
- 한국 사람이 [p], [pʰ]를 구별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이 두 소리는 각각 독립된 음소이고, [b]는 따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음소가 아니다.

(2) 기능적 정의

- 음소는 의미 분화의 기능을 한다.
- 우리말에서 [p]와 [pʰ]는 ‘발’과 ‘팔’처럼 최소대립쌍의 의미를 구분해 주므로 이 둘은 음소가 된다.
- [b]가 의미를 구분해 주는 단어는 없으므로 이는 음소가 아니다.

(3) 분포적 정의

- 비상포적 분포를 이루는 소리들은 각각 음소이지만,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소리들은 독립된 음소들이 아니라 하나의 음소의 이음들이다.
- 우리말 유성음 [b]와 무성음 [p]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며 이것들은 하나의 음소 /ㅂ/의 이음들이다.

➡ 음소란 지식으로서의 말소리이자 한 언어의 소리 체계 내에서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소리이다.

2) 음소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

- 음소는 소리에 대한 지식으로 한 언어에 대한 지식은, 그 언어에는 없는 다른 소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방해한다.
- 다른 언어의 소리를 자기 언어의 음소의 소리로 변형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 외국어를 발음할 때에도 자기 언어에 없는 외국어의 소리는 발음하기 어렵다.

[예시]
 ✓ 유성음 [b] - 'bus' ([bʌs]) vs. [버스] ([pʌs]), [버스] ([p'ʌs])
 ✓ 순치음 [f] - 'coffee' [커피] ([kʰʌpʰi])
 'file' [화일], 'finger' [핑거]

II. 음소(음운) 배열과 음절 구조

1. 음소(음운) 배열과 음절 구조

- 언어의 소리에 대한 지식은 그 언어에 있는 소리 목록, 즉 음소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이 음소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음절 구조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1) 음절(syllable) 구조

- 한 번에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하나의 모음을 중심으로 앞뒤에 자음들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모음 하나만이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음절을 모음만으로 구성하는 언어는 없다.
- 모든 언어가 모음(vowel) 앞에 하나의 자음(consonant)이 결합한 음절 구조(CV)의 음절 구조를 허용한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
CV	CVC	CCCVCCCC

2) 음절 구조의 제약

- 영어는 세 개의 자음이 음절 초에 올 경우 첫 자음은 /s/이고 그 다음은 /p, t, k/중에 하나이며, 그 다음은 /r, l/중의 하나여야 한다.
- 모음의 앞과 뒤에 하나의 자음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 자음의 종류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예시]
 ✓ 연구개 비음[ŋ] (받침 'ㅇ' 소리)

- 음절 끝에 오는 자음의 제약

[예시]
 ✓ 한국어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종류의 자음만 가능하다.

3) 음절 구조의 제약이 미치는 영향

- 음절 구조에 대한 제약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접할 때에 영향을 미친다.
- 복잡한 음절 구조를 허용하는 언어의 단어가 그것보다 단순한 음절 구조만을 허용하는 언어에 차용될 때 모음 삽입 등을 통해 음절 구조가 단순화된다.

[예시]
 ✓ 한국어 '김치' (CVC CV) → 일본어 '기무치' (CV CV CV)
 ✓ 영어 'blue' (/blu/) → 한국어 (/블루/)

- 언어 화자는 모국어의 음소와 음소 배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알거나 접해 본 외국어의(모국어와 다른)음소와 음소 배열에 대한 막연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3주차 2차시 언어의 소리 체계 : 음운론 2

1. 음운 규칙

- 언어의 소리에 대한 지식 중 또 다른 하나는 음소와 음소가 차례로 결합할 때 실제 발음을 결정하는 음운 규칙(phonological rule)에 대한 지식이다.

1. 구개음화(palatalization)

- 자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모음이 경구개에 가까운 /i/모음일 경우 자음이 원래의 위치보다 경구개쪽으로 접근하여 발음되는 현상이다.

[예시]

✓ 영어의 'key'의 [k]발음이 'cool'의 [k]보다 더 앞에서 발음된다.

- 음운 층위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예시]

✓ '같이' [가치]

→ 치경음/ㄷ/이 원래의 위치보다 뒤의 경구개에서 발음되어 새로운 소리[ㄷ̟]로 발음된다.

2. 비음화(nasalization)

- 구강음이 주변의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되는 현상이다.
- 비음을 발음하기 위해 연구개를 인두벽에서 내리면서 공기가 비강쪽으로 흐른다. 이러한 발음기관의 운동은 비음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되고 비음이 끝난 후에도 연구개와 인두벽이 떨어진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된다.

[예시]

✓ [ba]의 모음[a]는 처음부터 계속 구강음이다.

✓ [ma]의 모음[a]는 [m] 소리 낼 때의 떨어진 연구개와 인두벽이 미처 붙기 전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므로 앞의 일정 부분은 비모음으로 소리난다.

- 한국어에는 비자음 주변에서 구강 자음이 비자음으로 음소 층위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예시]

✓ /ㄱ/→[ŋ] '국물' [궁물]

✓ /ㄷ/→[n] '걷는' [건는]

- 비음화 규칙을 언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 규칙의 영향으로 영어를 잘못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예시]

✓ 'top model' [탐모델]

✓ 'Good morning' [군모닝]

✓ 'bookmark' [붕마크]

3. 자음동화

- 우리말의 특수한 음운 규칙 가운데 /ㄴ/과 /ㄹ/이 연결될 때 앞의 /ㄴ/을 [ㄹ]로 바꾸어 [ㄹㄹ]로 발음 하거 뒤의 /ㄹ/을 [ㄴ]으로 바꾸어 [ㄴㄴ]으로 발음하는 규칙이 있다.

[예시]

✓ '신라' [실라], '음운론' [음운논]

- 영어에는 이러한 종류의 동화현상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바꿔 발음하면 안 된다.

[예시]

✓ 'Henry' [henri] - [헨니], [헬리] ×

✓ 'Only' [onli] - [온니], [올리] ×

4. 그 외

- 음운적 변동의 규칙은 아니지만 한국어다운 발음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다운 발음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내재화해서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규칙이 있다.

1) 유성음화

- /ㅂ, ㄷ, ㄱ, ㅈ/ 소리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예시]

- ✓ '바보'의 음운 표상 /papo/의 두 번째 자음이 유성음으로 변하여 [pabo]로 소리 나도록 하는 것

2) 경음화

- 어떤 소리 뒤에서 무성 평음 파열음이 무성 경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예시]

- ✓ 국적' [국쩍]과 같이 앞 음절이 무성 파열음으로 끝나면 다음에 오는 무성 파열음은 경음화된다.
- ✓ '갈 사람' [갈싸람]과 같이 미래 혹은 추정을 나타내는 형태소 'ㄹ'은 그 뒤에 오는 무성 자음을 경음화하는 현상도 있다.

3)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 'ㄴ'이 근처의 양순음 혹은 연구개음의 영향을 받아 그 소리를 닮아가는 동화현상이다.

[예시]

- ✓ '신문' [심문], '손가락' [송까락]

4) 격음화

- 평음 앞이나 뒤에 /ㅎ/이 올 때 평음이 격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예시]

- ✓ /ㄱ/+/ㅎ/→/ㅋ/('각하' [가카])
- ✓ /ㅎ/+/ㄱ/→/ㅋ/('좋고' [조코])

II. 변별적 자질

1. 음소들의 부류와 상호 관계

- 자질(feature)이란 어떤 분절음을 구성하는 음성적 특징이다.
-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이란 소리와 소리를 구별해 주는 자질이다.
- 변별적 자질로 음성들 혹은 음소들의 상호 관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예시]

- ✓ [b]-[p], [g]-[k], [d]-[t]

- 적은 수의 변별적 자질로 여러 가지의 분절음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언어 기술의 경제성이 있다.

[예시]

- ✓ [ㄱ, ㅋ, ㆁ]의 변별적 자질 : 기식성(aspirated), 긴장성(tense)

	[ㄱ]	[ㅋ]	[ㆁ]
[기식성]	-	+	-
[긴장성]	-	-	+

- 변별적 자질은 소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냄으로써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어떤 소리들이 묶이고, 다른 관점에서 어떤 소리들이 묶이는지 잘 보여준다.
- 기식성의 관점에서 보면 /ㄱ, ㄷ, ㅌ, ㅈ/ 소리들이 하나의 부류지만, 조음 위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부류가 아니다.

2. 음운 규칙의 기술 : 비음화

- 변별적 자질은 음운 규칙의 기술을 간결하게 하면서, 음운 규칙의 동기를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먹는	[멍는]	ㄱㄴ	→	ㅇㄴ
걷는	[건는]	ㄷㄴ	→	ㄴㄴ
잡는	[잠는]	ㅂㄴ	→	ㅁㄴ
국만	[궁만]	ㄱㅁ	→	ㅇㅁ
만며느리	[만며느리]	ㄷㅁ	→	ㄴㅁ
밥만	[밤만]	ㅂㅁ	→	ㅁㅁ

➔ 비음화 규칙 : /ㄴ/이나 /ㅁ/ 앞의 /ㄱ, ㄷ, ㅂ/이 [ㅇ, ㄴ, ㅁ]으로 변한다.

- 비음화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음운 규칙이 필요하다.

A → B / C_D : A 소리가 C와 D사이에서 B로 변한다.

ㄱ	→	ㅇ	/	_ㄴ
ㄷ	→	ㄴ	/	_ㄴ
ㅂ	→	ㅁ	/	_ㄴ
ㄱ	→	ㅇ	/	_ㅁ
ㄷ	→	ㄴ	/	_ㅁ
ㅂ	→	ㅁ	/	_ㅁ

- [비음성] (nasal)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통합될 수 있다.

ㄱ	-	[+비음성]	/	_ [+비음성]
ㄷ	-	[+비음성]	/	_ [+비음성]
ㅂ	-	[+비음성]	/	_ [+비음성]

- 나아가 /ㄱ, ㄷ, ㅂ/은 파열음으로서 [지속성] (continuant)의 변별적 자질을 결여하는 소리로 다음과 같이 통합할 수 있다.

[-지속성] → [+비음성] / _ [+비음성] (비음화 규칙)

- /ㄱ, ㄷ, ㅂ/은 각 소리들을 발음할 때 혀끝이 관여하는가와 관련된 [설정성] (coronal) 자질과 경구개보다 앞에서 발음되는가와 관련된 [전방성] (anterior) 자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자질 표시가 가능하다.

	양순음 [ㅂ]	치경음 [ㄷ]	연구개음 [ㄱ]
[설정성]	-	+	-
[전방성]	+	+	-

- 비음화 규칙이 양순음에 적용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이 된다.

| [-지속성, -설정설, +전방성]
→ [+비음성, -지속성, -설정설, +전방성] / _ [+비음화]

➔ 이렇듯 생성음운론은 언어의 소리에 대한 지식을 분리하여 제약과 규칙의 기제를 사용하였다.

4주차 1차시 언어의 단어 구조 : 형태론 1

I. 형태소

1. 형태론과 형태소

- 말(word)에는 단어, 구, 절 등이 있다.
- 단어(낱말)란 언어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의 단위이다.
- 형태론(morphology)이란 단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 형태소(morpheme)란 단어보다 더 작은 소리와 의미의 결합체 단위이다.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 단위”)

1) 소리 층위의 분절성

- 단어에 비해 형태소는 명확한 개념이다.
- 형태소는 불연속적(discrete) 특성 혹은 분절성을 보여준다.

잡	손으로 하는 동작
으시	주어에 대한 화자의 존재
었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음
습니까	청자에 대한 화자의 존재(의문문)

- 인간의 발음기관에서 낼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차이를 가진 무한히 많은 소리를 언어는 몇 가지로 나누어 사용하는데 이 음을 분절음(segment)이라고 한다.
- [t]를 발음하는 위치(치경)와 [k]를 발음하는 위치(연구개) 사이에 무수히 많은 조음 위치가 있지만, 미세한 위치의 차이에 따라 수입 가지의 파열음을 이용하는 언어는 없다.
- 적절한 범위 내의 소리들은 모두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고 발음한다.
- 언어음의 연속이 실제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한 연속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단절된 소리가 차계로 연결된 것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언어는 불연속적이고 분절적이다.

[예시]

✓ ‘감자’를 발음할 때 발생하는 연속적인 음파를 [ㄱ ㅏ ㅓ ㅈ ㅏ]의 다섯 개의 분절된 음성으로 인식한다.

2) 의미 층위의 분절성

- 무지개에 포함되는 색채어는 몇 가지로 규정하더라도, 결국 무한한 색의 스펙트럼을 유한한 숫자로 분할하여 제한하고 있다. 즉 의미의 세계가 언어에 의해 분할되어 있다.
- 형태소는 의미의 비연속적 분할을 구현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이다.
- 인간이 발화하는 문장이 의미를 가진 단어와 형태소의 연속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언어는 분절적이다.

[예시]

“영수가 감자를 먹었다.”

형태소들의 결합(‘영수, 가, 감자, 를, 먹, 었, 다’)+소리 층위의 분절성 → 인간 언어의 이중 분절

2. 이형태

- 형태소는 소리와 의미의 결합체인데, 소리의 면은 어느 정도 변이가 있다.

사람-이	: 남자-가
사람-을	: 남자-를
집-으로	: 바다-로
잡-아	: 먹-어
잡-으면	: 가-면
잡-았-다	: 먹-었-다 : 가-쓰-다

- 이형태란 동일한 형태소의 상이한 형태(morph)이다.

[예시]

- ✓ /이/, /가/ : 주격 조사 {이}의 이형태
- ✓ /을/, /를/ : 목적격 조사 {을}의 이형태
- ✓ /으로/, /로/ : 부사격 조사 {으로}의 이형태
- ✓ /아/, /어/ : 어미 {아}의 이형태
- ✓ /으면/, /면/ : 어미 {으면}의 이형태
- ✓ /았/, /었/, /쓰/ : 과거를 나타내는 형태소 {았}의 이형태

3.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1)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

- 자립 형태소란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로, 예를 들어 보통 명사가 있다.
- 의존 형태소란 절대로 혼자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에 기대서 나타나는 형태소로, 조사나 어미가 있다.

A : 무엇을 원하니?	A : 경찰이 도둑을 잡았니? 혹은 잡을 것이니?
B : 자동차.	B : *았.

- 단어란 최소의 자립 형태소,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 우리말에서 하나의 어절은 대개 한 개의 자립형태소와 한 개 이상의 의존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어근(root)이란 의미적 중심이 되는 자립형태소이다.
- 접사(affix)란 어근에 붙는, 주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의존 형태소이다.
- 동사 어절의 어근은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단어 형성의 중심이지만 동사 어근은 자립적이지 않다.

A : 사과를 너 어쨌니?	A : 도둑이 어떻게 되었니?
B : *먹.[먹었다는 뜻으로]	B : *잡.[잡았다는 뜻으로, 혹은 잡혔다는 뜻으로]

2) 유일형태소

- 한두 단어에서만 형태소로 분석할 여지가 있는 요소를 전형적인 형태소와 구분하여 유일 형태소(unique morpheme)라고 한다.

cranberry	(크랜베리)
ruthless	(무자비한)
lukewarm	(미지근한)

- ‘cran, ruth, luke’을 단독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없고, 다른 단어의 일부로도 쓰이지 않아 유일형태소이다.

새삼스럽다
생때같은 (자식들)

- ‘-스럽-’은 일부 명사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을 의미하는 형용사를 만든다.

[예시]

- ✓ 걱정스럽다, 복스럽다

- ‘새삼’은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않고, ‘새삼스럽다’에만 사용되는 유일형태소이다.
- ‘생때’는 “매우 소중한”이란 뜻을 가지지만 ‘생때’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고, ‘-같다’와만 결합되는 유일 형태소이다. (‘불같은’, ‘꿈같은’, ‘귀신같은’과 비교)

II. 파생과 굴절

1. 파생

- 접미사(suffix)란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이다.
- 접두사(prefix)란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이다.
- 파생(derivation) 접사란 하나의 단어가 어근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 굴절(inflexion) 접사란 어떤 단어가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 적절한 형식을 취하는 과정이다.

- ㄱ. (장난)꾼, (양복)장이
→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사람
- ㄴ. (걱정)스럽다, (남자)답다, (향기)롭다
→ 명사 어근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들
- ㄷ. 치(숫다), 들(볶다), 휘(갈기다), 뒤(덮다)
- ㄹ. 개힘들다, 개좋다, 개예쁘다
- ㅁ. 꿀(젹), 핵(인싸)

(1) 파생접사의 역할

- 다양한 파생접사는 한정된 자원으로 수많은 의미를 어휘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 새로운 개념의 단어를 모두 새로운 형식으로 만든다면 언어 사용자의 기억의 부담이 크다.
- 관련되는 의미들을 접사를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이미 아는 단어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굴절

- 어떤 단어가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의 적절한 형식으로서의 변화하는 것이다.
- 하나의 문장은 시제(현재, 과거)와 상(진행, 완료), 양상(추정, 필연), 서법(평서, 의문, 명령) 등 문법적 범주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대개 동사의 형식에 반영된다.

| 잡-으시-었-겠-습니까

- ‘잡-’은 어근이며 나머지 형태소들은 문장 속의 문법적 의미들을 나타내는 굴절접사들이다.
- 굴절형태소가 없이 어근 ‘잡-’만 사용될 수 없고, 굴절형태소가 어근과 결합하여야만 적절한 형식이 되어 문장 속에 쓰일 수 있다.
- 동사나 형용사의 굴절에 대해 말할 때 어근을 어간(stem), 접미사를 어미(ending)라고도 부른다.
- 한국어에서는 수많은 동사 굴절을 구성하는 어미들은 각각 고유한 (문법적)의미를 갖는다.

알, 아는 , 알던, 안다, 알지, 알까, 아니, 알고, 알면, 알게, 알아요, 아는데, 알았을, 알겠을, 알기만, 알다가, 알면서, 압니다, 알았지, 안다면, 알겠니, 알겠고, 알았겠다, 알았겠네, 알겠으나, 알겠으면, 알았거든, 알겠지만, 알겠어요, 알았을까, 알았다면, 아는구나, 알았을지도, 알았더라도...

➡ 파생은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 과정이고, 굴절은 단어의 문장 내에서의 쓰임에 따른 형식의 변화이다.

3. 파생과 굴절의 차이

1) 품사의 변화

- 파생과 달리 굴절은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과정이 아니므로 품사가 변할 수 없다.
- 굴절은 현재형이나 과거형이거나 모두 동사이다.
- 파생의 결과는 다른 품사인 경우가 많다.

[예시]

✓ '걱정' (명사) - '걱정스럽다' (형용사)

2) 생산성의 차이

- 파생과 굴절은 생산성(productivity)에 차이가 있다.
- 굴절은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의 형식의 변화이므로 거의 모든 단어에 적용된다.

[예시]

✓ '-았-', '-았-'은 거의 모든 동사와 형용사에 사용 가능하다.

- 파생접사는 상대적으로 비생산적이고 파생접사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예시]

✓ '-스럽-'이 명사에 붙어 형용사를 만든다고 하지만 모든 명사에 붙는 것은 아니다.
 (*책상스럽다, *진리스럽다)
 ✓ 그러나 '-스럽-'은 파생접사 '-롭-'에 비해서는 생산적이다.

3) 어근에 결합하는 순서

- 어근에 접사가 붙는 순서를 보면 굴절접사보다 파생접사가 먼저 어근과 결합하여야 한다.
- 파생을 통하여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후 이 새로운 단어가 문장에 쓰일 때의 형식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form(어근) +al(파생접사)+ize(파생접사)+s(굴절접사) 걱정(어근)+스럽(파생접사)+겠(굴절접사)+지만(굴절접사)
--

4주차 2차시 언어의 단어 구조 : 형태론 2

I. 합성어와 속어

1. 합성어

- 합성(compounding)은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조어 방법이다.

- (ㄱ) 창문, 주식회사, 바지저고리(명사+명사)
- (ㄴ) 칠손, 빨간약(수식어+명사)
- (ㄷ) 오가다, 나들다, 여닫다(합성동사)
- (ㄹ) 잡아먹다, 찾아보다(합성동사)
- (ㄹ) penman, bookshelf, light bulb
- (ㅂ) blackboard, greenhouse, rocking chair(수식어+명사)
- (ㅅ) hitchhike(합성동사)

1)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의 구별

(1) 의미의 비조합성(non-compositionality)

- 전형적인 합성어는 그것을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로부터 그 의미가 자동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예시]

- ✓ 빨간약(머큐로크롬이라는 특정한 바르는 물약)
- ✓ blackboard (칠판), greenhouse(온실)

(2) 영어의 경우

- 영어의 경우 강제라는 형식적 특성이 수식 구성의 합성어와 통사적 구를 구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일반적으로, 통사적 구성에서는 피수식어에 강세가 오지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대개 강세가 앞쪽 어근에 온다.

[예시]

- ✓ 'greenhouse'('green'에 강세) vs. green house('house'에 강세)

(3) 자주 사용되는 단어

- 의미적으로 조합적이고, 강세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통사적 구성과 구별되지 않지만, 워낙 자주 사용되다 보니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는 많은 합성어들이 있다.

[예시]

- ✓ '대학교수', '위기관리', 'stock broker(증권 중개인)'

(4) 그 외

- 한국어나 영어의 합성어는 뒤에 오는 어근이 핵심이 된다.

[예시]

- ✓ '단팥빵', '늑대인간'

- 한국어에 '비'와 결합한 수많은 합성어들이 있다. 단, 이것들은 '비'의 의미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안개비, 이슬비, 보슬비, 부슬비, 가루비, 실비, 가랑비, 날비, 발비, 장대비,
큰비, 달구비, 채찍비, 여우비, 바람비, 도둑비, 은비, 찬비, 옷비, 바람비,
우레비, 마른비, 단비...

2. 속어

- 속어(idiom)는 형식적으로 여러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통사적 구를 이루지만,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과 달리 전체 의미를 단어들의 의미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표현이다.
- 조합성(compositionality)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다.
- 조합성의 원리란 전체(표현)의 의미는 부분들의 의미와 부분들이 결합하는 방식, 즉 문법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 조합성의 원리로 인해 언어의 무수한 문장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조합성의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문장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
- 속어는 조합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표현이므로 그 전체 의미를 기억속에 간직하고 있어야만 한다.

미역국을 먹다
 발이 넓다
 손이 크다
 비행기를 태우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속담)

- 형식적으로 모두가 정상적인 통사적 구성이므로 문자 그대로의 일차적인 뜻을 가진다.
- 구성 단어들의 뜻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 속어는 의미적인 면에서 비조합성의 특징이 있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통사적 제약이 있다.
- 속어는 내부 요소를 수식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의 형식으로 써야 한다.

뜨거운 미역국을 먹다
 왼쪽 발이 넓다
 오른쪽 손이 크다
 대한항공의 비행기를 태우다
 장작을 아니 땐 굴뚝에 매캐한 연기 나랴?

-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제나 서법이나 세태의 변환이 자유롭지 못하다.

철수가 미역국을 먹었다.(과거)
 철수가 미역국을 먹었니?(의문)
 * 미역국이 철수에게 먹혔다. (피동)
 * 그는 철수에게 미역국을 먹였다.(사동)

그는 발이 넓었다.(과거)
 ?그는 발이 넓어졌다.(기동)
 ?그는 미국에 가서 발을 넓혔다.(사동)
 *그는 발이 투박하고 넓었다. (접속)

- 속어가 의미의 조합성을 준수하지 않는 양상은 언어마다 다르다.
- 두 언어에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동일한 통사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언어에서는 속어로 기능하고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II. 기타 조어 방법

1. 중복(reduplication)

- 중복은 형태소의 중복을 통해 대개 강조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의미하며 약간의 음성 변화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시]

- ✓ 한국어- ‘물렁물렁’, ‘쫄랑쫄랑’, ‘울긁불긁’, ‘울퉁불퉁’
- ✓ 영어 - ‘zigzag, willy-nilly’
- ✓ 하와이어- wikiwiki(빨리빨리) *Wikipedia에 사용됨

2. 융합(blend)

- 두 단어가 합성될 때 가운데 부분이 빠지는 현상이다.

	motel : motorist+hotel
	smog : smoke+fog
	Kmerican : Korean+American
	Kosian : Korean+Asian
	telematics : telecommunication+ informatics
	infodemics : information+epidemics

- 우리말에도 융합 현상이 많지만, 유행어로 쓰이는 말들이 융합으로 형성된다.

	혼행 : 혼자 (하는)+여행
	웃프다 : 웃기다+슬프다
	맥세권 : 맥도날드가 있는 역세권

3. 두자어(acronym)

- 단어의 첫 글자 혹은 첫 음절을 결합하는 경우이다.

	UCB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MIT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Cultural Organization(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 LG, SKT, KT, NH, SBS, HDMI, USB, OLED 등 기업과 방송 이름, 컴퓨터 기술 용어도 원래 약자에서 출발한 두자어이다.
- 우리말의 경우 첫 음절들을 결합하는 일은 흔하다.(유행어, 외래어 포함)

	재경부 : 재정경제부
	밀당 : 밀고 당기다
	전경련 : 전국 경제인 연합회
	고대 : 고려대학교
	카톡 : 카카오톡
	치맥 : 치킨과 맥주
	미드 : 미국 드라마
	케바케 :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워라밸 : 워크 라이프 밸런스 (work and life balance)

- 영화, 노래, 드라마, 프로그램, 가수, 상호, 상품의 제품이나 이름을 줄여서 부를 때에도 두자어가 많이 사용된다.

	개콘 : 개그콘서트
	아형 : 아는 형님
	해투 : 해피투게더
	슈주 : 슈퍼주니어
	스벅 : 스타벅스
	파바 : 파리바게트

4. 역성(back formation)

- 일반적으로 파생의 순서와 반대로 단어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예시]

- ✓ 'typewriter' (타이프라이터 기계 발명) → 'typewrite' (글을 쓰는 행위)
- ✓ 'editor' → 'edite'

5. 민간어원(folk etymology)

- 언중이 단어를 잘못 분석하고 그것에 기반을 두어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예시]

- ✓ 'hamburger' (햄버거)
-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서 먹던 음식으로 hamburg+er의 형태가 기본이나 돼지고기(ham)를 끼워 먹는 음식이므로 ham+burger로 분석되어 'burger'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cheeseburger, chickenburger)

6. 신조어(neologism)

- 다른 대부분의 조어 과정이 기존의 어떤 형식을 바탕으로 접사를 붙이거나 변형을 가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임에 반해, 신조어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현상이다.
- 단어를 만드는 입장이나 이해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실제로 언어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5주차 1차시 언어의 문장 구조 : 통사론 1

I. 문장의 구조

1. 어순과 계층 구조

- 문장이란 단어들의 결합체로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본 단위이다.
-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의미와 독립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 모국어 사용자는 의미에 상관없이 문법성에 대한 직관이 있다.
- 문법적인 문장은 올바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통사론(syntax)이란 이론 언어학에서 문장의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1) 문장의 구조

- 문장의 구조에는 어순(word order)과 계층 구조(hierarchical structure)가 있다.

The boy likes the girl.	(그 소년은 그 소녀를 좋아한다.)
The girl likes the boy.	(그 소녀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

- 단어의 순서에 따라 구조가 다르고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어순은 문장의 구조의 차이를 겉으로 드러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 문장은 어순 외에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The boy] likes [the girl]	
[The boy] [likes [the girl]]	
*[]	는 문장 내의 하나의 성분(구성성분, constituent)을 표시한다.

- 문장 내의 단어들이 작은 성분을 구성하고 이 성분들이 다시 더 큰 성분들을 구성하며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
- 어순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나 계층 구조의 차이는 귀나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2) 중의적 표현

- 계층 구조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언어 현상 중 하나이다.

old men and women	
[old men] and [women]	늙은 남자와 (나이에 상관없이) 여자들
[old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들이 모두 나이가 많은 경우

‘작은 방의 창문’	
구조1 : [[작은 방의] 창문]	*방이 작다
구조2 : [작은 [방의 창문]]	*창문이 작다

- 이러한 중의적 표현은 휴지(쉽)이나 억양을 통해 구별함으로 통사적 구조를 음성적으로 실현한다.

보낼 수 없어.....	그럼 주먹 내
너 보구 시퍼	렇게 질렸어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나는 네모 할게

- 구조적 중의성, 단어와 형태소 경계를 무시할 때 생기는 중의성을 이용한 문장이 가능하다.

2. 문법관계

- 문장 성분의 문법관계(grammatical relation)는 문장의 구조가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문법 정보이며 ‘문법 기능’(grammatical function)이라고도 한다.
- 주어와 목적어 등 문장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문장 속에서 가지는 문법적 역할이다.
- 모든 언어의 문장에 주어, 목적어, 술어 등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 존재, 그것을 표시해 주는 문법적 방법이 있다.
-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순을 이용한 통사적 방법과 굴절을 이용한 형태적 방법이 있다.

신애가 현민을 좋아한다.
현민을 신애가 좋아한다.

- 한국어의 경우 어순은 문법관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
- 어순이 다르더라도 격조사가 붙은 양상이 같으면 동일한 문법관계의 문장이 되나, 어순이 같더라도 격조사가 달리 실현되면 다른 문법관계의 문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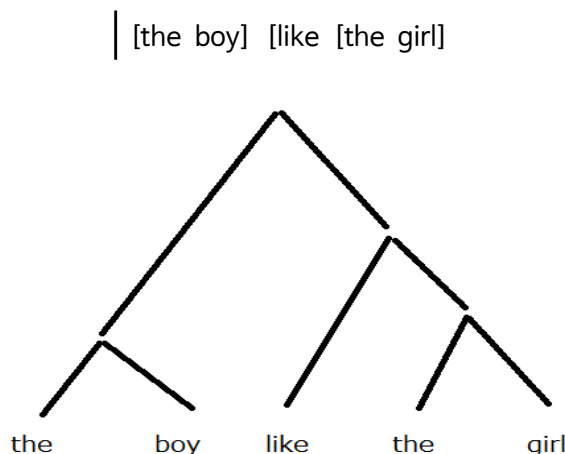
신애가 현민을 좋아한다.
신애를 현민이 좋아한다.

- 우리말의 경우 주어, 목적어 등 명사구의 어순이 자유롭지만 술어는 문장 끝에 와야 한다는 어순의 제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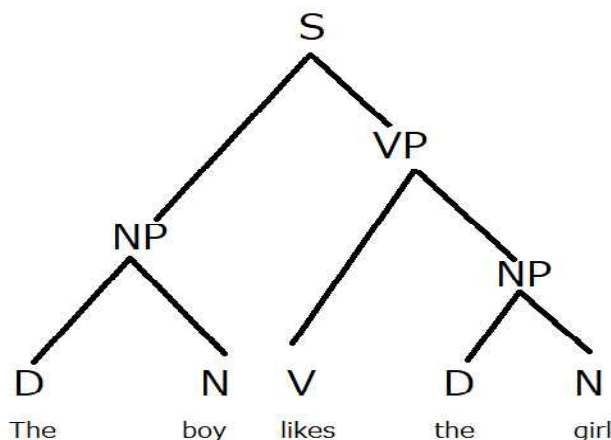
II. 통사규칙과 통사구조

- 어순과 계층 구조를 표상하는 방법은 ‘[]’과 수형도가 있다.

1. 수형도(나무그림, tree diagram)



- 맨 윗부분을 뿌리(root), 뿌리에서 갈라져 나오는 선을 가지(branch), 가지와 가지가 갈리는 부분을 마디(node), 나무의 끝에 있는 것을 잎(leaf)라고 부른다.
- 수형도 상에서 각 마디가 하나의 (구성)성분을 나타내며 맨 위의 마디인 뿌리가 전체 문장을 나타낸다.
- 수형도는 문장의 어순과 계층 구조를 문장 성분들 사이의 선후 관계(precedence)와 지배 관계(dominance)로서 표상한다.



- 수형도는 성분들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예시]

✓ 'the boy'와 'the girl'이 같은 성분인 명사구(NP)로, 'like the girl'은 동사구(VP)와 구별된다.

- 언어 요소 부류에 대한 인식은 단어 층위에서 시작된다.
- 품사 표시와 성분(구)의 종류를 수형도 마디에 표시한 표상이 문장 구조를 좀 더 풍부하게 나타낸다.

2. 구(句)구조규칙과 하위범주화

1) 구(句)구조규칙(phrase structure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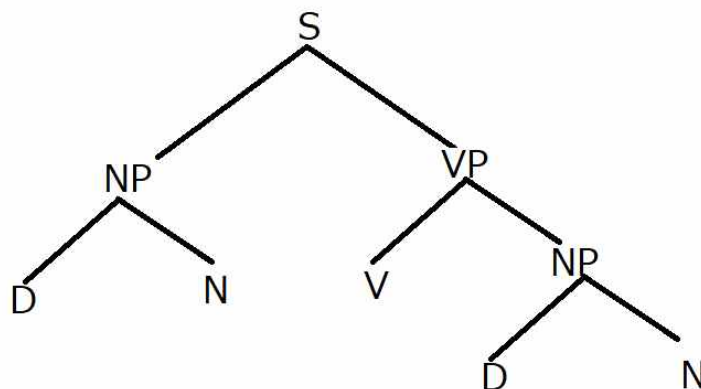
- 구(句)구조규칙은 수형도를 생성해 내는 규칙의 형식이다. (*생성문법)

$A \rightarrow B C$

* A표지를 가진 마디가 B표지를 가진 마디와 C마디를 가진 마디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

- 이 규칙은 A 마디가 B 마디와 C 마디를 지배하고, B가 C에 앞서는 구조를 허용한다.
- 'the boy likes the girl'의 통사 구조를 나타내는 수형도는 다음 규칙들이 생성된다.

[R1] $S \rightarrow NP VP$
 [R2] $NP \rightarrow D N$
 [R3] $VP \rightarrow V NP$



- D(determiner, 한정사) 마디 밑에는 'the, a, this, that' 등 관사 혹은 지시관형사가 올 수 있다.
- N(noun, 명사) 마디 밑에는 'boy, girl, dog, cat' 등 명사가 온다.
- D와 N의 결합은 NP(noun phrase, 명사구)이다.

- V(verb, 동사) 마디 밑에는 'like, hate, hit' 등의 동사가 온다.
- 'talk' 같은 자동사, 'give' 같이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동사, 'put'과 같이 목적어와 장소 성분(부사구, 전치사구)을 요구하는 동사, 'say'와 같이 보문이 필요한 동사들은 올 수 없다.
- VP(verb phrase, 동사구)의 내부 구성이 [R3]와 관련된 구조와 다른 구조들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조는 VP 확장 구구조규칙으로 생성된다.

[R4] VP → V ('talk')

[R5] VP → V NP NP ('give marry a book')

[R6] VP → V NP PP ('put a book on the desk')

[R7] VP → V S ('say that john is smart')

* PP(prepositional phrase)는 전치사구

- 전통적으로 단어들은 범주화하여 동사라는 품사 범주를 인정하고, 다시 동사 중에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하위범주화를 하나, 동사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 자세하고 엄밀한 하위범주화가 필요하다.
- 하나의 동사에는 여러 가지 다른 엄밀하위범주화가 허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관련된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예시]

✓ '먹이다'가 목적어 하나만 취하는 구문에 나타날 때와 두 개의 목적어 구문에 나타날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아버지가 소를 먹이신다.

* 어머니가 아기를 먹였다

*단순 타동사로서의 '먹이다'는 동물을 사육한다는 뜻으로서 사람에게 쓸 수 없음.

5주차 2차시 언어의 문장 구조 : 통사론 2

1. 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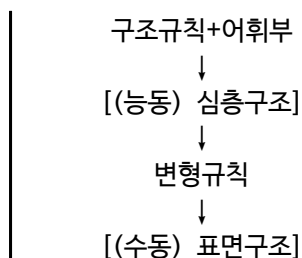
- 촘스키는 구구조규칙들로 언어 사용자의 통사적 지식을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고 하면서 변형(transformation)이라는 기제가 문법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어떤 문장의 표면 형식을 수형도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문장의 구조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1. 수동 변형

The boy ate the apple. (그 소년은 사과를 먹었다.)

The apple was eaten by the boy. (사과는 소년에 의해 먹혔다.)

- 두 문장은 능동문과 수동문으로 표면적인 형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는 유사하다.
- 'eat'의 목적어로 올 수 있는 명사는 'apple, food, fish' 등이고 'stone, freedom, age' 등은 올 수 없는데, 이러한 제약이 수동문 'be eaten'의 주어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 즉 'eat'의 목적어와 'be eaten'의 주어는 동일한 선택제한(selectional restriction)을 가지게 된다.
- 능동과 수동의 의미적 유사성,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와 수동문의 주어에 적용되는 동일한 선택제한 현상은 수동문을 능동문으로부터 도출하는 변형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수동문은 기저의 능동형 문장이 수동 변형규칙을 적용받아서 도출된다는 것이다.



- 수동문과 능동문이 모두 심층구조(deep structure)를 가지지만, 심층구조에 수동 변형이 적용되면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에서 수동문이 된다.
- 심층구조가 의미를 결정하고 변형은 의미를 보존하면서 형식의 변화만을 가져온다는 변형문법 이론의 기본 가정을 준수한다.

2. 어휘분해

- 초기 변형문법은 많은 변형규칙을 사용하여 여러 구문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어휘의 층위까지 적용한다.
- 생성의미론 학파의 학자들은 음운론의 변별적 자질처럼 단어의 의미의 요소를 분할하여 의미 원소를 상정하고 이것들이 결합하여 실제 단어가 된다고 주장한다.

| kill = CAUSE TO BECOME NOT ALIVE

- 'BECOME NOT ALIVE(살아있지 않음)'이 'die'으로 어휘화되고, 'NOT ALIVE(살아있지 않음)'는 'dead'로 어휘화된다는 주장이다.
- 'CAUSE' 등과 같은 의미 원소를 실제 영어 단어 등에 대응시킨다면 의미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어휘분해의 방법은 생성어휘부이론 등 현대의 여러 이론에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달에 갔던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하였다.

- ‘재진입’의 ‘재-(두 번째)’는 진입에 대한 것이 아닌, ‘진입’에 들어 있는 의미 “안”과 관련된다.
- 대기권 안에 있었던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달에 갔고 그것이 다시 대기권 안에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 이것은 ‘진입’의 의미를 “안”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분해할 동기가 된다.

3. 비변형문법

- 기저구조와 표면구조를 인정하는 생성문법의 관점이 현대 통사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통사적 구조를 접근하는 이론들이 있다.
- 변형문법이 당연시하는 여러 층위의 문장 구조와 변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문장의 표면 구조만을 정확히 기술하면서 언어 사용자의 통사 지식을 표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예시]

✓ 구문문법, 범주문법, 핵어 중심 구구조문법, 어휘기능문법 등

II. 통사와 의미의 관련성

1. 통사와 의미의 관련성

- 생성문법에서는 통사론이 이론언어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 20세기 중반 생성문법이 나타난 후 많은 새로운 연구의 주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전까지의 연구 대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기도 한다.

1) 결속이론(binding theory)

- 조응어와 재귀사(reflexive) 연구는 생성문법의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주제로 연구의 대상이 된다.

John thinks that Bill likes himself.

John thinks that Bill likes him.

- 영어의 재귀사는 단문 내의 선행사를 가져야만 하고 ‘himself’의 선행사는 ‘Bill’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대명사 ‘him’은 선행사 ‘Bill’이 될 수 없고, 그것은 ‘John’ 혹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 다양한 재귀사와 대명사의 결속 관계는 촘스키의 후기 이론인 결속 이론의 주제이다.

결속이론

(A) 조응어(anaphora)는 그 지배 범주 내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B) 대명사(pronominal)는 그 지배 범주 내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C) 지시 표현은 어디서나 자유로워야 한다.

* 조응어 : 재귀사(자기, 'himself'), 상호사('each other')

2) 지배결속이론

- 지배결속이론에서는 결속 이론을 재귀사, 대명사, 일반 명사구 등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영형 명사구에도 적용한다.
- 적용 받는 결속 원리의 종류에 따라 영형 명사구도 그 종류가 구분된다.

3) 그 밖의 통사적 구문

(1) 사역(causation)

- 어휘적 사동사의 의미 분석, 통사적 사동 구문 등이 있다.

(2) 피동(수동, passive)

- 변형문법 초기부터 이론 전개의 중요한 동기가 된 구문이다.
- 우리말에도 어휘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으나, 다른 외국어의 경우와 달리 통사적 피동이 그리 생산적인 구문은 아니다.

(3) 시제(tense)와 상(aspect)

- 통사론뿐만 아니라 의미론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 우리말의 ‘-었-’의 형태소가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지, 완료상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4) 부정(negation)

- 언어가 추상적임을 잘 드러내는 구문이다.
- 우리말의 단형 부정(‘안’)과 장형 부정(‘-지 않다’) 사이의 관계와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 부정은 양화사(quantifier)와의 영향권 중의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미론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안 먹었다.
모든 사람들이 사과를 먹지 않았다.

(5) 접속과 내포문(보문과 관계절)

- 언어의 무한성, 창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귀환적 구문의 대표적인 것이다.
- 구와 문장의 접속을 변형을 통해 기술하기도 하고, 변형을 배제하고 기술하기도 한다.
- 초기에는 구접속이 없이 모든 접속 현상을 문장 층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의미적으로 잘 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ㄱ) 영희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고 있다.
(ㄴ) 영희가 노래를 부르거나 영희가 춤추고 있다.
(ㄷ) 모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고 있다.
(ㄹ) 모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모든 아이들이 춤추고 있다.

- (ㄱ)과 (ㄴ)이 같은 의미가 되므로 (ㄱ)을 (ㄴ)으로부터 도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ㄷ)과 (ㄹ)의 경우 실제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보문 구문은 전제와도 관련이 있다.

그 여자는 남편을 때린 것을 후회하였다.(전제가 성립함)
그 여자는 남편을 때렸다고 말했다.(전제가 성립하지 않음)

- 전제는 의미, 화용적 현상이므로 전제와 관련된 보문의 연구는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의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

(6) 조동사

- 영어에서 ‘can, could, may’ 등 조동사는 굴절에 있어 다른 일반 동사와 구별되고 문장에서 본동사 앞에 나온다는 통사적 특징이 있다.
- 의미적으로는 양상(modality)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우리말의 조동사는 ‘먹어 보았다’의 ‘보다’와 같이 본동사 바로 뒤에 와야 한다.
- 전형적인 조동사도 있고, 본동사와 구별이 어려운 중간적 성격의 것들도 있다.

➡ 상, 양화, 부정, 접속, 전제, 양상 등은 모두 의미론(화용론)의 주제들이다. 올바른 형식(통사론)과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의미(의미론)는 상호 연관되고 나아가 대응하므로, 생성문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사론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언어 이론들도 많이 있다.

2. 구문과 연어

1)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 생성문법은 통사 기술에서 어휘(단어)층위와 구 이상의 층위(구, 절, 문장)만을 구분하고 어휘 층위인 단어나 숙어만이 사전에 의미가 지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구문문법은 단어나 숙어뿐만 아니라 구문도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문은 모든 '형식-의미'의 쌍으로 상정한다.
- 구문은 소쉬르의 기호(sign)이다.
- 하나의 구문은 형태소('er'), 단어('the'), 품사(ADJ) 등 각종 층위의 언어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
- 한국어 [-ㄹ수록(더)VP|S]도 의미를 가진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예시]

✓ 나무가 높을수록 더 잘 자란다/사람이 오르기 힘들다

(ㄱ) John gave Mary a book

(ㄴ) John gave a book to Mary.

- 생성문법에서는 'give'가 나타나는 (ㄱ) 문장을 기본적으로 보고, (ㄴ)이 (ㄱ)에서 도출되는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간주한다.
- 구문문법의 관점에서는 [V NP NP] 구문과 [V NP PP]구문으로 별개의 것이고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두 개의 구문에서 나오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ㄱ) * John sent Washington a letter.

(ㄴ) John sent a letter to Washington.

(ㄷ) * John threw Mary a ball.

(ㄹ) John threw a ball to Mary.

- 한국어에서도 이런 교체 현상의 의미가 미세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ㄱ) 신이가 파란 물감을 종이에 칠했다. [NP-를 NP-에 V]

(ㄴ) 신이가 종이를 파란 물감으로 칠했다. [NP-를 NP-로 V]

2) 연어 (collocation)

- 전통적으로 연어는 자주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언어 요소) 이상의 연속으로서, 숙어와 같이 구성 단어의 의미로부터 전체 의미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구성단어(요소)로부터 예측 가능하다.

사랑에 빠지다/눈멀다, 우산을 쓰다, 양말을 신다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실패로 끝나다, 진리를 추구하다

불길한 예감, 치열한 경쟁, 시급한 과제, 어리석은 짓, 후미진 곳, 전지전능한 신, 민감한 문제, 강력한 권한

반짝반짝 빛나다, 텅 비다, 벌떡 일어나다, 싹둑 자르다, 사뻐서 내려앉다
 수상 소감, 학술 발표, 금연 구역, 불우 이웃, 성공 사례

하는 듯 마는 듯, 보일 듯 말 듯, 하느냐 마느냐

- 연어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구성을 이룬다는 면에서 단어가 아니다.
- 합성어와 숙어와 같이 구성 단어의 의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 연어는 통사적으로 일반적인 구문이나 자주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6주차 1차시 언어의 의미 : 의미론 1

I. 의미적 직관과 ‘의미’의 의미

- 의미론(semantics)이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meaning)를 다루는 분야로 철학, 심리학, 논리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1. 의미적 직관(‘문장의 진리치(truth value)’)

1) 함의와 모순

[예시]
 ✓ 강도가 경관을 살해했다.
 ✓ 경관이 죽었다.
 ✓ 강도가 잡혔다.
 ✓ 경관이 살아 있다.

2) 동의성

[예시]
 ✓ 연인-애인
 ✓ 뛰다-달리다
 ✓ 군인이 포로를 잡았다/포로가 군인에게 잡혔다.

- 어떤 단어와 문장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에 대한 직관이 있다.
- 동의성은 불확실한 직관이다.

[예시]
 ✓ 강도가 행인을 죽였다.
 ✓ 강도가 행인을 죽게 했다.

3) 중의성(ambiguity)

- 동의성의 이면에는 중의성이 있다.
- 어떤 표현의 두 가지 이상의 의미에 대한 직관도 어떤 경우는 명백하게, 어떤 경우에는 다소 불확실하게 존재한다.

[예시]
 ✓ 그 사람이 은행을 좋아한다.
 ✓ John went to the bank.
 ✓ 학생 세 명이 사과 하나를 먹었다.

4) 전제(presuppose)

[예시]
 ✓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

- ➔ 언어학의 의미론은 이러한 함의, 모순, 동의, 중의, 전제의 의미적 직관을 바탕으로 언어 표현의 의미를 탐구한다.

2. 의미의 '의미'

- (1) '시나브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2) What is the meaning of 'jubilant'?
- (3) 돈과 명예는 진정한 탐구자에게 의미가 없다.
- (4) The meaning of life is not money.
- (5) 내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 (6) He did not mean to hurt the lady.
- (7)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8) he does not mean what he says.

- (1), (2)번의 문장은 어떤 단어나 표현의 기술을 뜻한다.
- (3), (4)번의 문장은 가치 혹은 '의의',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만남' 등을 뜻한다.
- (5), (6)번의 문장은 의도, '뜻', '나는 그럴 뜻은 없었어.' 등의 뜻을 담고 있다.
- (7), (8)번의 문장은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 → '화용론'
- 이때 의미론의 대상은 (1), (2)와 같은 표현의 기술적 의미이다.

1) 기호(sign)

[예시]

- ✓ 까마귀는 죽은 동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붉은 신호등은 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 어떤 하나의 사물 혹은 언어 표현이 다른 사물, 혹은 의미를 표상하거나(represent) 대신하는(stand for) 것을 기호라고 한다.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을 대신할 때 전자를 '기호'라고 하고, 기호를 연구하는 기호학(semiotics)은 온갖 종류의 기호와 기호 작용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의미론은 언어 표현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한 종류의 기호학이다.

2) 기호의 종류

(1) 상징(symbol)

- 기호와 가리키는 대상의 관계가 자의적이다.
- 의성어나 음성상징을 제외한, 대부분의 언어 기호(단어)가 자의적이다.
-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부호, 깃발, 봉화도 상징에 해당한다.
- 상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자체보다 기호와 대상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해석자이다.

(2) 도상(icon)

- 기호와 대상 사이가 비자의적인 것으로, 어떤 종류의 유사성 혹은 동기가 있는 것이다.
- 지도, 올림픽 경기 안내를 위한 스포츠 종류의 그림, 병원의 진료과 표시 그림이 이에 해당한다.
- 의성어와 음성상징어도 이에 해당한다.

[예시]

- ✓ 부엉이, 소쩍새

(3) 지표(index)

- 그 기호가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인과적인 관계인 경우이다.
- 지표적 관계에서 그 관계를 인식하는 해석자가 없더라도 그 대상은 존재한다.

[예시]

- ✓ 연기 : 불의 지표
- ✓ 총탄 자국 : '총이 발사되었다.'
- ✓ 노크 소리 : '문밖에 사람이 있다.'

- 언어에서의 지표적 표현은 발화 맥락 속에서 표현과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그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이것, 저것' 같은 것이 있다.

II. 문법 모형 속의 의미론

1. 조합성의 원리

- 모든 올바른 언어 표현은 의미를 가진다.
- 언어 표현의 의미를 기술하는 의미론은 언어 구조를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문법 모형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 문법 속에서 언어 표현의 의미 기술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 조합성의 원리 : 언어 표현 전체를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의미와 부분들의 결합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 한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와 그 단어들의 결합 방식, 즉 통사적 구조에 의존한다.

[예시]

- ✓ John likes Bill.
- ✓ John hates Bill.
- ✓ Bill likes John.

- ➡ 언어에는 무수한 수의 문장이 있고, 그 무한한 문장에 대응하는 무한한 의미를 기억에 의존할 수 없는 이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조합성의 원리에 의한 의미의 계산 밖에 없다.
- ➡ 궁극적으로 문장 의미의 기술은 단어 의미의 기술과 통사 구조에 따른 의미 합성의 두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2. 의미와 사전적 의미

- 단어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와 동일시하는 관점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 모든 언어 사전의 정의는 순환적이므로 원래 모르는 단어가 다른 단어의 정의 속에 나타날 수 있다.

[예시]

- ✓ 얼굴 : (명) 눈, 코, 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 ✓ 머리 : (명) 사람이나 동물의 목 위의 부분.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을 포함하여 머리털이 있는 부분을 이른다.

- 맥락(context)이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

[예시]

- ✓ 날씨 정말 좋군!(야외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려고 계획은 세운 휴일 아침에 비가 올 때의 상황)
- ✓ 너 잘났어, 정말.(*너 정말 훌륭하구나.)

- ➡ 해결 방안 1) 어떤 언어의 단어의 의미를 그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언어(metalanguage)를 도입하여 기술한다. → 형식의미론(formal semantics)
- ➡ 해결 방안 2) 관습적인 축자적(literal)의미 즉 글자 그대로의 의미와, 언어의 사용과 상황에 따른 맥락적 의미를 구별한다. → 화용론(pragmatics)

3. 의미론과 화용론

1) 발화, 문장, 명제

- 발화(utterance)란 실제 입으로 말해진 말의 일부나 손으로 쓴 글을 뜻한다.
- 문장(sentence)이란 추상적인 문법상의 요소로 해당 언어의 문법 체계에 맞는 단어의 연속체이다.
- 명제(proposition)란 세상의 상황에 대한 기술로,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층위이다.

[예시]

- ✓ A : 그 아이가 머리가 좋다.
- ✓ B : 그 아이가 머리가 좋다.
- 두 개의 다른 발화, 같은 문장이다.
- '그 아이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면 같은 명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다른 명제이다.

2)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별

- 모리스(C.Morris)는 기호, 기호가 가리키는 사물,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 통사론 : 기호들 사이의 형식적 관계
- ✓ 의미론 : 기호와 대상 사물의 관계
- ✓ 화용론 : 기호와 그것의 사용자와의 관계

- 오늘날의 화용론은, 기호의 사용자를 포함한 기호의 사용 맥락 전체를 고려한다.
- 현대의 의미 이론은 지시적 관점, 표상적 관점으로 대별된다.
- 지시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기술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언어 표현이 세상의 사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때 언어 표현이 언어를 '지시(refer)'한다고 말한다.
- 표상적 관점에서는 언어 사용자마다 세상의 상황을 다르게 파악하고 표상할 수 있으며, 언어는 심적 표상과 연관되어 있어 세상과는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6주차 2차시 언어의 의미 : 의미론 2

1. 지시

1. 지시와 지시물

- 의미에 관한 이론 중 중요한 하나의 입장은 언어 표현의 의미를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여 지시하는 사물(지시물)과 동일시하는 관점이다.
- 의미의 문제를 지시의 문제로 환원하는 이유는, 세상을 기술하고 묘사하며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 즉 언어 표현의 의미는 지시물(지시체) 자체라는 것이다.

[예시]

- ✓ 어제 최민식이 공항에 나타났다.
- ✓ 그가 뉴욕으로 떠났다.
 - ‘최민식’ : 세상 속의 어떤 영화배우를 지시
 - ‘뉴욕’ : 지구상의 어떤 도시를 지시
 - ‘나타났다’, ‘떠났다’ :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지시

[예시]

- ✓ 비지시적 표현(non-referring)
 - 그런데, 많은, 아주, 에서, -어요
 - and, many, very, in, -ing

- 지시적 의미 이론의 과제는 이러한 비지시적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지시물을 기반으로 기술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dlek.
- 형식의미론(formal semantics)은 지시를 바탕으로 하는 논리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2. 고유명사

- 고유명사는 가장 전형적인 지시 표현이다.
- 사람, 장소, 기관 등의 이름은 그것이 지시하는 세상의 지시물과 연결되어 있고 고유명사의 사용은 그 지시물을 확인하여 골라내는 일을 한다.
- 지시물은 이 세상의 물리적 실체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 고유명사가 실제로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 하나의 개체만을 지시한다.

1) 고유명사와 지시물의 연결에 관한 철학적 논쟁

(1) 러셀(B.Russell), 프레게(G. Frege), 설(J. Searle)의 기술 이론(description theory)

- 이름(고유명사)은 지시물에 대한 지식 혹은 그것에 대한 기술을 간략히 표시하기 위한 표지(꼬리표)이다.

[예시]

- ✓ ‘이순신’
 - 임진왜란 때의 조선의 해군 장군이다.
 - 문무를 겸비하였다.
 - 거북선을 만들었다.

- 문제점으로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일정 수의 기술이 실제로는 의도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위의 세 가지 기술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언어 사용자 입장에서 위의 사실 중 어떤 것을 모르더라도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순신을 가리킬 수 있다.

(2) 크립키(S. Kripke), 도넬런(K. Donnellan) 등의 인과 이론(casual theory)

- 어떤 시점에 세상의 사물과 연결되어 그 연결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계승한다.
- 이름과 사물을 연결시키는 일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다.
- 일반적인 고유명사뿐만 아니라 동식물, 광물과 같은 자연 종(kind)의 이름과 그 의미 즉 지시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준다.

[예시]

- ✓ '금' : 금속 전문가
- ✓ '늑대' : 동물학자

2) 고정지시어(rigid designator)

- 크립키(Kripke) '이름을 포함한 고유명사들이 늘 동일한 개체를 지시한다.' 고 주장하며 '고정지시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고유명사는 이름과 지시물의 연결이 아주 견고하다.

[예시]

- ✓ '미스코리아' vs '최민식'

- 고유명사와 이름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동일한 개체를 가리킨다.

[예시]

- ✓ 최민식은 가수가 될 수도 있었다.

3) 한정성(definite)

- 고유명사뿐 아니라 일반명사의 명사구(noun phrase)중에도 전형적인 지시적 표현이 있다.

[예시]

- ✓ 지시적 명사구
 - 그 사람, 저 물건, 그 일
 - the man, this book, the godfather
- ✓ 비지시적 명사구
 - 대부분의 사람들, 약간의 사람들
 - no country(for old men)
 - few flowers

- 명사구들은 한정적·비한정적 명사구와 특정적·비특정적 명사구로 구별될 수 있다.

[예시]

- ✓ 한정적 명사구
 - 그 소년
 - the boy
- ✓ 비한정적 명사구
 - 어떤 소년
 - a boy

- 한정적 명사구는 화자가 발화할 때 청자도 화자가 의도하는 지시물을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명사구로 지시적이다.
- 비한정적 명사구는 지시적 명사구로 보는 관점과 비지시적 명사구로 보는 관점이 공존한다.

4) 특정성(specificity)

- 한정성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하는 지시적 특성임에 반해, 특정성은 화자만의 문제이다.
- 화자는 어떤 명사구를 사용할 때, 그것을 어떤 특정한 지시물을 염두에 두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시]

- ✓ 나는 어제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어.
- ✓ 나는 영화를 보면 늘 기분이 좋아져.

3. 뜻(센스)과 지시(레퍼런스)

- 지시적 의미론 수행시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 세상의 지시물인 지시(레퍼런스, reference)와 지시물 이상의 언어 표현인 뜻(센스, sense)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예시]

- ✓ 1979년 박정희가 암살당했다.
- ✓ 1979년 한국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 ✓ 1979년 한국의 군 통수권자가 암살당했다.

- 세 표현의 '지시'가 같다. 즉 세 문장은 모두 '참'이며 '박정희, 한국 대통령, 군 통수권자'는 모두 같은 인물을 가리킨다.
- 직관적으로 이 세 표현의 의미가 다르고 따라서 세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 지시 이상의 의미는 '센스'이다.
- 지시적 의미론은 지시와 지시물을 기반으로 하나, 언어 표현의 의미를 지시 혹은 지시물을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4. 사건과 의미역

-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사건(event)으로서도 존재한다.

[예시]

- ✓ 영수가 준수를 집에서 막대기로 때렸다.
 - 영수가 준수를 때렸다.
 - 영수가 준수를 집에서 때렸다.
 - 영수가 준수를 막대기로 때렸다.

- 부사를 가진 문장의 논리적 함의관계가 사건을 가정함으로써 설명된다.
- 사건이 존재한다면 논항의 경우에도 그 사건에서 하는 역할, 즉 의미역(semantic role)을 고려할 수 있다.
- 의미역을 통하여 의미적 논항관계와 문법관계(주어, 목적어)로 파악할 수 없는 문장 구성 요소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II. 심적표상

1. 개념

- 인지 의미론(Cognitive Semantics)에서는 언어의 의미를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 언어 표현은 직접 사물을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화자가 가지는 세상에 대한 심적 모형을 통한 간접적 연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하나의 상황을 화자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것은 다른 언어로 기술된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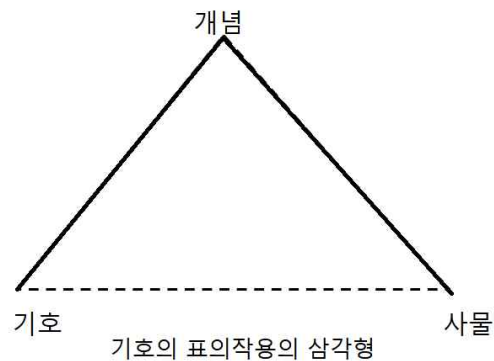
- ✓ 물병 반이 차 있다./물병 반이 비어 있다.
- ✓ 책이 책상 위에 있다./책상이 책 밑에 있다.
- ✓ 인호는 동우가 좋았다./인호는 동우를 좋아했다.
- ✓ Mary is sleeping./Mary is asleep.

- 같은 상황을 기술하지만 표현 양식이 다른 것은 심적 표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 표상적 관점에서는 다른 방식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 해석(construal)이 세계의 상황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 철학적 견해로 심정 표상을 시각적 이미지와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으나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다수 존재한다.
- 시각적 이미지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개념'이 등장하였다.

1) 개념에 대한 논의

- 20세기 전반 오그든(Ogden)과 리차즈(Richards)의 기호의 표의작용에 관한 논의에서 '개념'의 중요성이 주장되었다. → “기호가 어떤 사물을 표의(signify)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속의 개념을 통해서이다.”
- 기호의 표의작용에서 기호와 개념의 관계, 개념과 지시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기호와 지시물의 관계는 간접적이다.



- 오그든과 리차즈는 표의작용을 행동주의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외부 세계의 어떤 사물이 화자의 마음에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그에게서 기호를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따라서 청자가 기호를 들으면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이 사물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 이후 다른 학자들은 소쉬르와 같이 좀 더 심성적으로 표의작용을 설명하였다. 즉 기호도 심적인 것으로 기호와 개념은 정신(마음)속에서 연결되거나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으며, 언어의 의미를 논할 때 지시물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간에 있는 개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의미의 일차적인 고려에서 개념을 배제하고 기호와 지시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지시를 기초로 한 논리적 의미론'이다.
- 표의작용의 삼각형 모형은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심적 표상(개념)의 중요성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2) 원형(prototype)

- 로시(E. Rosch)는 범주를 원형으로 환원하여 이해하는 이론을 내놓았다.
- 원형은 어떤 범주의 가장 중심적이고 전형적인 원소(구성원)를 의미한다.
- 어떤 단어의 개념을 그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한다.
- 범주에 대한 하나의 관점은 범주에 속하는 사물에 적용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 범주 이름이 주어졌을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심적 표상이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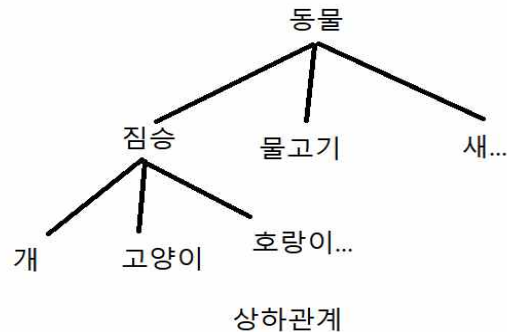
✓ '새'의 심적 표상 - '참새'

2. 의미 관계

- 개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성립한다.
- 개념들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망(network)을 형성한다.

1) 상하관계

- 상의어(hyponym)란 상위의 개념을 가지는 단어이다.
- 하의어(hyponym)란 하위의 개념을 가지는 단어이다.
- 이행적(transitive) 관계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층 구조를 이룬다.
- 관계 R에 대하여 aRb이고 bRc이면 반드시 aRc일 때, R은 이행적 관계이다.



- 상하관계가 중요한 것은 상하관계를 이루는 계층 구조가 특성의 계승(inheritance)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이 가지는 특성을 모두 이어받는다.
- 계층 구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2) 부분관계

- 개념들 사이에는 부분관계가 성립한다.

[예시]
 ✓ 눈동자 < 눈 < 얼굴 < 머리

- 부분관계는 구성원과 집단(선수-팀), 재료와 물체(금-반지), 장소-지역(안암동-성북구) 등 다양한 세부 종류가 있다.

3) 동의관계와 반의관계

- 단어들 사이의 관계 중 동의어(synonym)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뜻하며, 유의어가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반의어란 반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뜻하며 짝을 이루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이다.

[예시]
 ✓ 아빠-엄마
 ✓ 아버지-어머니
 ✓ 부친-모친

- 반의 관계는 이분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과, 정도를 나타내며 양 극단을 나타내는 말이 존재한다.

[예시]
 ✓ '완전하다'-'불완전하다'
 ✓ '춥다'-'덥다'

-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반대도 있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제하는 반대도 있다.

[예시]
 ✓ '왼쪽'-'오른쪽'
 ✓ '묶다'-'풀다'

- 밀러(G.Miller)의 워드넷(WordNet)은 다양한 의미관계를 기반으로 영어의 단어들을 망으로 연결해 놓은 컴퓨터 어휘 데이터베이스로, 언어의 이론적 연구 뿐 아니라 언어의 전산 처리를 연구하는 전산언어학에서도 유용한 자료로 이용된다.

3. 언어상대주의(linguistic relativism)

- 언어의 의미를 심적 표상으로 보는 견해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이다.
- 20세기 초 미국의 사피어(E.Sapir)와 워프(B. Whorf)가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피워-워프 가설이라고도 부른다.

✓ 인간의 사고는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제공되는 범주에 의해 결정된다. 혹은 인간이 세계에 대하여 생각하는 방식은 문화적, 언어적 배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보고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
→ “언어가 사고를 구조한다.”

[예시]

✓ 에스키모어의 ‘눈’을 가리키는 말, 세계 여러 나라의 색채어

7주차 1차시 언어의 맥락 의미 : 화용론 1

I. 직시

- 언어 사용 맥락과 의미와 관련하여, 언어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와 그것이 결합된 조합적인 문장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시]
✓ “날씨 참 좋다.”

- 말의 의미는 말이 사용되는 특정 ‘맥락’에서 원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맥락이 언어 표현의 의미 해석에 필수적인 경우가 있다.

[예시]
✓ 인칭 대명사(나, 너), 양화 표현(모든, 많은)
- 너와 나는 친구가 아냐.
-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 대통령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

- 직시란 ‘나’, ‘너’ 등 언어 표현의 지시물이 발화 맥락 속에서만 결정되는 현상이다.
- 화용론(pragmatic)은 발화 맥락 속에서 언어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로, 20세기 중반 일상언어학파의 철학자들의 연구에서부터 발전하였다. 모리스는 “화용론은 기호와 그것의 사용자와의 관계, 나아가 기호와 그것의 사용과의 관계이다.”라고 하였으며, 자연언어의 화용론은 일반적인 기호가 아니라 언어 표현의 사용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1950년의 스트로슨(Strawson)이 “‘현재 프랑스 왕이 대머리이다.’라는 문장은 ‘현재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를 전제한다.”라고 주장한 논의부터 전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 초 일상언어학파인 오스틴(Austin)은 인간이 언어로써 진술뿐만 아니라 명령, 약속 등 다른 여러 가지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말로 하는 행위인 ‘화행(speech act)’은 질문, 명령, 요청, 약속, 위협 등 수많은 행위를 포함한다. 1970년대 그라이스(Grice)는 그의 「논리와 대화」라는 논문에서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인 ‘함축(implicature)’을 기술하였다.

1. 직시(deixis)

1) 직시의 개념

- 의미 해석을 위해 언어 사용의 맥락(context)의 고려가 필수적인 현상으로 지시사, 지시관형사와 관련이 있다.

저것 좀 봐.
난 그 사람 좋아해.
I miss her.

- ‘저것’, ‘그 사람’, ‘her’가 어떤 것,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는 화자와 청자가 처한 맥락을 고려해야 알 수 있다.
- 직시적 표현은 해석을 위해 맥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현이다.

2) 직시적 표현의 종류

(1) 지시관형사 표현, 지시대명사

-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 멀리 떨어져서 대화할 때 A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B가 말하는 ‘이것’과는 다르다.

(2) 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대명사 표현

- ‘나, 우리, 너, 그, 그녀, 그들’
- 화자의 ‘나’와 대화 상대방이 말하는 ‘나’는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

(3) 직시적 장소 표현

- ‘여기, 저기, 거기’
- 아침에 집에서 말한 ‘여기’와 오후 직장에서의 ‘여기’는 다르다.

(4) 시간 표현

- ‘지금, 어제, 오늘, 내일’
- 어제 말한 ‘지금’과 오늘 아침에 말한 ‘지금’은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

(5) 상대적 표현

- ‘앞, 뒤, 오른쪽, 왼쪽’
- 화자 또는 청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6) 움직임의 방향을 화자의 입장에서 나타내는 표현

- ‘가다, 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가세요.”

“I will come to you.”

“케인 선수가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들어가다’와 ‘나가다’가 운동장과 벤치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3) 대명사의 용법

- 영어의 ‘he, she’ 등 영어의 삼인칭 대명사는 직시적 용법 외에도 대응적 용법과 변향적 용법을 가짐.

(ㄱ) Look at him.

(ㄴ) Bill knocked the door. Then he opened the door and enter the room.

(ㄷ) Every boy thinks that he is smart.

- (ㄱ)의 ‘him’은 직시적 용법이다.
- (ㄴ)의 ‘he’는 앞에 나오는 ‘Bill’을 가리킨다.(‘he’가 그것의 선행사인 ‘Bill’과 공지시적임)
- (ㄷ)의 ‘he’가 가리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every boy’와 연결되는 변향(variable)으로 해석된다.
- 한국어에서 사람에 대한 삼인칭 대명사는 구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대화 속에서 ‘그 사람, 그 아이 (줄여서 ‘개’)’ 등의 지시적 관형어 ‘그’를 이용한 명사구 표현이 사용된다.
- 사물을 가리키는 ‘그것’은 자유롭게 사용되는데 ‘이것, 저것, 그것’과 같이 직시적 용법이 가능하다.

이거 먹고 싶어?

저거 참 높은 나무다.

그것 좀 내게 줘 볼래?

-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이것(이거)’은 화자와 가까운 사물, ‘저것(저거)’은 화자와 청자에게 떨어져 있는 사물, ‘그것’은 청자와 가까운 사물을 가리킨다.
- ‘그것’의 변향적 사용도 가능함.

그림마다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다.

어떤 책도 그것의 가치가 있다.

- 위의 예문에서 ‘그것’은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림마다’, ‘어떤 책도’와 관련하여 해석되는 변향으로 해석된다.

II. 전제

1. 전제와 단언

- 전제(presupposition)란 어떤 진술을 하기 위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의미 부분이다.
- 단언(assertion)이란 진술의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는 의미 부분이다.

A : 아버지는 내가 가수가 된 것을 못마땅해 하셔.

B : 아니야. 실제로 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해 하시지 않아. 그런데 엄마는 내가 가수가 되지 않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

- A는 ‘내가 가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
- B의 두 번째 문장은 ‘내가 가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 ‘아버지가 못마땅해 한다’가 단언이다.
- 전제된 것은 화자가 이미 참인 것으로 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논하지 않는다.
- 전제는 전체 문장을 부정하거나 의문문으로 만들어도 유지가 된다.

아버지는 내가 가수가 된 것을 못마땅해 하셔.

아버지는 내가 가수가 된 것을 못마땅해 하시지 않아.

아버지는 내가 가수가 된 것을 못마땅해 하시죠?

- 스트로슨(P.Strawson)은 “전제가 실제로 거짓인 문장의 진리값이 없다.”고 했다.

현재 프랑스의 왕은 대머리이다.

- 위의 예문에서 전제는 ‘현재 프랑스에 왕이 있다.’이며 이는 거짓이다. 또한 단언은 ‘그 왕이 대머리이다.’이며 이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 러셀(Russell)은 현재 프랑스에 왕이 있다는 것을 진술의 일부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여 그 진술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 문장도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2. 전제가 발생하는 구문

(1) 한정기술(definite description)

- 한정기술(definite description)은 그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이 존재함을 전제한다.

[예시]

- ✓ ‘내가 어제 만난 학생’
- ✓ ‘프랑스의 대통령’

- ‘내가 어제 만난 학생이 똑똑하다.’는 말에 대해 ‘아니다’라는 부정은 전제(‘내가 어제 만난 학생이 있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언(‘똑똑하다.’)에 대한 부정이다.

(2) 동사의 종류에 따른 보문

- 동사의 종류에 따라 그 보문의 내용이 전제가 될 수 있다.

(ㄱ) 영수는 동우가 시험을 잘 본 것을 좋아했다.

(ㄴ) 영수는 동우가 시험을 잘 보았다고 말했다.

- 위 두 문장의 전제는 ‘동우가 시험을 잘 보았다.’이다.
- (ㄱ)은 사실동사(factive verb) ‘(-ㄴ 것을) 좋아하다’로 인해 전제가 발생한 것이다.
- (ㄴ)의 보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은 비사실동사 ‘(-다고)말하다’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보문 구문의 종류에 따라 전제 여부가 성립되기도 한다.

- | (ㄱ) 현이는 민이가 합격한 것을 알고 있다.
- | (ㄴ) 현이는 민이가 합격했다고 알고 있다.

- ‘-는 것’이 나타나는 보문 구문을 가진 문장은 전제로 가지나, ‘-고’ 보문 구문을 가진 문장은 보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3) ‘~은 후에, ~을 때에’

- ‘~은 후에, ~을 때에’ 등 일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절의 내용이 의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 | (ㄱ) 비가 온 후에 동우는 외출을 했다.
- | (ㄴ) 비가 오고 있을 때 동우가 노래를 불렀다.

3. 전제의 부정문

- 일반적으로 전제는 부정문에서도 유지가 되나, 전제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영수는 동우가 시험을 잘 본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동우가 시험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 외적 부정은 보문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 문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 한국어는 외적 부정을 더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S-ㄴ는 것은 아니다] 구문을 사용한다.

영수는 동우가 시험을 잘 본 것을 좋아한 것은 아니다.

It is not the case that Yeongsu is not pleased that Dongu did well in the exam.

4. 대화에서의 전제의 역할과 조정(accommodation)

- 대화자의 관점에서 전제를 이해한다면, 전제는 대화자들이 이미 공유하는 지식이다.
- 공유지식이 많은 경우 전제가 포함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공유지식이 적은 경우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전제로 대화가 가능하다.
- 대화의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는 사실들도 점진적으로 공유 지식을 축적된다.
- 대화의 과정에서 구문적으로 전제가 포함된 문장을 사용할 때 화자는 대개 그 전제를 청자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는 가정을 하고 말한다.
- 실제 상황에서는 청자가 공유지식으로서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 화자의 전제를 받아들여 자신이 참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 속에서 전제 내용을 집어넣어 공유지식으로 만들고, 전체 문장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 조정이란 청자와 화자가 공유하는 맥락을 수정하여 전제된 부분을 맥락의 일부로 만드는 과정이다.
- 실제 대화에서는 수많은 조정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조정을 잘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7주차 2차시 언어의 맥락 의미 : 화용론 2

I. 화행

1. 화행의 개념

- 화행은 말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화행에는 단언, 선언, 진술, 질문, 응답, 명령, 요청, 약속 제안 등이 있다.

1)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

- 어떤 화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진리조건(truth condition)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올해 미스 코리아는 재수생이다.
 영수는 대학생이다.
 나는 너에게 백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한다. (약속)
 나는 너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다. (명령)
 나는 이 배를 장보고호라고 명명한다.(명명)

- 보통의 단언문들은 세상의 모습에 비추어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으나, 화행의 문장은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없고 언어 표현이 적절히 사용되기 위한 조건, 적정 조건만을 기술할 수 있다.

(1) 약속의 적정 조건

- 약속의 상황 참여자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 약속을 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킨 의도를 가진다.
- 약속을 받는 사람은 약속하는 사람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
- 약속의 내용은 약속 받는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이다.

(2) 명령의 적정 조건

- 명령을 하고 받는 사람이 상하 관계에 있다.(직책, 계급 등)
- 명령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보다 더 상위에 있다.
- 명령을 하고 받을 적절한 일과 상황이다.
- 명령은 수행 가능한 내용이다.

(3) 명명의 적정 조건

-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과정이다.
- 명명하는 사람은 그러한 자격이 있다.
- 붙이는 이름은 해당 사물에 적절할 것이다.

➡ 이 외의 칭찬, 판결, 계약 등 모든 화행은 적절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 ‘약속하다, 명령하다, 명명하다’와 같은 수행동사(performative verb)가 약속, 명령, 명명의 화행문에 쓰이기 위해서는 일인칭 주어의 현재형으로 쓰여야 한다.

➡ 조건을 위반한 문장들은 화행문이 아닌 단언문이다.

영우가 동우에게 돈을 줄 것을 약속했다.
 장교가 졸병에게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배를 장보고호라고 명명했다.

2. 화행을 이루는 문장

- 일반적으로 문장의 형식과 화행의 종류가 대응한다.
- 평서문은 진술, 의문문은 질문, 명령문은 명령, (국어의)청유문은 제안의 화행과 대응한다.

집이 아름답습니다. [평서문-진술]
 니스가 프랑스 남부에 있니? [의문문-질문]
 이 책을 읽어라. [명령문-명령]
 퇴근 후 한잔 합시다. [청유문-제안]

-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이란 이러한 대응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자동차를 타고가면서 운전하고 있는 친구에게) 차 안이 너무 덥네. (*요청)
 (식사를 하면서) 거기 소금 병 집어 줄 수 있어요? (*요청)
 (직장에서) 지금 퇴근시간이다. (*제안)
 이 꽃은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감탄)

- 한국어의 경우 부정 의문문은 답이 '예'일 경우 내용의 부정을 의미하지만, '동의'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ㄱ) A : 그 학생이 스무 살 아니지?
 B : 예, 아닙니다.
 (ㄴ) 어제 네 옆 꽃병의 꽃이 시들지 않았니?
 응, 안 시들었어.
 (ㄷ) 이 꽃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II. 대화상의 함축

1. 대화의 협동원리

-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서로 협력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뜻한다.
- 그라이스(Grice)는 대화에서 협동의 원리가 준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대화의 협동 원리란 “당신의 기여를, 그것이 일어나는 단계에서 그리고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말의 교환에서 그 목적이나 방향에 맞게, 요구되는 대로 하라.”이다.

1) 대화의 격률

- 협력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대화의 격률(maxims of conversation)에는 질의 격률, 양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양태의 격률이 있다.

(1) 질(quality)

-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 충분히 근거가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

(2) 양(quantity)

-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만큼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라.
- 대화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3) 관련성(relevance)

- 관련된 말을 하라.

(4) 양태(manner)

- 모호함을 피하라.
- 중의성을 피하라.
- 간결하게 말하라.
- 순서적으로 말하라.

2)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

- 대화의 격률을 준수하면서 대화를 할 때 그 표현의 축자적 의미 이상인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
- 접속 문장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두 문장이 모두 참일 때 참이므로 두 문장은 같은 내용이다. (진리값이 같음)

(1) 양태와 관련한 함축의 예

|(ㄱ) 민이가 밥을 먹었고 옷을 입었다.
|(ㄴ) 민이가 옷을 입었고 밥을 먹었다.

- (ㄱ)은 민이가 먼저 밥을 먹고 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ㄴ)은 그 순서가 반대이다.
- 대화의 격률 중에서 양태(순서적으로 말하라)때문에 발생하는 함축이다.

(2) 양과 관련한 함축의 예

| 그 여자는 사과 두 개를 먹었다.

- 대화의 격률에서 양에 관한 격률(충분한 정보를 주라)로 인한 함축이다.

(3) 질과 관련한 함축의 예

| A : 뉴욕이 미국의 수도이다.
| B : 그러면, 진주가 한국의 수도이다.

- 대화상의 격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함축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이다.
- A는 자신의 발화가 틀린 말이기 때문에 B가 이런 말 한 것을 깨닫는다.(A가 틀렸다는 함축이 전달됨)

(4) 간접화행

| 거기 소금 병 집어 줄 수 있습니까?

- 축자적 의미는 ‘소금 병을 집어서 전해줄 능력이 있는가’이다.
-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라’를 위반한 셈이다.
- 이유 없이 대화의 격률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소금을 전해 달라’는 요청으로 추론하게 된다.
- “네, 할 수 있어요.”라는 대답이 더욱 어색한 상황이다.

|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요구되는 것만큼의 정보를 전달하라’는 대화 격률에 위배된다.
- 청자는 화자가 이 격률을 일반적으로 잘 이행하는 것을 알기에 이 말에 다른 필요한 정보(‘화자가 선생으로서의, 청자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된다.’)를 더하여 이해하게 된다.
- 대부분 동어 반복적인 말들은 이 부류에 속한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공부는 공부다.
 그 사람도 사람이다. / 나도 사람이다. / 너도 사람이냐?
 형은 형이야. / 막내는 막내야.

(5) 관련성 위배 사례

A : 너 개 좋아하냐?
 B : 개 어제 도서관 앞에 지나가더라.

- B의 대답은 A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 정보의 양에 한 위반이자, 관련성에 대한 위반이라 할 수 있다.
- A는 B의 발화를 통해 'B가 대답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B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말고 싶어하지 않는다.' 등의 추론을 하게 된다.

나, 너 진짜 좋아하냐?

- 형식적으로는 올바른 의문문이 되나, 질문의 화자는 알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청자에게 질문하기 때문에 청자가 대답할 수 있는 적절한 의문문은 아니다.
- 청자의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대화의 격률 질(quality)과 관련이 있다.
- 화자는 일반적으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청자가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가부의문문으로 질문할 수 있다.
-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한다는 것을 화자도 알고 있을 거라고 청자가 알기에 이 질문에는 함축이 숨어 있음을 청자가 깨닫고 스스로 행복해지든지 당황해하는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2. 논리함의(entailment)와의 비교

-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다른 명제가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 대화상의 함축은 논리함의(entailment)와는 구별된다.

경찰이 강도를 죽였다.
 강도가 죽었다.

- 첫 문장이 참이면 둘째 문장도 반드시 참이므로, 둘째 문장을 부정할 수 없다.
- 논리함의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말하면, 잉여적으로 이상하게 들린다.

경찰이 강도를 죽였다.
 (¬) # 사실은 강도가 죽지 않았다.
 (L) # 실제로 강도가 죽었다.

- 대화상의 함축은 무효화될 수 있고 또 반대로 강화될 수 있다.

민이가 밥을 먹었고 옷을 입었다.
 (¬) 사실은 민이가 먼저 옷을 입었어. 그 다음에 민이가 밥을 먹었어.(무효화)
 (L) 물론 민이가 먼저 밥을 먹었어.(강화)

- ➔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말의 원래 의미에 있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다른 의미, 즉 함축을 수없이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이러한 함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화는 오해를 일으키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
- ➔ 그라이스의 대화상의 함축 이론은 평범한 일상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추론 양상을 간단한 원리로서 명쾌하게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후 레빈슨(Levinson), 혼(Horn)등이 격률을 단순화시켜 여러 가지 대화상의 함축 현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모든 격률을 관련성(relevance)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려는 이론도 제시되었다.

9주차 1차시 언어와 문자 : 세계의 문자와 한글 1

1. 문자의 발달단계

1. 문자의 의의

- 문자는 인류가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고대인의 사상과 생활양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을 통해 정확히 전달된다.
- 문자를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인류의 긴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 문자의 발달은 인류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 넘게 만들어 준다.

2. 문자의 발달 단계

제1단계	그림문자
제2단계	단어문자 / 표의문자
제3단계	설형문자와 상형문자
제4단계	음절문자
제5단계	자음 음소문자
제6단계	완전한 음소문자

1) 그림문자와 단어문자

(1) 그림문자(pictogram)

- 문자의 발달 1단계에 해당한다.
- 어떤 생각을 관련된 사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 문자라고 부를 수 없는 단계이다.
- 13세기~16세기의 중앙아메리카에 있었던 미스텍(Mixtec) 부족의 그림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단어문자(logogram)

- 문자의 발달 2단계로 표의문자(ideogram)이라고도 부른다.
- 사물을 나타내는 그림이 지속적으로 추상화, 단순화되어 사물과의 유사성이 많이 약화되어 생긴 것이다.
- 대표적인 표의문자로 ‘한자’가 있다.
- 한자의 자형은 처음에 그림에 가까웠으나 지속적으로 추상화되어서 오늘날의 한자 모양이 되었다..
- 글자가 표상하는 대상 또한 사람과 해 같은 구체적 사물에서 추상적인 관념으로 확장된다.
- 그림이 단순화되면서 한자와 같이 표의문자로 굳어지기도 했지만, 단순화된 자형이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음성문자)로 발전하게 되기도 한다.

2) 음절문자

- 음성문자의 첫 단계이자 문자발달의 제4단계의 문자이다.
- 음절문자는 언어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하나의 음절을 하나의 글자로 표상한다.

(1) 일본어

- 대표적인 음절문자로는 일본어의 문자 ‘히라가나’와 ‘가타가나’가 있다.
-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자음 한 개와 모음 한 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음절 구조를 가진 언어이다.
- 모음은 [a, e, i, o, u] 5개이며, 50개 정도의 음절이 존재한다.
- 음절 구조가 복잡한 언어의 경우 음절의 종류가 많아지고 많은 음절 각각에 대하여 다른 문자를 사용한다면 기억의 부담이 커진다.
- 일본어와 비교하여 한국어는 CVC의 음절 구조이며 자음 20개, 중성의 모음 20개, 중성의 자음 8개로 3200가지의 음절이 존재한다.

(3) 직선형 문자 A(Linear A) 문자와 직선형 B(Linear B)

- 고대 그리스 시대에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문자이다.
- 직선형 B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부분 해독이 되었다.
- 직선형 A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으나 90개 정도의 글자가 존재하며, 음절문자로 유추 가능하다.

3) 음소문자의 출현

- 음소문자(phonemic writing system)란 음절의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자음과 모음 각각의 분절음을 표시하는 문자이다.

(1) 자음 음소문자

- 제5단계의 자음 음소문자는 분절음, 즉 음소를 문자로 표상하되 자음만을 표시하고 모음은 기록하지 않는 방법이다.
- 아랍어와 히브리어와 같은 셈어들은 형태적 특성상 모음이 예측 가능하기에 모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2) 완전한 음소문자

- 제6단계의 완전한 음소문자는 자음뿐 아니라 모음도 문자로 표시하는 체계이다.
- 알파벳(alphabet)과 한글이 이에 해당한다.

II. 설형문자와 상형문자

- 문자가 사물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는 그림에서 출발하여 소리를 표상하는 기호로 가는 중간 단계에 설형문자와 상형문자가 있다.

1. 설형문자

1) 설형문자

-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3300년경부터 3000년 이상 오랫동안 사용되던 문자이다.
- 설형문자는 그 모양이 썰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썰기를 나타내는 ‘설(揆)자를 이용하여 붙인 이름이다. (=썰기문자)

〈그림〉 설형문자



출처 :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개론, 한국문화사, 2020, p.256

- 사용 시기에 따라 모양에 차이가 있다.
- 최초로 설형문자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수메르인들로 상거래 등 생활의 편의를 위해 점토판에 그림을 새겨 사물을 나타내다가 그 그림이 점차 추상화되면서 뾰족한 모양의 설형문자가 되었다.(표의문자)

2) 쿠심(Kushim, 소리글자)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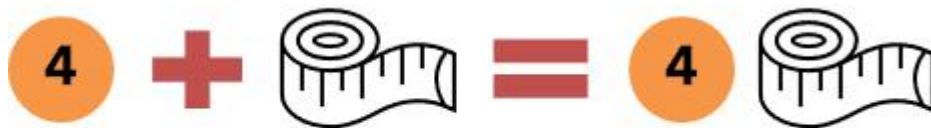
- 기원전 2600년경의 유물로, '쿠'와 '심'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합쳐진 것이다.

〈그림〉 쿠심



출처 : EBS 다큐프라임 [문자 1부 - 위대한 탄생]

- '쿠'와 '심'이 각각 어떤 사물을 가리키지만, '쿠심'은 그 사물들과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사물을 가리킨다.
- '쿠심'의 '쿠'나 '심'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리만을 표상하는 글자이다.



발음 : [사] + [자] = [사자]

- 쿠심 점토판은 수메르인들의 설형문자가 표의문자가 아닌 음성문자로 쓰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 수메르는 기원전 2000년 경 아카드인들에게 멸망되지만, 수메르인의 설형문자는 아카드와 그 이후의 앗시리아, 바빌론에서 2000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다.

2. 상형문자

-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설형문자가 사용되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서 사용되었다.

1) 로제타 스톤

- 1799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군 장교가 알렉산드리아시 근처의 로제타 마을에서 발굴한, 약 1.2미터 높이의 비석이다.
- 총 3단으로 구성되어 되어 있고 상단에는 14행의 상형문자, 중단에는 32행의 디모틱 문자(고대 이집트의 민중문자), 하단에는 54행의 그리스 문자가 새겨져 있다.
- 1822년 샹폴리옹(J. Champollion)은 상형문자 부분과 그리스어 부분을 비교하여 프톨레마이오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을 실마리로 하여 상형문자를 해독하는 데 성공하였다.
- 로제타스톤(Rosetta Stone)의 발견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양의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로제타 스톤



출처 : 나무위키(<https://namu.wiki/>)

2) 이집트의 상형문자의 특징

-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표의문자와 음성문자가 혼합되어 있는데, 음성문자는 자음 한 개를 표상하는 것들이 많고, 두 개의 자음과 세 개의 자음을 표상하는 것들이 몇 개 있다.

3. 알파벳

- 설형문자와 상형문자가 어느 정도 소리글자의 특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문자 체계에서 의미와 음성이 완전히 구별된 것은 음절문자이다.
- 문자가 분절음을 표시하게 된 것은 페니키아(Phoenician) 문자에서부터였다.
- 지중해 지역의 무역에 종사하던 페니키아인들은 그 이전부터 중동의 지중해 지역에서 사용되던 원시가나안(Proto-Canaanite)문자를 이어받아 그 형태를 단순화하여 사용하였다.

1) 원시가나안 문자,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 원시 가나안 문자는 최초의 자음 음소문자로 그 형태를 이집트 상형문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페니키아 문자는 기원전 1100년 경부터 1000년 이상 사용되었는데, 기원전 800년 경 그리스인들이 이 문자를 전수함으로써 서양 알파벳의 모태가 되었다.
- 페니키아인들의 공로는 문자를 새로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셈어의 음소문자를 서양 세계에 전달하여 장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알파벳(alphabet)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다.

〈그림〉 원시가나안 문자, 초기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Proto-Canaanite	Early Phoenician	Greek		Proto-Canaanite	Early Phoenician	Greek
·			Α	ι			Λ
β			Β	μ			Μ
γ			Γ	ν			Ν
δ			Δ	ξ			Ξ
ε			Ε	ο			Ο
ϖ			Υ	π			Π
ζ			Ζ	ρ			Ρ
η			Η	σ			Σ
θ			Θ	τ			Τ
ι			Ι	ω			Ω
κ			Κ	ϕ			Φ
				χ			Χ
				ψ			Ψ

출처 :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개론, 한국문화사, 2020, p.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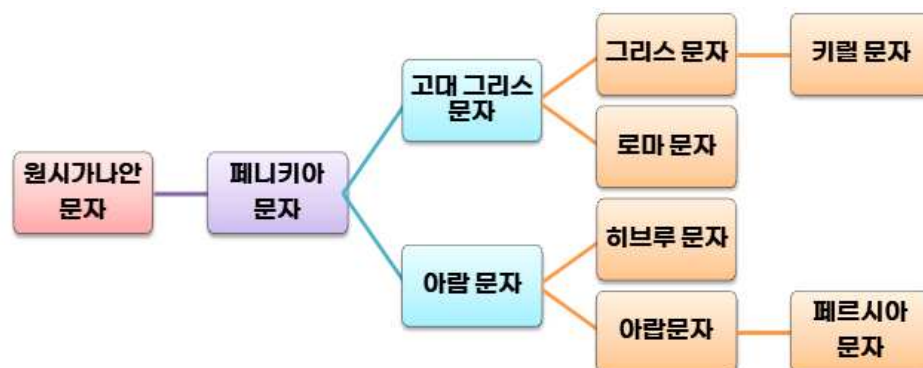
- 셈어의 특성상 모음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 모음이 존재하지 않아 자음만을 표시했던 페니키아 문자와는 달리, 그리스인들은 페니키아 문자를 차용할 때 모음을 표기하였다.
- 셈어에는 있지만 그리스어에는 없는 자음을 표시하는 문자를 그리스어 모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alef(소) - [a]
셈어의 자음(후두음) 그리스어

2) 알파벳의 계보

- 그리스 문자는 이후 로마로 계승되어 로마 문자(Roman alphabet)가 되며, 오늘날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를 표기하는 데 쓰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자이다.
- 그리스 문자는 그리스어를 표기하기 위해 현대에까지 쓰인다.
- 그리스 문자는 9세기 경에 선교사 키릴로스가 동구 유럽으로 포교를 하면서 슬라브어에 도입하여 모양이 변형된 키릴 알파벳(Cyrillic alphabet)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러시아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다.
- 페니키아 문자는 중동 지역에서 계속 사용되면서 아람(Aramaic) 문자로 쓰이다가 기원전 5세기 경부터 히브루(Hebrew)문자로 발전하고, 기원전 1세기 경부터 이란 문자로, 그리고 5세기 경부터 아랍(Arab) 문자로 변형되어 사용되었다.

〈그림〉 알파벳의 계보



출처 :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개론, 한국문화사, 2020, p.263(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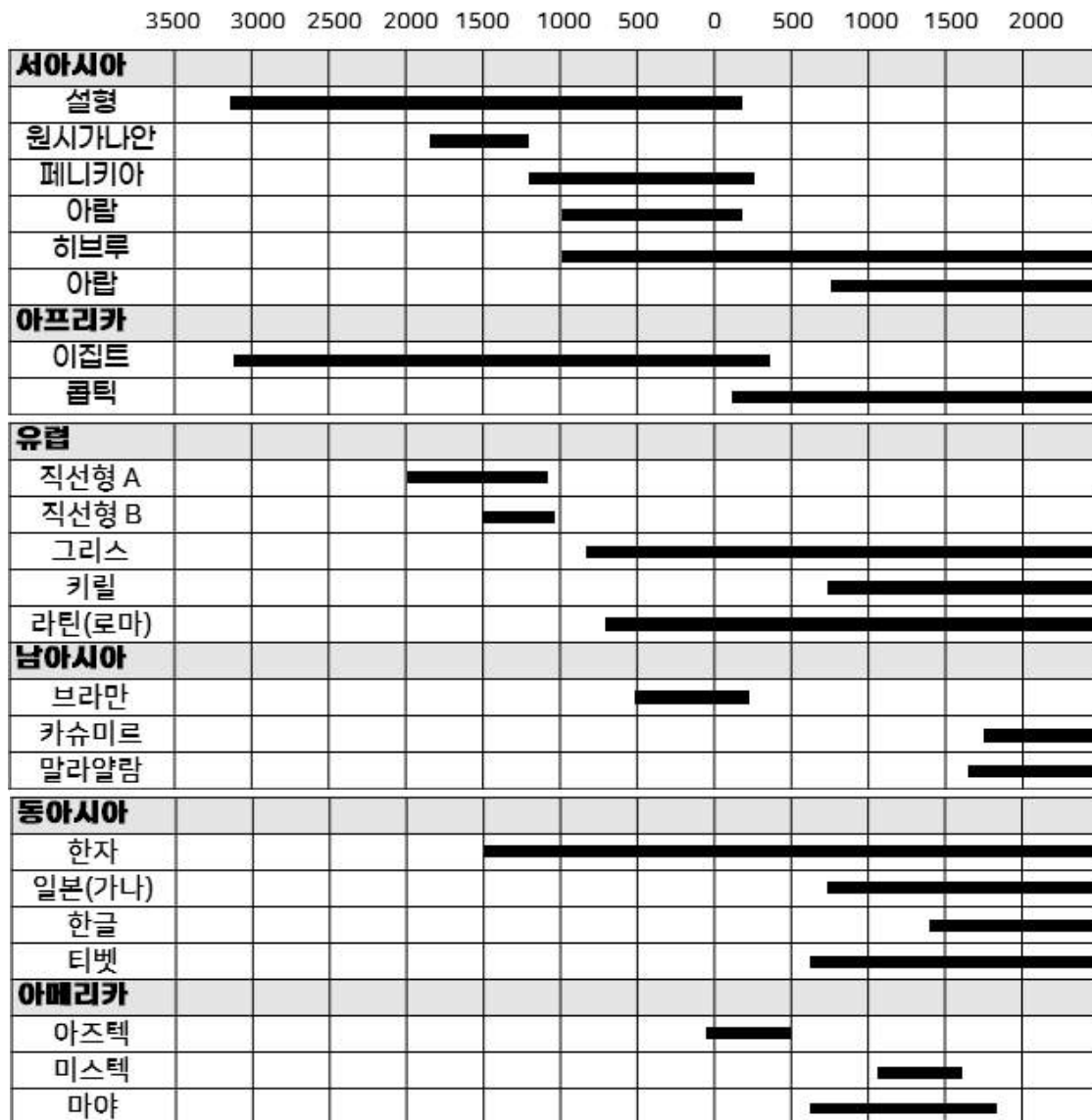
9주차 2차시 언어와 문자 : 세계의 문자와 한글 2

1. 세계의 문자

1. 주요 문자의 출현과 사용 시기

- 세계의 주요 문자들의 출현과 사용 시기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주요 문자의 출현과 사용 시기



출처 : 강범모, 언어 풀어쓴 언어학, 한국문화사, 2020, p. 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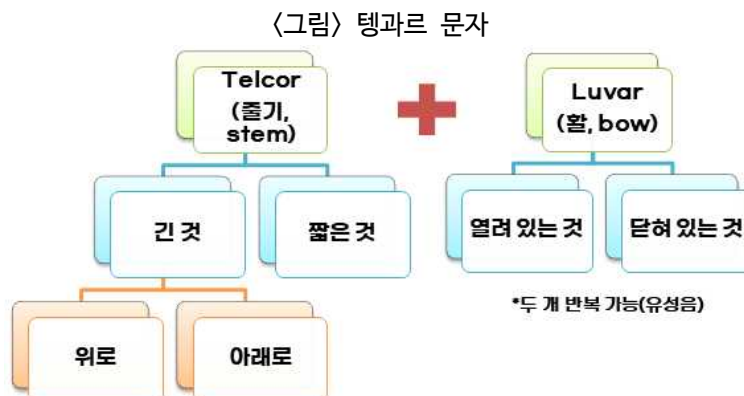
2. 톨킨의 키르스 문자

1) 「반지의 제왕」의 문자

- '반지의 제왕'은 1954년과 1955년에 발표한 3부작 소설로, 판타지 소설의 바이블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2년에 제 1부가, 2003년에 나머지 2,3부가 영화로 제작되었다.
- 소설에는 고대의 중간계에서 살아가는 여러 종족이 등장하는데, 독특한 엘프의 언어와 문자는 톨킨이 새로이 만든 것이다.

(1) 텡과르 문자(Tengwar)

- 문제의 '유일 반지'에 새겨진 문자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많은 문자이다.



- 즐기와 활의 조합의 네 가지 계열이 있다.

- ✓ (열린) 활이 즐기 왼쪽에 있는 경우
- ✓ (열린) 활이 즐기 오른쪽에 있는 경우
- ✓ (닫힌) 활이 즐기 왼쪽에 있는 경우
- ✓ (닫힌) 활이 즐기 오른쪽에 있는 경우

- 기본 자음 종류(p, t, k)를 구분한다.
- 즐기의 모양에 따라 즐기가 아래로 붙은 파열음([p]), 즐기가 위로 붙은 마찰음([f]), 즐기가 짧은 비음([m])이 구별된다.
- 모음은 기본 자형 위에 구별 표시를 함으로써 구분된다.
- 자음을 기본으로 표시하고 모음을 표기기로 구별하는 오늘날의 아랍 문자 표기법과 비슷한 방식이다.

〈그림〉 텡과르 문자의 모음 표시

◌ ^ˆ	◌ ^ˆ	◌ ^ˆ	◌ ^ˆ	◌ ^ˆ	◌ ^ˆ
아이 ai	오이 oi	우이 ui	이우 iu	에우 eu	아우 au

출처 : <http://www.elvish.org>

〈그림〉 텡과르 문자와 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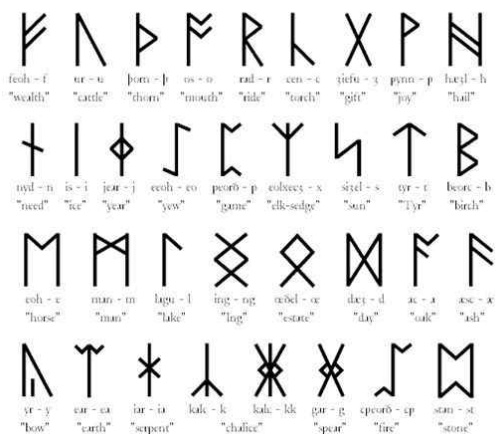
p ^t Tolkien christmas	p ^p happy scripts	q ^{ch} march	q ^{k c} Tolkien scripts
p ^d dear	p ^b by	q ^j just	q ^{*g} gill
h th forth	h ^f find	d ^{sh} wish	d ^{ch [k]} Michael
h ^{th [ð]} this	h ^v very	cd ⁻	cd ^{gh} Hugh
m ⁿ in	m ^m march	cu ⁻	cu ^{ng} ring
r ^r march	r ^{w -u} west you	u ^{y [j]} you	u ⁻
r ^r herein return	r ⁻	l ^l styles	l ⁻
s ^s history	s ^{*s}	s ^{s [z]} is	s ^{s [z]} as
h ^h John herein	h ^{*wh} where	l ^{-e} Michael	l ^{-a} Earth

출처 : <http://www.elvis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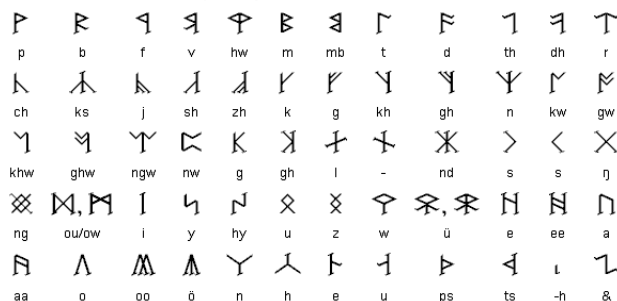
(2) 키르스 문자(Cirth)

- 곡선이 별로 없이 주로 직선으로 이루어진 문자이다.
- 돌이나 금속에 문자를 새길 때의 편의를 위해 고안되었다.
- 키르스 문자의 모양은 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북유럽 지역에서 게르만족이 사용하던 룬 문자와 유사한 모양이다.

〈그림〉 룬 문자

출처 : <http://www.ancientscripts.com>

〈그림〉 키르스의 문자

출처 : <http://www.elvish.org>

- p, k, t 등의 계열이 줄기와 그 옆의 활 부분의 모양 차이로 구별된다.

p 계열 활이 삼각형
t 계열 활이 아래 쪽으로 내려간 가지
k 계열 활이 위로 향한 가지

- 활이 줄기의 왼쪽/오른쪽에 있는가에 따라 파열음([p]), 마찰음([f])이 구별되며, 유성음 활(가지)이 하나 더해짐으로써 표시된다.
- 모음이 독립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오늘날 영어 알파벳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된다.

2) 툴킨의 문자와 한글

(1) 공통점

- 한글과 같은 음소문자이면서 음성적 특성(자질)을 고려한 과학적인 문자이다.
- 어떤 조음 위치에서 무성 파열음을 기본 자형으로 하여 여기에 유성, 마찰, 비음 등의 음성적 특성을 동일한 방식으로 반영한 과학적 원리는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유사하다.

[예시]
 ✓ 잇몸소리는 ‘ㄴ’이 기본형+획을 더해 (ㄷ, ㅌ)로 평음과 격음을 구별함

(2) 차이점

- 기본 자형에 한글은 소리를 낼 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방하였다는 과학성이 한글에만 있다.

II. 한글

1. 한글의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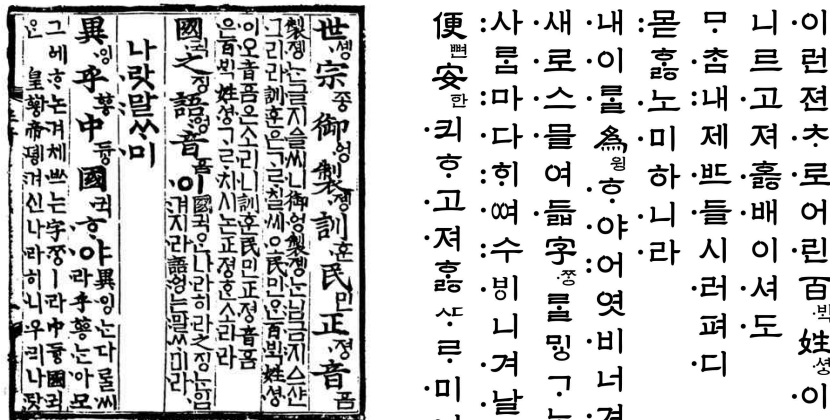
1) 한글이 알파벳보다 우수한 이유

- 한글 창제는 민주 정신이 바탕이 되었다.
- 자음, 모음의 자형이 과학적이고 철학적이다.
- 자음의 자형이 현대언어학의 변별적 자질 이론을 반영한다.

(1) 한글 창제의 민주 정신

-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은 1446년에 간행된 훈민정음 서문에 나온다.

〈그림〉 훈민정음언해(왼쪽)와 훈민정음 어제 서문(오른쪽)



출처 : <http://www.hangeul.or.kr>

- 해석 :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리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 한글은 소수 지식층의 전유물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 언어생활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권리를 동등하게 본 민주적인 사상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2) 자음과 모음의 모양

- 한글의 모음은 천(天, 하늘), 지(地, 땅), 인(人, 사람)이라는 세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표상하는 기본 글자인 ‘ㆍ, ㅡ, ㅣ’세 자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 기본 자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합하여 여러 가지 모음의 모양이 생겨났다.
- 자음은 발음기관의 구조와 조음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바탕이 되어 모양이 결정되는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다.

ㅁ(양순음)	입술이 모여 있는 모양
ㄴ(치경음)	혀 끝이 치경에 닿는 모양
ㅅ(치음)	소리를 낼 때의 이빨 모양
ㄱ(연구개음)	소리를 낼 때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는 모양

- 보이는 음성(Visible Speech)이란 1867년 멜빌 벨(M.Bell)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하여 창안한 것으로, 한글과 유사한 원리의 이 부호체계는 한글이 나온 지 400년 후에야 나타났다.

(3) 자음의 모양이 변별적 자질을 형상화

- 로마 알파벳에서 유성과 무성이 구별되는 파열음의 쌍들은 두 소리 사이의 유사성이 글자의 모양에 반영되지 않으며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는 모양의 특성이 없다.
- 한글은 동일한 위치(입술, 치경, 연구개)에서 나는 세 소리들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 소리의 유사성이 글자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
- 각 위치에서 나는 세 소리들의 변별적 자질인 [격음성](거친 소리)과 [경음성](센 소리)이 모양에 반영되어 있다.

영어의 자음	한글의 자음
p : b	ㅍ : ㅂ : ㅃ
t : d	ㅌ : ㄷ : ㄸ
k : g	ㄱ : ㅋ : ㆁ

- [격음성]은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구현된 것이며, [경음성]은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병서로 구현된 것으로 세종대왕은 근대 서양의 구조주의 음운론에서 발견한 음소의 변별적 자질을 이미 500년 전에 파악하고 그것을 글자 모양에 반영한 것이다.
- 한글 자형의 형성 원리는 오늘날 휴대폰의 자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 알파벳은 자모음을 수평적으로 연결하여 씌으로써 음절의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한글은 자모음을 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읽기에 편하다.
- 2009년에는 훈민정음학회의 노력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문자가 없는 짜아짜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보급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은 한글이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우수한 문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학자 세종대왕

- 한글 창제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 역사적 기록을 보면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고 당시 집현전의 제2인자인 최만리가 한글 창제에 반대한 상소문이 남아 있다.
- 집현전의 원로학자들은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함으로써 지배 계급의 문화가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 백성이 쉽게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드는 것에 반대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성삼문, 신숙주 등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보급 사업에 합류한 것이다.
- 문헌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일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왕자와 공주 등 왕의 가족들이 한글 창제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 왕이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를 직접 수행한 언어학자로 인식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 결론 : 세종대왕은 과학적인 한글을 손수 만든 언어학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세종대왕상(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이 만들어졌다.(1989년 한국정부에서 재원을 제공하여 제정됨)

10주차 1차시 언어와 역사 : 세계의 어족과 언어 1

I. 언어들 사이의 친근성

1. 어족(語族, Language family)

1) 개념

- 현존하는 자연어 어족들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라 할 수 있다.
- 언어학에서 하나의 공통된 조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추정되는 여러 언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 어족 연구의 배경

- 영국과 인도 사이의 문화적인 갈등이 너무 커지자, 영국 정부에서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을 인도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 기록에 따르면 윌리엄 존스는 언어에 관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아랍어, 히브리어, 그리고 한문을 마스터했다고 한다.
- 그는 평생 13개의 언어를 완벽히 구사했고 28가지 언어를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존스는 인도로 파견된 뒤,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인들의 고전과 신화를 알아야 한다며 산스크리트어까지 배운다.
- 그러던 중에 그는 산스크리트어의 어휘들이 그리스어나 라틴어 등과 굉장히 닮아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리스어와 라틴어 같은 유럽 쪽의 일부 옛 언어들의 공통조상이 바로 이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많은 연구 끝에 그는 인도, 이란, 그리고 유럽의 민족들이 한 민족에서 갈라져 나왔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때부터 인도유럽어족 연구가 시작되어 수많은 언어들의 뿌리가 하나임이 확인하였고, 이 언어들을 비교하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법, 발음법 등을 정리했다.
- 18세기 말 윌리엄 존스는 그리스어(Greek)와 라틴어(Latin), 인도의 산스크리트어(Sanskrit) 세 언어의 유사함에 주목, 1786년 공통 기원의 가능성을 발표한다.
- 이후 언어들 사이의 공통 조상을 찾고 동시에 언어들 사이의 친족 관계를 밝히는 역사비교언어학의 학문 활동이 시작된다.
- 언어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3) 언어들 사이의 유사성

(1)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영어
phrater	frater	bhrata	brother
pater	pater	pita	father
treis	tres	trayas	three

- 같은 의미의 단어들에 같은 소리가거나 매우 비슷한 소리를 낸다.
- 단어들에 동일한 형식에서 출발, 오랜 시간을 거쳐 소리가 변한 것을 암시한다.
- 부모어(parent language), 공통 조어(祖語, 조상 언어)의 개념이 발생되었다.
- 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어는 하나의 조상인 원시인구어(proto- Indo-European)에 속한다.
- 재구(reconstruction)란 여러 언어들을 비교하여 조상 언어의 모습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원시인구어는 재구된 언어이다.

(2) 한국어와 영어

버스	bus
부츠	boots
커피	coffee

- 영어에서 들어온 외래어와 같은 단어를 차용한 것은 언어 사이의 계통적 친근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없다.

푸르	blue
많이	many
보리	barley
둘	two
불	fire

- 발음이 비슷하지만, 하나의 어족으로 보기는 힘들다.
- 한국어와 영어는 유사한 형식의 공통 단어들이 많지 않다.
- 같은 조상을 이루는 언어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단어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단어들이다.

[예시]

✓ 수사, 신체 부분어, 친족어, 천체어, 기본 동작어 등

(3) 영어와 독일어

	영어	독일어
1	one	eins
2	two	zwei
3	three	drei
4	four	vier
5	five	fünf
6	six	sechs
7	seven	sieben
8	eight	acht
9	nine	neun
10	ten	zehn

- 수사 전반에 걸쳐 소리가 일치하는 영어와 독일어는 한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언어들임이 확실하다.
- 영어와 독일어는 수사뿐 아니라 신체어, 친족어, 천체어, 기본 동작어 등 많은 기본 어휘가 비슷하다.

영어	독일어
foot	fuss
brother	bruder
book	buch
eat	essen

- 영어와 독일어 사이의 유사성은 체계적으로 유사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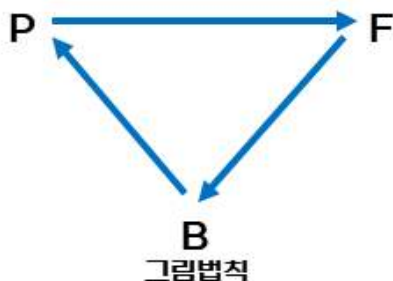
[예시]

✓ 영어의 파열음 [f] -독일어 마찰음 [s]

2. 음성법칙

1) 그림 법칙 (Grimm's Law)

- 그림(J. Grimm)이 음운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였다.
- 그림 법칙은 인구어에서 게르만어파(영어, 독일어 등)의 언어들과 다른 언어들 사이의 자음 대응 관계를 나타낸다.



(1) 양순음의 대응관계

라틴어	독일어	영어
pater	vater	father
frāter	bruder	brother
labium	lipp	lip

- 라틴어의 무성파열음 [p]는 독일어와 영어의 무성마찰음 [f]에 대응한다.
- 라틴어의 무성마찰음 [f]는 독일어와 영어의 유성파열음 [b]에 대응한다.
- 라틴어의 유성파열음 [b]는 독일어와 영어의 무성파열음 [p]에 대응.

(2) 치경음/연구개음의 대응

- 자음의 대응 관계는 치경음과 연구개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틴어	영어
canis [k]	hound [h]
vh-o [h]	wagon [g]
ager [g]	acre [k]
tres [t]	three [θ]
fēci(Skt. dha)	do [d]
duo [d]	two [t]

2) 베르너(K. Verner)의 법칙

- 그림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다.

[예시]

✓ 라틴어 'frater', 독일어 'Bruder' (*중간의 [t]-[θ]이어야 함)

- 자음 앞의 모음이 강세가 없을 때에는 게르만어의 무성마찰음 [f, θ, x(h)]가 유성파열음 [b, d, g]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그림 법칙을 보완함으로써 음성법칙의 엄밀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 19세기 말 비교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던 독일의 소장문법학파(neogrammarians)는 음성법칙에는 예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3) 슈하르트(Schuchardt)의 물결이론(wave theory)

- 그림법칙과 소장문법학파가 대변하는 전형적인 비교언어학 모형과 언어가 분가하고 음성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모형과는 달리, 언어의 변화가 중심에서 시작되어 물결이 번져나가듯 주변으로 번진다는 물결이론을 주장하였다.

-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 변화의 규칙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마다 다른 속도로 적용되어 간다는 견해이다.

➔ 이는 소쉬르, 촘스키로 대변되는 공시적 균질성을 기초로 하는 언어 체계 이론보다는 공시적 변이를 인정하는 사회언어학 또는 사회적 인지언어학의 모형과 일치한다.

II. 인구어족

1. 인구어족(인도유럽어족)의 종류

1) 기원설

- 스텝 발생설(Steppe hypothesis, '쿠르간 가설'로도 불림)과 아나톨리아 기원설(Anatolia hypothesis)이 존재한다.

(1) 스텝 발생설

- 기원전 4천 년대 러시아 남부의 흑해-카스피해에 걸친 초원지대에서 사용된 언어에서 출발했다는 기원설이다.
- 재구된 원시 인도유럽어에서 계급·계층 분화와 관련된 어휘가 보이고 가축과 바퀴, 수레와 관련된 어휘가 나타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2) 아나톨리아 기원설

- 약 8천 년 전에서 9500년 전 아나톨리아의 농경민이 사용했던 언어에서 출발했다는 기원설이다.
- 최초의 농경 문화의 발상지에 가까워 농경민의 인구 증가 및 이주를 언어 확장의 원동력으로 볼 수 있고, 신석기 문화의 확장이 고고학적으로 매우 명확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 최근의 언어학·유전학·고고학 연구로 스텝 발생설을 지지하는 여러 근거가 알려지게 되었으며, 과거에 문힐 뻔했던 경쟁 가설 중 하나인 아르메니아 가설도 스텝 발생설을 보완하는 역할로 재조명받았다.

2) 인도유럽어족의 분화 과정

- 기원전 4000년 무렵 캅카스 지역을 출발지로 인도유럽조어에서 맨 처음 아나톨리아어파가 갈라져 나왔다.
- 서쪽으로 이동해 대략 기원전 3000년 무렵에 아나톨리아 반도에 정착하였다.
- 이후 헬라-아르메니아-인도이란 조어가 분리되었다.
- 기원전 3000년쯤에 각각 헬라어파, 아르메니아어파, 인도이란어파로 분리되었다.
- 헬라어파 사용자들은 서쪽으로 이동해 아나톨리아와 남유럽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 인도이란어파, 켈트-이탈리아-토하라 조어, 발트-슬라브-게르만 조어 사용자들은 카스피해 동안을 따라 캅카스 산맥을 넘어 북상하였다.
- 기원전 2000년 무렵에는 켈트-이탈리아-토하라 조어에서 토하라어파가 분리되었다.
- 흑해 북안을 거쳐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 켈트-이탈리아 조어 및 발트-슬라브-게르만 조어 사용자들은 카스피해 북쪽의 동유럽 초원지대를 거쳐 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켄툼(centum) 언어	게르만어파(Germanic)	✓ 서 : 영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 북 : 덴마크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아이슬란드어
	이탈리아어파(Italic, 혹은 로망스어파 Romance)	✓ 라틴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그리스어파(Greek)	✓ 그리스어
	켈트어파(Celtic)	✓ 골어, 웨일스어, 아일랜드어
사템(satem) 언어	슬라브어파(Slavic)	✓ 러시아어, 폴란드어, 체코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불가리아어
	발트어파(Baltic)	✓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이란어파(Iraniaa)	✓ 이란어(페르시아어)
	인도아리아어파 (Indo-Aryan)	✓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벵갈어, 펀자브어, 우르두어

3) 켄툼언어와 사템언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벵갈어	페르시아어
Unus	Un	Einz	One	Ek	Yak
Duo	Deux	Zwei	Two	Dvi	Do
Tres	Trois	Drei	Three	Tri	Se
Quattuor	Quatre	Vier	Four	Car	Cahar
Quinque	Cinq	Funf	Five	Pac	Panj
Sex	Six	Sechs	Six	Chay	Shash
Septem	Sept	Sieben	Seven	Sat	Haft
Octo	Huit	Acht	Eight	At	Hasht
Novem	Heuf	Neun	Nine	Nay	No
A	Dix	Zehn	Ten	Das	Dah
Centum	Cent	Hundert	Hundred	Sa	Sad

- 이탈리아어파에 속하는 라틴어와 프랑스어는 cent로 시작하고,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독일어와 영어는 hund가 들어가며, 인도이란어파에 속하는 벵골어와 페르시아어에서는 sa다.
- 인도유럽어족의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 그림의 법칙이 발견되면서, 100을 뜻하는 단어의 세 가지 갈래 중에서 ‘cent~’와 ‘hund~’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을 밝혀냈으나, 인도이란어파에서 왜 ‘sa~’ 소리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설명이 필요했다.
-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인도유럽어족을 100을 지칭하는 단어에 따라서 크게 켄툼과 사템으로 나눴다.

2. 어파의 언어 사용 지역

1) 인구어 사용 지역

- 445개의 인구어 중 313개(2/3)가 인도이란어파이다.
- 인도유럽어족에는 오늘날 유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언어가 속하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에도 인도유럽 언어들이 분포한다.
-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이탈리아어파(로망스어파), 게르만어파, 슬라브어파의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인구어 모어 화자 수

- 오늘날 세계 인구의 46%에 달하는 32억 명이 인도유럽어족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며 이는 모든 어족 중 가장 큰 숫자이다.

1억 명 이상	스페인어, 영어, 힌두스탄어(힌디어·우르두어), 포르투갈어, 벵골어, 편자브어, 러시아어
5천만 명 이상	독일어, 프랑스어, 마라티어, 이탈리아어, 페르시아어

- 켈트어파의 언어들은 과거 유럽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던 언어였다.
- 브리튼 섬에도 켈트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나 대륙의 앵글로색슨족이 잉글랜드를 침공하여 점령한 후, 영어가 켈트어를 변방으로 몰아내었다.
- 켈트어는 오늘날의 브리튼 섬의 서쪽(웨일스)과 북쪽 변방(스코틀랜드)과 아일랜드 섬에서 일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는 원주민 언어인 켈트어(아일랜드어, 웨일스어)를 보존하고자 켈트어 방송이 있고, 공공 표지 등에 켈트어를 영어와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인도유럽어족의 역사언어학적 위치

- 청동기 시대부터 미케네 그리스어 및 아나톨리아어파의 히타이트어와 루위어로 된 문자 기록이 나타나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기록의 역사를 지닌 어족이다.(가장 긴 역사를 지닌 어족은 이집트어와 근동의 셈어파 언어들이 속한 아프리카아시아어족이다.)
 - 인도유럽어족 언어의 가장 오래된 흔적은 아나톨리아 동부의 아시리아 유적지인 킬테페에서 발견된 기록에 남은 히타이트어 단어와 고유명사들이다.
 - 모든 인도유럽어족 언어는 인도유럽조어라 불리는 단일한 신석기 시대 언어의 후손이다.
- ➡ 비록 인도유럽조어 자체나 그 화자인 원시 인도유럽인의 문화와 종교에 관해 남아 있는 기록은 전혀 없지만, 인도유럽어족의 원향으로부터 각지로 퍼져나간 후손들인 고대와 현대의 여러 인도유럽 민족의 언어와 문화로부터 그 모습이 어떠했을지 재구성해 볼 수 있다.

10주차 2차시 언어와 역사 : 세계의 어족과 언어 2

I. 유형론적 언어 분류

1. 유형론의 형태적 언어 분류

- 19세기에 슐레겔 형제에 의해 문법 구조를 기준으로 언어를 유형론적으로 분류하기가 시도되었다. 프리드리히 폰 슐레겔은 언어유형을 굴절에 의한 언어와 접사에 의한 언어로 구분하였으며,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은 굴절이나 접사가 없는 언어를 추가하여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언어 분류 초기의 학자들은 대부분 독일어와 같은 굴절어를 가장 뛰어난 언어라고 여겼다.

훔볼트 : “굴절어야말로 언어 구조의 순수한 원리를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
 슐라이허 : “언어 최고도의 발달은 굴절어”

1) 고립어

-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형태에 변화가 없고, 단어 사이의 문법 관계와 의미가 어순에 의해서 표시되는 언어이다.
-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접사가 없다.
- 예를 들어 중국어, 타이어, 베트남어가 있다.

[예시]

- ✓ 중국어 - 人殺虎。(사람이 호랑이를 죽이다.)
 虎殺人。(호랑이가 사람을 죽이다.)

- 고립어에서는 시제와 같은 문법 표현 역시 별도의 접사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단어를 통해 실현된다.

[예시]

- ✓ 베트남어- Nàng đã đi rồi (그녀는 이미 떠났다)
 (과거시제)

2) 교착어

- 문법 관계가 어근에 결합하는 접사에 의해 실현되는 언어이다.

[예시]

- ✓ 아버지께서 집으로 가-시-었-겠-어-요
 ‘-으시’ : 아버지가 집으로 가신 일에 대해서, 주어진 아버지를 높임
 ‘-었-’ : 과거를 나타냄
 ‘-겠-’ : 추측 표현
 ‘-어’ : 서술문을 나타냄
 ‘-요’ : 듣는 사람을 높임

- 각각의 문법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문법 접사가 하나씩 첨가해 있다.
- 이와 같이 문법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어근에 접사를 첨가하며 접사는 각각 하나의 문법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를 교착어(첨가어)라고 한다.

[예시]

- ✓ 인도의 가로어 ‘sok-ba-ku-ja-ma’
 문장의 의미 : has he not yet arrived?
 sok(도착하다)
 -ba-(향하여)
 -ku-(아직)
 -ja-(부정)
 -ma(의문)

3) 굴절어

- 굴절어는 문법 기능이 어근에 결합하는 접사에 의해 실현되는 언어라는 점에서는 교착어와 비슷하다.
- 그러나 접사는 여러 문법 기능을 동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시]
 ✓ 영어 He goes의 '-es'
 → 3인칭, 단수, 현재

2. 유형론의 어순에 따른 언어 분류

- 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 영희를 광수가 사랑한다.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hn loves Mary. ▪ Maty lobes John.

➔ 문장 안에서 문장성분이 놓이는 위치, 곧 문장 성분의 배열 순서를 문법에서는 '어순'이라고 한다.

1) 기본 어순

- 한국어는 문장성분들이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지며, 언어유형론적으로 기본어순이 '주어+목적어+서술어' 언어로 분류된다.
- 언어학자 그린버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어순을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문장 성분인 주어(S), 서술어(V), 목적어(O) 세 요소를 배열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에 따라 어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SOV	▪ 광수(가) 영희(를) 사랑하였다
SVO	▪ 광수(가) 사랑하였다 영희(를)
VSO	▪ 사랑하였다 광수(가) 영희(를)
VOS	▪ 사랑하였다 영희(를) 광수(가)
OVS	▪ 영희(를) 사랑하였다 광수(가)
OSV	▪ 영희(를) 광수(가) 사랑하였다

- 세계 언어의 대부분은 이 가운데 제1, 제2, 제3 유형에 속한다.
- 제1유형과 제2유형에 각각 44.78%, 41.79%의 언어가 속한다.
- 주어보다 목적어가 앞에 나오는 VOS, OVS, OSV 언어는 아주 희귀하다고 볼 수 있다.

(1) SOV

- 여섯 가지 어순 유형 중 약 44.78%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 예를 들어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몽골어, 힌디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미얀마어 등이 있다.

예 일본어

私が	箱を	開けます
I(주격)	box(목적격)	open

(2) SVO

- 여섯 가지 어순 유형 중 약 41, 79%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 예를 들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그리스어, 스와힐리어, 베트남어 등이 있다.

예 이탈리아어

Mi	piacciono	le mele
I	like	an apple

(3) VSO

- 고전 아랍어, 고전 히브리어, 아일랜드어, 웨일스어, 멕시코의 토박이말 자포테크어 등이 속한다. 세계 인구 전체의 9.20% 정도가 사용한다.

예 웨일스어 - '용이 사람을 죽였다.'

Lladdodd	y ddraig	y dyn
killed	the dragon	the man

(4) VOS

- VOS의 구조를 가진 언어로는 태평양의 피지어, 마다가스카르의 말라가시어, 수마트라의 바타크어, 니아스어, 고대 자바어가 있다.
- 세계 인구 전체의 2.99% 정도가 사용한다.

예 말라가시어

Mamaky	boky	ny mpianatra
read	book	the student

(5) OVS

- OVS의 구조를 가진 언어로는 희스카리아나어가 있다. 남아메리카의 토박이말로써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림에서 약 350여 명이 사용한다.
- 그 밖에 브라질 북부의 몇몇 토박이말, 인도 남부의 타밀어 등이 있다.
- 세계 인구 전체의 1.24% 정도가 사용한다.

예 희스카리아나어 - '소년이 물고기를 잡았다.'

kana	yannimno	biryekomo
fish	he-caught-it	boy

(6) OSV

- 여섯 가지 어순 유형 가운데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이다.
- 과거에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어순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 몇 개 언어가 발견된 아주 드문 어순 유형이다.
- 남아메리카 베네수엘라 서북쪽의 와라오어, 브라질의 아푸리나어, 나뻬어 등이 있다.

예 아프리카어 - '내가 파인애플을 가져온다.'

anana	nota	apa
pineapple	I	fetch

II. 한국어의 기원과 언어의 변화

1. 한국어의 기원과 관련된 이론

1) 한국어 연구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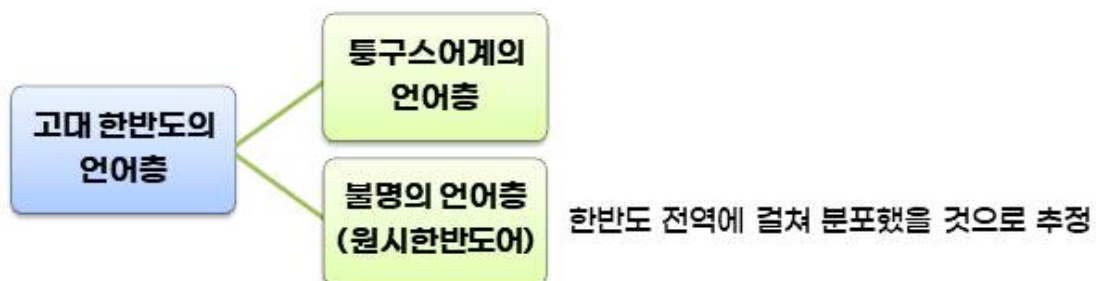
- 한국어가 알타이어족과 동일한 계통이라는 견해가 이어져 왔다.
- 19세기 후반부터 서양 열강이 중국(당시 청나라)을 비롯한 조선, 일본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의 언어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비교언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 한국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이다.
-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들어간다는 램스테드(핀란드의 언어학자)의 연구가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 램스테드는 일본에 와 있던 램스테드는 한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알타이어족들과 비교하면서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사실을 논문과 책으로 발표하였다. → 《한국어 어원 연구》

2) 한국어 비교언어학 연구

-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손으로 된 학문을 하기 어려웠다.
- 한국전쟁을 지나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와 알타이어족 사이의 비교 연구가 시작되었다.
- 한국어가 당연히 알타이어족에 속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한국어가 어느 알타이어족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찾아내고 알타이어족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밝히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 1970년대는 한국어 비교언어학, 한국어 계통 연구의 전성기였다.
- 한국어의 역사가 연구되면서 가장 옛 단계에 있는 한국어 이전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기존 연구의 잘못이 상당수 드러나게 되었다.

(1) 《한국어의 계통》(민음사, 1983년)

- 한국어와 알타이어족을 음운, 형태, 어휘면에서 비교하며 특히 음운대응에 주목하였다.
- 음운체계 전반에 걸친 음운대응을 정확하게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앞으로 대응규칙을 더 보강하고 정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제시하였다.
- 한국어와 알타이어족의 관계를 도식화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어가 통구스어족과 매우 밀접해 있을 개연성을 주장하였다.
- 삼국사기 지리지의 지명을 분석하여, 고대 한반도에는 계통을 달리하는 두 언어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 우리 학계의 이러한 연구의 결정적인 약점은 알타이어족들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하고 오로지 문헌에만 의존했다는 점이다.
- 기존의 연구 논저, 언어사전 등에만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다.
- 1990년대 동서독 통일과 러시아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 이후부터 중국과 러시아에 직접 가서 우수한 장비로 그들의 언어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3) 삼국시대의 언어

- 만주 지역과 한반도 삼국이 정립되었을 때 고구려가 어떠한지를 알려 주는 자료는 두 가지뿐이다.

삼국사기	중국 옛 역사책
삼국사기에 기록된 땅이름과 관직이름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70여개 단어에 지나지 않음	중국 옛 역사책에 기록된 당시 언어에 대한 기록

- 현재 고구려어와 신라어·백제어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같은 어족의 언어여서 매우 가깝지만
서로 다른 언어였다.”

“방언적 차이만 있는 같은 언어였다.”

➡ 우리말과 지리적으로 계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알타이어족의 여러 언어들을 두루 살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의 변화

- 비교언어학이 주로 음성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의 음성 변화를 기술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만, 언어에서는 형태·통사적인 변화, 어휘와 의미의 변화도 일어난다.
- 우리말에서 고려시대의 전기 중세국어에서 조선 초의 후기중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모음 체계에 변동이 있었다고 한다.
- 현대 국어의 관점에서 큰 변화는 중세국어까지 있던 성조의 소멸이다.
- 어휘와 의미변화도 훈민정음을 통해 확인된다.

예 이런 전추로 어린 백백姓성이 니르고져
흙 배이셔도 무춤내 제 뜨들 시러 퍼디 몸흙
노미 하니라

현재 쓰지 않는 말	의미가 변한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추(이유, 까닭) ✓ 하다(많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어리석은)

- 단어의 의미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의미가 변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예 **아줌마**

옛날	현재
결혼한 여자를 예사롭게 부르는 말	'아주머니'의 낮춤말로 사용함

11주차 1차시 심리언어학 1 : 심리언어학 개관

1. 심리언어학의 정의와 연구 대상

1. 심리언어학의 정의

-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정신적·인지적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 심리언어학에서는 일상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언어 수행뿐만 아니라,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소실이나 언어 입력 부재로 인한 불완전한 언어 습득과 같은 비정상적 언어 습득과 사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 심리언어학은 아동의 모어 습득과 성인의 발화 생산 및 이해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 최근에는 모어 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이나 다중 언어 사용, 또는 제2언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과 이해에 관한 인지적 처리 과정까지 탐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심리언어학에서는 인간의 언어 행위(verbal behavior) 혹은 몸짓 등을 자료로 하여 언어와 관련된 정신적 기능을 연구한다.
- 인간이 생산한 언어자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정신적 기능을 명백하고 온전하게 밝혀내기 어렵다. 따라서 심리언어학은 관찰 가능한 언어 행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되, 관찰하기 어려운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적인 언어 처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이승연, 2012)

2. 심리언어학의 학문적 성격

- 심리언어학은 심리학과 언어학이라는 두 개의 모(母)학문이 연계된 학제간(interdisciplinary) 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 이러한 학문적 배경으로 인해 심리언어학은 언어 현상에 대해 심리학의 관점과 언어학의 관점을 동시에 지닌다.
- 언어학은 언어에 관한 학문이며 심리학은 인간의 행위와 경험에 관한 학문이다.

심리언어학은 ‘인간의 언어 사용에 관한 학문’이다.

〈표〉 학제간 연구로서의 심리언어학(이승연, 2012)

언어학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학의 구분 방식에 따라 언어 단위의 다양한 층위를 살핌 · 음성, 단어, 구, 문장, 담화에 이르기까지의 언어 현상을 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를 정신 작용으로 파악함. · 인간을 특정한 상황과 의도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으로 바라봄. ·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과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험을 다룸.

- 심리언어학의 형성 배경과 관련하여 심리언어학 이전의 언어학에서는 소쉬르의 랑그 개념을 언어의 본질로 보고 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실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언어 활동인 파롤이나 그에 대한 정보, 혹은 언어 사용자 자체에 대한 탐구는 도외시 되었다.

- 이후에 언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것이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됨.
- 기존의 언어학 연구에서 배제되었던 언어 사용자(language user)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 심리언어학은 바로 언어 사용자에 대한 것을 밝히려는 학문이다.(언어의 사용 환경-사회언어학, 언어의 맥락 - 화용론)

3. 심리언어학의 정립

1) 1950년대 언어 연구와 심리언어학

(1) 행동주의 심리학에 근거를 둔 심리학적 접근방식

- 언어란 인간의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 중 한 종류일 뿐이며, 단지 ‘말로 하는 행위(verbal behavior)’라는 점에서 일반 행위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위로서 언어를 다루었으며, 언어 행위와 관련된 동기를 탐구하거나 언어 행위가 다른 행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2) 구조주의 언어학에 근거를 둔 언어학적 접근 방식

- 어떤 문장이 다른 문장과 같은 종류의 문장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문장 간의 관련성 문제나 문장의 문법성을 따지는 연구를 실시한다.

2)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 이후의 심리언어학

(1) 내적 체계(internal system of speaker) 연구

-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은 심리언어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촘스키 이전의 언어학,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경험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실제 발화 자료를 분석하여 언어의 구성 요소와 규칙 체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 촘스키는 인간의 내면, 즉 언어를 생성하는 ‘언어 능력’, ‘언어에 대한 지식’ 혹은 언어와 관련된 내적 체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2) 생득주의(innatism or nativism)

- 촘스키는 기존에 자극, 반응과 강화, 모방, 반복을 통해 언어가 습득된다는 행동주의자들의 언어 습득 이론에도 반론을 제기하였다.
- 아동이 주변 어른들이 제공하는 언어에서 보거나 듣지 못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제각각 다른 언어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6~7세 정도 나이가 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모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에도 주목하였다.
-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촘스키를 비롯한 인지주의 언어학자 및 심리언어학자들은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인간의 언어 습득 기제를 설명하는 새로운 관점인 ‘생득주의’를 정립하였다. (*심리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성과 중 하나)

II. 심리언어학의 연구 방법과 연구 분야

1. 연구 방법

- 인간의 행위(behavior)와 경험(experience)은 구별하기 어렵다.
- 화자의 발화 행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언어의 본질적 실체는 감각 기관으로 지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인 실험 방식이 필요하였다.

1) 실험의 예시

- 언어 구조가 운용되는 방식을 밝히기 위한 실험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실험 1. 'barket'과 'lanket'

① 실험 방법

- 언어 구조에 대한 규칙이 인간의 언어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피실험자의 왼쪽 귀에는 'barket'을 들려주고, 오른쪽 귀에는 'lanket'을 들려 주었다.

② 결과

- 실험자의 많은 수가 'blanket'을 들었다고 답했다. 연속적이지 않은 'b'와 'l'을 영어에 존재하는 음운 연쇄인 'bl-'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결론

- 음소를 지각하는 수준에서부터 언어 구조에 대한 규칙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실험 2. 딸깍 소리 실험(click experiment)

① 실험 방법

- 통사 구조와 의미가 언어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하였다.
- 피실험자에게 한 문장을 들려 주면서 * 표시 부분에 딸깍 소리를 내었다.

② 결과

- 주어진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로 일치적으로 나뉘는 부분에 소리가 들어간다고 인식하였다.

③ 결론

- 실험을 통해 문장의 주요 부분들에 관한 문법 기술이 정신적 실재와 대응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3) 실험 3. 음소 복원 효과

① 실험 방법

- 음소의 음향적 신호가 백색 소음이나 기침 소리 등으로 누락되어도 맥락을 통해 단어 내의 음소를 지각 해내는 것을 밝힌 실험이다.
- Warren(1970)에서는 위의 문장을 녹음하여 들려 줄 때 'legislatures'의 첫 번째 /s/자리에는 기침 소리를 대신 넣었다.

② 결과

- 대부분이 legislatures라는 단어를 문제 없이 지각하고 의미를 파악했다고 답하며 기침 소리가 난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③ 결론

- 사람들이 '실제로 들은 소리'보다는 '들었다고 생각한 소리'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심리언어학 연구의 본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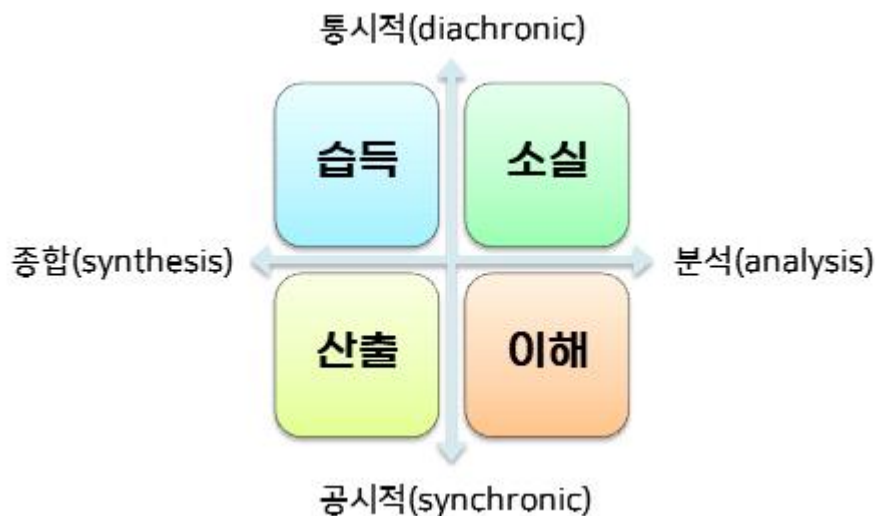
- 이승복(1994)에서는 심리언어학(언어심리학)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한다.

“직접 들여다 보고 경험할 수 없는 언어 구조와, 과정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학에서 원자 구조에 관한 이론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작업이다. 원자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물리 현상으로 유추해 보는 원자 구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물질의 성질에 관해서 설명해 보고, 예언할 수도 있다. (중략) 언어의 연구도 밖으로 드러나는 언어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모습을 꿰뚫고 뿌리가 되는 보다 깊은 실체로 들어가야 한다. 언어심리학에서 언어 수행과 언어 능력을 구별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2. 연구 분야

1) Scovel의 핵심 연구 분야

(그림) 심리언어학의 주요 연구 분야(Scovel, 1998)



(1) 언어습득과 언어소실

- 언어의 습득과 소실은 개인 언어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통시적인 측면의 언어변화)

① 언어 습득

-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이 기존에 배워 온 내용을 종합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② 언어 소실

- 인간 내부에 확립되어 있던 언어가 분해되고 붕괴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누구도 의도하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언어의 분해와 분석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언어산출과 언어이해

- 언어의 산출과 이해는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 어느 시점에서든 관찰되는 현상이다.(공시적 측면에서의 심리언어학적 활동)

① 언어 산출

- 언어 구조의 부분들을 통합하여 문장이나 텍스트로 구성해내는 과정을 거치므로 ‘종합’을 요한다.

② 언어 이해

- 수용된 발화를 해석해야 하므로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

2) 심리언어학자의 연구 목적(박경자, 1989)

- 언어 능력의 언어학적 기술인 ‘문법’이 심리적 실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를 밝힌다.
- 아동의 언어 습득이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쳐 습득, 수행되느냐를 규명한다.
- 언어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은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인간의 뇌가 관여하고 있는가를 밝힌다.
- 언어가 사고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전제할 때, 언어와 인지, 혹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밝힌다.

3) 심리언어학의 연구 주제(Bot&Kroll, 2010)

- 언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어 입력의 특성은 무엇인가
- 언어 발달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얼마나 제약을 받는가
- 말을 듣거나 텍스트를 읽을 때 단어들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 어떻게 문장과 텍스트를 이해하는가
- 어휘적 혹은 통사적 중의성은 어떻게 해소되는가
- 추상적 사고는 발화에 앞서 어떻게 문장으로 구조화되는가
- 뇌에서 언어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 L2 습득은 L1 습득과 다른가
- L2를 사용할 때 L1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 코드 스위칭(code switching)은 통제하는 규칙이 존재하는가
- 둘 이상의 언어 사용자는 어떻게 두 언어를 별개의 상태로 유지하는가
- 다수의 언어(multiple languages)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11주차 2차시 심리언어학 2 : 언어습득과 언어이론

I. 모국어 습득론

1.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1)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개관

(1) 행동주의

- 철학적 근거를 경험주의(empiricism)에 두며 20세기 초 러시아의 이반 파블로프(Ivan Pavlov)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키우던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발표한 조건반사(conditioned theory)에 의거한 사상으로 20세기 전반부에 걸쳐 시대를 대표하는 사고의 틀의 역할을 담당한다.

(2) 인지주의

- 철학적 뿌리는 생득설(生得說)에 두는 인지주의는 1950년대 말에 일어난 시대를 대표하는 사고의 틀의 전환(paradigm shift)의 결과로 20세기 후반부는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사고의 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언어습득

(1)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언어습득



* S : Stimulus(자극)

* R : Response(반응)

* Black Box :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인간의 두뇌

- S(자극)는 학습자의 목표 언어(target language), 즉 언어 학습자가 습득하고자 하는 언어이다.
- R(반응)은 언어 학습자의 학습을 통한 언어 습득의 결과이다.
- 행동주의자들의 과학적 추론은 오로지 연구 대상의 직접 관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언어 학습자의 두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대상은 과학적 추론 과정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 Black Box라고 표현한 이유
- 언어는 습관적 행동(habitual behavior)이란 정의를 내리고, 언어는 습관 형성(habit formation)이며 이런 습관 형성은 모방(imitation)과 강화(reinforcement)를 통한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였다.
- 언어 습득에서 실수는 나쁜 습관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한다.

(2) 인지주의적 관점에서의 언어 습득



- * S : Stimulus(자극)
- * R : Response(반응)
- * Human Brain : 언어 학습자의 두뇌

- 인지주의자들은 언어 습득 과정에서 행동주의자들이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제한 언어 학습자 혹은 언어 학습자의 두뇌를 포함시켰다.
- 언어 습득 과정에서 언어 학습자(언어 학습자의 두뇌)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었다.
- 인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언어란 창조적 정신 활동(creative mental act)이며 언어 습득 과정은 우리의 두뇌에 내제되어 있는 언어 습득 장치와 우리가 습득하고자 하는 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환경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 언어 학습자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가설실험에 의거한 시행착오를 통하여 언어를 습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들(errors)은 필연적인 것으로 이 오류들은 언어 학습자가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를 능동적으로 배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표시(positive signs)로 규정하였다.

2. 모국어 습득

- 아동의 언어 습득은 주로 발달심리학의 연구 주제이다.
-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이 한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언어 출현의 기점으로 본다.

1) 언어 이전 시기

- 대략 3개월째가 되면 일련의 부드러운 모음 소리(cooing, 쿠잉)를 낸다.
- 6개월이 지나면 웅알이(babbling)를 한다. 3개월째의 모음 소리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고 음성학적으로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소리를 낸다.
- 8~9개월이 되면 일련의 연속적인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소리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실제로 내는 소리와 유사한 웅알이를 하게 된다.

2) 언어 시기

(1) 첫 단어 발화

- 아기는 울음소리와 웅알이 시기를 거쳐 언어 발달의 첫 신호인 단어 발화에 이른다.
- 아기마다 어떤 단어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처음 말하는지는 다르지만 생후 약 1년 무렵(10~13개월)에 첫 단어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아기들의 첫 단어는 동작어나 상태어보다는 아기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많다.

[예시]

✓ '엄마', '아빠', '맘마', '이거'

- 이 시기 아기들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어휘보다 약 네 배 정도 많은 어휘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2) 한 단어 시기

- 아동의 언어 발달에서 한 단어로 의사 표현을 하는 시기이다.

[예시]

✓ '엄마' (엄마 어딴지? 엄마! 왔네. 엄마 여기 보세요 등)

- 초기의 문장은 고도로 맥락에 의존한 단일어 발화문의 성격을 띤다.

(3) 두 단어 시기와 이후

- 대략 16~18개월 사이에 아이는 두 단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두 단어 시기라고 한다.
- 여기서 보통 2개월이 지나면 세 단어로도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된다.
- 아동은 한 단어를 더 말할 수 있게 되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되며, 이는 의사소통 능력에 큰 발전을 가져온다.
- 두 단어 발화에는 단어들 간의 일정한 관계가 나타난다.
- 이 시기의 언어는 아동의 문법 습득과 발달이 일어나는 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 두 단어 시기가 지나면 아동은 수식어와 접속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3~4세가 되면 대명사, 조사, 형용사, 부사 등을 사용하고 복문을 생성할 수 있다.
- 4~5세가 되면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고, 문장 구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 언어 규칙을 사용할 수 있다.

II. 제2언어 습득론

1. 제2언어 습득론이란?

-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하나의 언어를 이미 구사할 수 있는 성인, 혹은 아동이 새로운 언어에 대한 지식과 사용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제2언어 습득론은 모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습득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1) 대조 분석 가설

- 스키너는 언어를 '언어 행동(verbal behavior)'이라 보고 인간의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자극, 반응, 강화를 거쳐 습관화된다고 보았다.
-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제2언어는 기존의 언어 습관인 모어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
- 행동주의의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새로운 언어 습관(목표어 규칙)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본다.
-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가 유사할수록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고 새로운 습관이 쉽게 형성된다. → 대조분석 가설의 핵심!
- 대조 분석 가설은 학습자 변인이나 학습 환경, 습득의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의 대조라는 언어학적 접근을 취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2) 보편 문법

(1) 보편 문법의 의미

-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저마다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언어를 면밀히 관찰하면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언어의 공통점]

- ✓ 대부분의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주어와 술어가 존재한다.
- ✓ 문장의 구성 성분을 배열하는 데는 일정한 순서의 규칙(어순)이 있다.
- ✓ 언어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발화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이들의 관계를 시제(tense)로 나타낸다.

(2) 제2언어 습득과 보편 문법

- 보편 문법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제2언어 학습자들이 학습 과정에서 제공된 입력이나 학습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재화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 숙달된 학습자들에게 내재된 통사 구조에 관한 복잡한 지식이 교실에서의 수업만으로는 얻기 어렵다는 데 주목하였다.

“학습자가 제2언어 문법 체계를 성공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 바로 보편 문법이 존재하는 증거이다.”

3) 크라센의 제2언어 습득 가설

- 크라센은 20세기 후반에 여러 논문과 저서를 통해 제2언어 습득에 관한 많은 이론을 남겼다.
- 크라센은 아동의 모어 습득과 마찬가지로 제2언어 습득의 기제도 생득성이 있다고 보았다.

(1) 습득-학습 가설

- 습득(acquisition)은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언어 체계를 구조화하는 것으로 모어를 습득하는 아동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들이 모어를 배울 때처럼 무의식적인 과정이며, 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언어 공동체 같은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 학습(learning)은 학습자가 언어 형태에 관심을 갖고 언어 규칙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과정을 의식하는 과정이다. 언어를 논리적으로 알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적인 과정이며, 교실과 같은 환경에서 규칙과 형태를 배우고 반복, 암기하는 과정이다.
- 크라센은 성인이 목표어를 이용하여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학습자들이 그들이 배운 규칙에 대해 언어 형식에만 집중하고 자기 발전에 지나치게 의식적 주의를 기울여 실제로는 전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모니터 가설

- 모니터 가설 또는 감시 가설은 ‘습득한 지식’과 ‘학습한 지식’의 역할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 크라센에 따르면 모니터링(Monitoring), 즉 감시는 학습에는 관련되지만 습득과는 관계가 없다.
- 모니터란 자신의 발화를 점검하는 것, 발화를 교정하고 수정하는 도구이다.
- 크라센은 학습자가 언어의 유창한 수준에 일단 오르고 나면 자신의 발화를 감시 또는 수정한다고 보았다.
- 이 가설에 따르면 발화의 생성은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 이 문장이 정확한지 규칙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수정하게 하는 것이 학습한 지식이다.
- 이 가설에서의 핵심은 학습된 지식은 습득된 지식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오로지 무의식적인 습득 과정을 거친 지식만이 발화 생산의 재료가 되며, 의식적 학습을 거친 내용은 발화 과정에서 단지 모니터 역할만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통해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자연적 순서 가설

- 1970년대 초반 Brown(1973)의 아동 제2언어 습득 연구 등 수많은 연구를 통해 언어 습득에는 보편적 순서, 자연적 순서(natural order)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크라센과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 영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이 영어 형태소를 일정한 순서로 습득한다고 밝혀졌다.
- 이 연구에서는 특히 제2언어 학습자들이 문법 형태소를 ‘학습한’ 순서와 그것을 ‘습득한’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학습과 습득이 서로 다른 인지적 과정이라고 확신하였다.

(4) 입력 가설

- 크라센은 학습자의 언어 구조 습득을 돕는 것은 ‘이해 가능한 입력’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이란 ‘현재 학습자의 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입력’을 말하며 기호로는 ‘i+1’으로 나타낸다.(* i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 상태’)
- 입력가설(input Hypothesis)은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지식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언어 입력을 제공받을 때, 입력의 대부분을 이해하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언어의 발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 크라센이 말한 ‘+1’, ‘상회’의 정도는 학습자가 특정 상황이나 맥락, 그리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동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이다.
- 이러한 가설에 근거하여 크라센은 말하기 학습 초기의 교실에서는 ‘가르치지 말 것’을 권하고, ‘침묵기(silent period)’를 거쳐야 하기에 말하기를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

- 정의적 여과 장치(affective filter)란 학습자의 동기, 욕구, 태도, 감정 상태에 기초하여 입력 언어를 잠재의식적으로 걸러내는 장치를 말한다.
- 크라센은 언어 습득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학습자의 심적 부담이 적고, 학습에 대한 방어적 태도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 협조적이고 안정적인 교실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들이 더 많은 언어 요소를 습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언어 교실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 정의적 여과 장치의 개념은, 같은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습득에 성공하는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었다.
- 크라센의 가설을 통해 학습 상황에서 정의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제2언어 습득론의 연구 주제

1) 학습자 요인

- 학습자들의 나이, 지능, 동기와 태도, 성격, 적성 등과 같은 학습자 요인(learner factors)이 제2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1) 나이

- 결정적 시기 이전에 제2언어에 노출된 학습자는 그 이후에 노출된 이들보다 목표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결정적 시기가 모어 습득에는 중요하지만 제2언어 학습, 특히 성인 학습자의 제2언어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인 학습자는 생물학적인 기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습 능력(learning system)에 의존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간다고 주장한다.

(2) 동기와 태도

- 동기(motivation)는 어떤 일을 하려는 의도와 목표지향적 행위를 만들고 유지하는 동력을 말한다.
- 태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타인에 대한 생각,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주요 배경이 된다.

- 제2언어 교실에서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목표어 문화를 포함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목표어 문화와 사용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명시적 학습과 암시적 학습

- 명시적 학습이란 의식적 자각과 의도를 지닌 학습, 의도적 학습이다.
 - 암시적 학습이란 의식적으로 집중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학습, 우연적 학습이다.
 - 크라센의 가설에서는 언어의 습득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명시적 학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실에서 암시적 학습에만 의존할 경우 ‘형태를 소홀히 다루는 점’, ‘자신들이 발생시킨 오류를 명확히 수정해 주지 않는 점’ 등에 대해 학습자들이 불만을 나타낼 것이다.
- ➡ 룡을 중심으로 한 언어 연구자들은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을 고안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의미 중심의 수업 중에 발견하는 문법 구조나 어휘 등에 관심을 돌리고 그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 ➡ 성인 학습자 대상 수업에서 언어 지식을 전달할 때는 암시적 방법과 명시적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하고 있다.

12주차 1차시 사회언어학 1

I. 사회언어학의 개념

1. 사회언어학의 성격

-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이란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중점을 둔 응용언어학의 하위 분야이다.
- Hudson(1980)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의 언어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 Milroy&Milroy(1990)는 '실제 화자들이 사용할 때의 사회적 문맥 및 상황적 문맥 속에서의 언어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하였다.
- 사회언어학은 사회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통시적 관점에서는 언어의 변천을 연구하며, 공시적 관점에서 어느 특정한 순간의 언어 사용 양상 혹은 언어의 변이를 연구한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은 '언어의 변이와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언어학의 성립

- 사회언어학이라는 용어는 커리(C. Currie)의 논문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학문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 1960년대에는 저명한 사회언어학자인 라보프(W. Labov), 피시먼(J. Fishman)의 연구물들이 출판되면서 사회언어학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 영국에서는 사회언어학이 기능주의 언어학과 함께 언어학 연구의 새 패러다임을 열었으며, 같은 시기 미국에서는 다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가 융성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수민족의 언어, 흑인 영어 등 사회방언에 나타나는 규칙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 20세기의 이러한 발전은 그 이전의 학문적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 유럽의 사회언어학 발달

- 유럽에서는 17세기부터 언어와 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해 왔다.
- 사회언어학이 헤르더와 훔볼트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훔볼트는 '언어가 사회의 모습을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독일 언어학의 근간이 되었다.
-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다른 사회 규범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게, 언어 역시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메이에(A. Meillet)로 이어져 훗날 '프랑스 언어사회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 메이에의 언어학과 사회학을 접목시키고, 언어의 사회적 특성과 언어 변화의 사회적 요인의 본질을 구명한 최초의 학자가 되었으며, 이후 사회언어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미국의 사회언어학 발달

(1) 휘트니(D. Whitney)

- 언어의 규칙을 만드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여 사회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또한 그는 '말(speech)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회 소유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나눠 주기 위해서다. 개인의 사회적 욕구, 사회적 본능이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 휘트니는 당시 유행하던 실증자연주의 언어학자들의 주장인 '언어는 생명체로서 사회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반박하고 언어와 사회의 종속적 관계를 중시하며 사회언어학의 기틀을 닦았다.

(2)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

- 사피어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언어인 누트카어 연구를 통해 ‘듣는 이가 아이들인지 곱사등(척추장애인)인지 애꾸인지에 따라 화자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야나어에서는 남성어와 여성어가 구별되어 쓰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3) 방언 연구와 사회언어학

- 사회언어학의 초기 연구는 지역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연구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 언어 사회가 속한 지역의 차이가 방언의 분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발견되었으며, 방언의 구별에 언어 사회의 차이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도 주목되어 왔다.

(1) 라프(K.M. Rapp)

- 1841년 논문에서 독일의 어느 지역에서는 지리적 조건에 의한 언어 차이보다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 방언 차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 베게너(P.Wegener)

- 1880년대 논문에서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변종을 강조하여 넓은 의미의 ‘방언(Mundart)’, ‘지역방언(Umgangssprache)’, ‘표준어’로 분류하였다.

(3) 고샤(L.Gauchat)

- 1905년 어느 시골 마을에서의 방언 연구 결과에서 세대 간 음성 실현과 음성 변화의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언어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미국 및 캐나다 언어지도

- 이 연구에서는 사회언어학적 배경에 따른 언어 제보자 구분을 실시하였다. 언어 사용자들을 1~3 유형의 세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노년층과 중년층으로 하위분류하여 총 여섯 계층으로부터 언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언어 사용과 사회적 계층의 관계를 밀접하게 적용시킨 예가 된다.

II. 사회언어학의 연구 분야

1. 사회언어학의 연구 영역

1) 라보프의 사회언어학 3대 영역

(1) 언어사회학(The sociology of language)

- 대규모 사회적 요인을 다루는 분야로서 소수민족의 언어, 이중 언어사용, 언어의 표준화, 신생 국가의 언어 계획 등의 실용적, 거시적 문제를 다룬다.

(2) 말하기의 민족지학(the ethnography of speaking)

- 언어에 대한 기능적 연구를 지향하는 영역으로 특정 문화 안에서의 언어 사용 유형, 언어사건(speech event)의 형식, 화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을 선택하는 규칙, 화·청자, 주제, 배경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연구들이다. ‘말하기 민족지학’은 하임즈(D.Hymes)의 명칭을 따랐다.

(3) 언어학(linguistics)

- 일반언어학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여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에 걸쳐 언어 규칙을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연구를 말한다. 라보프는 언어학을 사회언어학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했다.

2. 사회언어학의 연구 주제

1)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1) 지역방언(방언 혹은 사투리, dialect 혹은 the vernacular)

- 지역방언은 지역적 차이에 따른 언어 변이를 일컫는다.
- 영토가 넓을수록 방언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방언간의 차이도 크다.
- 한 언어의 방언들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의미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예시]

✓ 부추 : 정구지, 부자, 불이, 불구, 비자, 세우리, 솔, 염지 등

- 방언의 사용은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애 외에도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심리적인 경계를 형성하기도 하여 나와 남을 구별 짓기도 하며, 더 나아가 나와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 내지는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다.
- 지역방언은 언어, 즉 어휘와 표현을 풍요롭게 하고 나와 다른 말씨를 쓰는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며, 같은 지역방언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 각별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 학문적으로는 지역방언이 언어의 옛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언어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2) 사회 방언

- 사회방언은 사회 계급, 연령,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방언이다.
- 언어 사용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언어 변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라보프를 비롯한 사회언어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계층이나 직업, 혹은 성별, 연령 등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 사회 방언은 구어에서는 발음이나 억양으로 구별되기도 하고 특정 어휘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특히 소수 집단)에 대해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 내 구성원들과만 배타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인 경우가 많다.
- 한국어에서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급식체나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된 야민정음 등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 은어(隱語, jargon)는 대표적인 사회 방언이다. 주로 축약과 비유의 방법으로 생성되는 은어는 이를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세대간, 직업간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하여 은어 사용이 권장되지는 않는다.

2) 다언어 사회

- 하나의 언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국가나 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언어를 공식적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
- 경우에 따라 국가나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더라도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다수의 언어가 자발적으로 선택되어 쓰이는 경우도 있다.

〈표〉 다언어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국 가	언 어
아프가니스탄	파슈토(Pashto)어, 다리(Dari)어
벨기에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볼리비아	스페인어, 아이마라어
보츠와나	츠와나어, 영어
카메룬	프랑스어, 영어
캐나다	프랑스어, 영어
사이프러스	그리스어, 터키어
핀란드	핀어, 스웨덴어
아이티	아이티크레올어, 프랑스어
인도	힌디어, 영어
아일랜드	아일랜드어, 영어
이스라엘	히브리어, 아랍어
룩셈부르크	프랑스어, 독일어
마다가스카르	프랑스어, 마라가시어

- 다언어 사회는 사회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수에 따라 다이글로시아와 폴리글로시아로 나눌 수 있다.

(1) 다이글로시아

- 다이글로시아(diglossia)는 사회언어학자인 퍼거슨(C.Ferguson)이 1959년에 처음 사용했으며, 그는 한 언어의 두 가지 다른 형태가 한 언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상을 다이글로시아라고 규정하였다.
- 일반적으로 다이글로시아 상태를 이루는 두 언어는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장소와 상황이 명백히 나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폴리글로시아

- 다이글로시아와 같이 언어의 두 가지 변종, 혹은 두 언어가 관련되는 경우도 있으나, 한 언어 사회에서 세 개 이상의 언어 변종, 혹은 각기 다른 언어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폴리글로시아(polyglossia)라고 부른다.
- 말레이시아는 대표적인 폴리글로시아이며 한 사회 내에서 중국어, 말레이어, 영어 세 언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 다언어 사회 내 언어 간의 관계와 지위는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다.

[예시]

✓ 영국의 영어와 프랑스어

12주차 2차시 사회언어학 2

I. 지역방언과 사회방언

1. 언어 변이와 지역방언

-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언어의 변이(variation)라고 한다.
- 언어 변이의 다른 이름은 방언(dialect)이며, 사회적 신분에 따른 언어 변이에 대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지역적 차이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일컫는 데 쓰인다.
- 어느 나라든지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도 아니라면 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며, 지역에 따라 방언이 다르면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한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말의 형식이 필요한데, 그 필요를 표준어를 지정함으로써 해결한다.
- 한 나라에 표준어가 있고 동시에 방언이 존재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 표준어는 특별히 훌륭한 언어가 아니다. 언어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여러 방언들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의 방언으로 봐야 한다.
- 그러나, 표준어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공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2. 사회방언과 은어

1) 사회방언

- 언어의 변이는 화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도 나타나는데 이를 사회방언이라 부르며, 언어 사용자의 연령, 성, 신분과 계층, 직업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의미한다.
- 사회방언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 1960년대 라보프(Labov)가 미국 영어에서 모음 뒤의 ‘r’ 탈락 현상을 조사한 것이 있다.
- 조사 결과 섹스5가(상류) 30%, 메이시스(중류) 41%, 에스클라인(하류) 82%를 보였다. 즉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r’을 탈락하여 발음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
- 사회 방언은 어휘의 차이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휘의 차이의 극단이 은어(jargon)이다.

2) 은어

- 은어란 어떤 계층이나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말이다.

(1) 통신언어

[예시]

- ✓ 섬(시험), 잼없(재미없다), 토울(토요일), 글초(그렇지요), 잠수하다(말을 하지 않다), 멜(메일), 번개(통신하다가 실제로 만남) 등

(2) 어절의 첫 음절을 모아서 만든 말

[예시]

- ✓ 정줄놓(정신줄을 놓았구나),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열폭(열등감 폭발) 등

(3) 외국어, 외국어와 한국어의 합성어

[예시]

- ✓ 빼박캔트(빼도 박도 못한다), 케바케(case by case),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3. 존대법 : 힘의 역학

-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말이 기술하는 대상 사이의 힘의 관계에 따라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말의 양식이 달라지는데 이를 존대법으로 부른다.
- 언어마다 존대법을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다.
- 우리말은 존대법이 세밀하게 발달한 언어로, 대화 속에서 힘의 역학 관계에 따라 적절한 존대 표현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지해 갈 수 있다.

1) 화자와 청자의 관계

- 화자가 청자보다 연령이나 지위가 위라면 반말을 사용하지만 그 반대라면 상대존대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우리말에서 상대존대는 동사나 형용사의 종결어미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대우하는 문법적 방법이다.

[예시]

- ✓ 비가 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 ✓ 비가 온다. (어른이 아이에게)
- ✓ 비가 와요. (아이가 어른에게)
- ✓ 비가 와. (친구 사이에)

- 화자와 청자의 역학 관계가 불분명한 공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습니다’의 존대 표현을 사용한다.
- 존대 표현을 사용하다가도 힘의 역학 관계가 밝혀지면 표현 방식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다.
- 상대존대의 방법을 결정하게 만드는 요인에는 나이, 직책, 친소 관계, 공적 혹은 사적 상황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화자가 그것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표현 방법을 정하는 일은 간단한 것은 아니다.
- 불확실한 힘의 역학 관계를 언어가 확실히 결정하여 드러내는 기능이 있으므로, 잘못된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2) 화자와 언어 기술 대상과의 관계

(1) 주체존대

-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할 때와 자기의 아들에 대해 말을 할 때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

[예시]

- ✓ 아버지께서 키가 크십니다.
- ✓ 아들이 키가 큼니다.

- ‘-께서’와 ‘-시’는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자기 아버지를 존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법적 요소이다.
- 문장이 표현하는 사건의 주체를 화자가 높이는 방법을 주체존대라고 한다.

(2) 객체존대

- 주어가 가리키는 문장의 주체가 목적어(직접/간접)가 가리키는 객체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특별히 쓰이는 단어들이다. 이것을 객체 존대라고 한다.

[예시]

- ✓ 선생님이 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 ✓ 학생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 여기에서 ‘-에게’ 대신에 ‘-께’, ‘주다’ 대신에 ‘드리다’를 쓰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 상대존대가 동사의 종결어미를 통하여, 그리고 주체존대가 선어말어미 ‘-시-’를 통하여 보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데 반하여, 객체존대는 동사의 어미로써 표현되지는 않는다.

3) 어휘

- 문법적인 존대법은 아니지만 단어가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그 단어의 적절성이 결정될 수 있다.

[예시]

- ✓ 아버님, 진지 드십시오.
- ✓ #애야, 진지 먹어라.

- ‘노엽다’는 ‘화나다’와 같은 뜻이지만 주로 윗사람에게 적용된다.

4) 호칭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과 칭자를 지칭하는 이인칭 대명사도 힘의 역학 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

[예시]

- ✓ 선생님이 학생에게 : “김군, 요즈음 자네 무슨 공부를 하나?”
- ✓ 학생이 선생님에게 : “선생님, 요즈음 무슨 일 하세요?”

- 선생님은 학생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이인칭 대명사로 ‘자네’를 쓸 수 있지만 학생은 그럴 수 없다.

[예시]

- ✓ ??선생님, 요즈음 너/당신/그대 무슨 일 하세요?

- 우리말의 이인칭 대명사는 그 쓰이는 환경이 매우 제한을 받으므로 적절한 쓰임이 매우 어렵고, 이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 단, 칭자를 지시하는 표현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인칭 대명사 목적어를 생략하는 것이 어색하고, 일반 명사를 이인칭 대명사처럼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 ✓ ?? 그 학생이 그대를/너를/당신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 ✓ ?? 그 학생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 ✓ 그 학생이 (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존대법과 호칭의 문제는 언어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임을 잘 보여준다.

II. 한국인의 방언에 대한 태도

1. 1980년대

- 이정민(1981)은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연구를 통해 각 방언 사용자가 자기 방언에 대해 가지는 느낌과 다른 방언에 대하여 가지는 느낌을 조사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 자기 방언에 대해서는 대개 긍정적인 느낌을 갖지만 타도 방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 지방 방언의 경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자기 방언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다.
- ✓ 표준어를 제외하면, 타 지역방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느낌이 별로 없는 것을 넘어서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2. 2000년대

- 강범모(2005)는 서울 및 지방 180명의 대학생들로, 현재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자기 사용 방언을 포함한 각 방언에 대하여 14가지의 느낌의 기술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중 하나를 택하게 했다.

[연구결과]

- ✓ 표준어 사용자들은 자기 방언을 ‘듣기 좋다, 상냥하다, 점잖다, 믿음직하다’ 등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차갑다, 무미건조하다’라는 부정적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 영남방언 사용자들은 다른 방언 사용자에 비하여 ‘듣기 좋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다.
- ✓ 호남방언 사용자들은 ‘듣기 좋다, 정겹다, 상냥하다, 귀엽다, 믿음직하다, 씩씩하다’ 등 자기 방언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 ✓ 충청방언 사용자들도 비슷하지만, ‘답답하다, 촌스럽다’ 등 부정적인 느낌도 가지고 있다.

3.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연구의 비교

- 1980년대 초의 젊은이(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방언에 대한 태도와 2003년의 대학생이 가지는 방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자기의 방언에 대한 긍정적 느낌은 과거와 현재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그 정도가 좀 더 커졌다.
- ✓ 과거에 표준어 이외의 방언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났었다. 현재의 조사 결과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약화된 것을 보인다.

13주차 1차시 언어와 문학 : 텍스트 장르와 문체

I. 시의 언어

1. 운율

- 언어학적 이해는 문학적 이해의 전제조건이다.
- 문학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도 운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문(시)은 언어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고대로부터 시와 산문의 중요한 차이는 리듬(rhythm) 운율의 유무이다.
- 반복적으로 어떤 언어 형식이 나타나는 리듬이 음악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 한 시행의 운율 형식을 율격(meter)이라고 하는데 언어에 따라 그 언어의 시에 적합한 율격이 다르다.

강세가 중요한 언어	✓ 영어와 같이 강세가 중요한 언어에서는 강약에 따른 리듬이 시에 반영됨
음의 길이가 중요한 언어	✓ 그리스어, 라틴어와 같이 음의 길이가 중요한 언어에서는 음장이 시의 율격을 결정함
성조가 있는 언어	✓ 중국어는 성조가 있는 언어로, 중국의 율시는 성조의 패턴으로 정형화 됨
강세나 음장이 두드러지지 않은 언어	✓ 강세나 음장이 두드러지지 않은 언어들은 고정된 음절수를 이용한 율격이 시에 사용됨

1) 한국어의 율격(‘시조’)

- 우리나라에서 고려 말 이후 생겨난 시조는 음절수를 이용한 율격을 사용한다.
- 시조는 3장 6구 45자 안팎의 음절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전형적으로는 초장 3-4-3(4)-4음절, 중장 3-4-3(4)-4음절, 종장 3-5-4-3음절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의 변형이 가능하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2) 영어의 율격

- 영어는 강세가 중요한 영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세가 있고 없음, 강약의 배열이 율격을 결정한다.
- 약강격(imabic), 강약격(trochee), 강약약격(dactyl) 등의 다양한 강약의 배열이 있다.
- 강약의 기본 단위가 음보(foot)인데, 하나의 시행에 몇 개의 음보가 있는가에 따라 이음보(diameter), 삼음보(trimeter), 사음보(tetrameter), 오음보(pentameter) 등이 있다.
- 언어의 형식이 율격의 형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영시의 변천에서 잘 나타난다.
- 고대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어두에 강세가 왔다. 당시의 영시는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강약격의 율격이 지배적이었으며, 동시에 음절의 처음 부분의 자음의 반복을 말하는 두운(alliteration)이 많이 사용되었다.
- 11세기 이후 프랑스인들이 영국을 점령하고 프랑스어가 지배계급의 언어가 된 후 영어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아 어 말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 많이 포함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약강격의 율격이 많이 쓰이고, 각운이 중요하게 되었다.

2. 대중가요의 운율

- 한시나 영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각운이 현대의 대중가요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I took my troubles down to Madame **Ruth**
 You know that gypsy with the gold-capped **tooth**
 She's got a pad down on Thirty-Fourth and **Vine**
 Sellin' little bottles of Love Potion Number **Nine**

- Love Potion No.9(영화 '태양은 없다' 삽입곡) -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아빠 마음이 아파

- 왁스(Wax), 오빠 -

II. 은유

1. 문학적 은유

1) 은유의 개념

-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 속에서, 일반적 산문 속에서 우리가 '매우 문학적이다'라고 간주하는 표현 중에는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많다.
- 은유(metaphor)는 두 사물 사이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원래 산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대신 축자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의 참신성을 추구하는 현상이다.

2) 은유의 예시

(1) 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 저어 오오.
 나는 ... 그대의 **벚전**에 부서지리다.

- 김동명, '내마음' 중 -

➡ 사모하는 입을 향한 나의 마음(정신)을 다가올 수 있는 호수(구체물)에 비유한다.

(2) 대중가요

- 대중가요에도 은유가 나타나는데, 아래 가사를 보면 비와 그리움, 기억, 아픔이 서로 연결되는 은유가 나타난다.

내민 두 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가득 고이는 **그리움** 나의 맘에 흘러
 (중략)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 태연, 'Rain' 중 -

(3) 소설

- 소설에도 은유가 종종 나타난다.

1897년의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 안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색 옷에 멍기꼬리를 늘인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뛴다.

- 박경리, '토지' 중-

3) 사은유(dead metaphor)

- 은유적인 표현들은 그것이 처음 사용될 때의 참신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비유적 특성도 잃어버릴 만큼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은유라고 한다.

[예시]

- ✓ day's eye(낮의 눈) → 'daisy'(꽃의 이름)
- ✓ 컴퓨터의 마우스(mouse)

- 많은 신체어가 그것과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갖는 사물에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예시]

- ✓ 병의 목, 병의 주둥이, 책상 다리, 장롱의 발, 선풍기의 날개, 바늘귀
- ✓ neck of bottle, leg of desk, eye of a needle

2. 일상언어 속의 은유

-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환원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사은유와 다른 점은, 사은유가 어떤 사물에 대한 하나의 특정 표현에 관련된 현상이라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에 비견됨으로써 여러 가지 관련 표현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개념적 은유'
- 이러한 현상은 인지의미론에서 포착되고 강조되었다.

[예시]

- ✓ 사랑에 빠지다, 사랑에서 헤어나지 못하다(fall in love)
- ✓ 사랑을 받다, 사랑이 깨지다, 사랑을 키우다, 사랑의 열매
- ✓ 우리는 이제 시작이야.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 ✓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향로, 인생은 나그네 길.
- ✓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 (논쟁에서) 나는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웠다.

- 사랑과 인생 등 이외에도 많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구체적인 사물로 비유되어 일상언어에서 표현된다.
-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은 이러한 일상에서의 은유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환유

- 은유가 두 영역 사이의 유사성에 입각한 표현이 대치라면, 환유(metonymy)는 현실 세계 하나의 영역에서 두 사물 사이의 연관성에 기인한 표현의 대치이다.
- 환유는 하나의 사물 혹은 사물의 특성으로(즉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그것과 연관된 어떤 다른 사물 혹은 사물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 환유 중에서도 제유(synecdoche)는 일부로써 전체를, 혹은 특수한 것으로 일반적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부분-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사람'('손이 많이 필요하다') ✓ '머리/두뇌'-'사람'('머리 수가 모자란다, 뛰어난 두뇌를 초빙했다')
전체-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수면제, 독약'('약을 먹고 자살하다') ✓ '장미'-'장미꽃'('장미가 아름답다')
생물체-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고등어 반찬'('고등어를 먹다') ✓ '오징어'-'오징어 요리'('오징어가 맛이 있다')
건물-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행 기업'('은행이 수익을 냈다')
내용을 가진 실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책 내용'('그 소설책이 재미있다')
고유명사 대상- 일반명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버리'-'트렌치코트' ✓ '크리넥스'-'티슈'
창조자- 창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가'-'소설'('헤밍웨이를 읽었다') ✓ '작곡가'-'곡'('모차르트를 연주한다')

- 환유는 은유처럼 단어의 다의적 의미 확장에 큰 역할을 한다.
- 은유나 환유에 의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어 익숙해지면 비유로서의 힘이 사라진다.
- 환유는 특정 맥락에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예시]

✓ 저기 수영한테 갔다 줘.

- ➔ 지금까지 은유, 환유와 같은 비유의 기제는 문학 작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문학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 ➔ 단, 문학의 시, 소설, 수필 등과 일상 대화는 다른 종류의 텍스트이다. 텍스트의 산출의 목적 등 언어 사용 상황이 다른 여러 장르의 텍스트는 그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13주차 2차시 언어와 문학 : 텍스트 장르와 언어 특성

1. 만화의 언어

1. 만화의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

- 만화는 하나의 텍스트 장르로서 고유한 언어 특성을 가지고 있다.
- 만화는 그림과 기호와 말로 구성된다.

배경의 선	✓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함
얼굴의 빛금	✓ 부끄러움을 표현함
나선형 모양의 눈	✓ 혼란스러움을 표현함
전구	✓ 기발한 착상을 표현함
머리 위에 피어나는 김	✓ 감정의 격앙을 표현함

2. 만화 언어의 특징

- 만화의 말은 글로 표현되며 말풍선 속에 배치된다.
- 의성어나 감탄사가 말풍선 없이 제시되기도 한다.
- 만화의 언어는 정형화된 구어 형식으로 희곡이나 시나리오의 대사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 실제 대화에서는 말실수가 많이 일어나고 ‘어, 에’ 등 주저하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정형화된 구어인 희곡과 시나리오 그리고 만화의 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배제된다.
- 만화의 언어는 다양한 글자로 ‘보는’ 말이다.
- 일상 언어의 경우 표현적 정보는 음량, 억양, 휴지와 같은 운율적 요소에 의해 전달되지만, 음성이 없는 만화에서는 표현적 정보는 글자의 모양을 통하여 전달될 수밖에 없다.

[예시]

- ✓ 큰 소리 : 큰 글자
- ✓ 강한 어조 : 굵은 글자
- ✓ 공포의 느낌: 흔들리는 듯한 자형

- 독자들은 말풍선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 만화의 언어는 일정한 정형화를 거친 구어체 문어이다. 일상 언어에서처럼 불필요한 간투사(‘어, 음, 아’)가 없고, 문장의 완결성도 높다.
- 맞춤법의 틀을 따르며 희곡,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대화, 독백, 방백, 해설, 지문 등)
- 만화는 글로 적힌 상태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매체이다.
- 시나리오가 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인 반면 만화는 구어체이지만 소설과 마찬가지로 읽기 위해 쓰여진 텍스트이다.
- 희곡, 시나리오와 달리 의성어와 의태어가 배경 부분에 많이 쓰인다.

II. 텍스트 장르와 언어특성

1. 레지스터·장르·문체

- 언어에는 변이(variation)가 있다.
- 변이성 및 다양성은 언어의 사용 상황의 차이에 따른 언어의 다양성을 지칭하는 레지스터(register, 사 용역)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차이에 따르는 방언(dialect)으로 대별될 수 있다.

1) 언어의 사용 상황

- 레지스터와 관련되는 언어의 사용 상황은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

- ✓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남자, 여자, 아이, 어른 등)
- ✓ 언어 사용의 양식(구어, 문어)
- ✓ 매체(신문, 잡지, 전자출판물)
- ✓ 담화의 주제(인문, 사회, 자연, 일상생활)
- ✓ 언어 사용의 목적(정보전달, 예술적 감흥)

-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은 상호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다.
- 레지스터는 상황 요소의 모든 가능한 조합이 아니라, 사회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언어 사 용 상황에 대응하는 언어 혹은 텍스트의 종류라고 할 수 있다.

2) 장르(genre)

- 텍스트 유형에 관하여 쓰이는 용어인 장르(genre)는 언어 사용의 목적과 좀 더 깊은 관계가 있다.
- 예를 들어 소설, 시, 수필 등은 우리가 흔히 문학 장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 장르는 언어 사용의 상황적 요인에 따른 텍스트의 종류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3)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성

-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성은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일인칭, 이인칭 대명사는 대화의 텍스트에 많이 나타나지만, 설명을 위주로 하는 학술논문에는 많이 나 타나지 않는다.
- 과거 시제는 소설 등 서술적 텍스트에 많이 나타나지만, 주장을 표현하는 신문 사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나타난다.
- 따라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 특성만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텍스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4) 장르와 언어적 텍스트 유형

- 장르(레지스터)와 (좁은 의미)의 언어적 텍스트 유형이 전혀 별개의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 하나의 장르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말은 특정 언어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
- 장르와 언어적 텍스트 유형이 반드시 일대일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장르는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범 주이지만, 텍스트 유형은 순전히 언어적 특성으로 정의되므로 어떤 장르에 속하는 특정 텍스트가 그 장 르의 텍스트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언어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한 장르의 텍스트들이 상이한 텍스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
- 상이한 장르에 속하는 텍스트들이 비슷한 언어 특성들을, 즉 비슷한 문체를 가지고 있어서 동일한 언어 적 텍스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다.

5) 장르, 문체 및 유형의 연구

- 장르, 문체 및 유형의 연구는 질적인 연구와 양적인 연구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 질적인 연구란 소량의 텍스트를 연구자가 소량의 텍스트를 연구자가 정밀하게 분석하여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어적, 문체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많은 양의 텍스트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텍스트의 언어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양적 연구의 태도이다.
- 컴퓨터의 발전이 양적 연구에 대한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컴퓨터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

- 언어 연구를 목적으로 빈도를 추출하기 위한 코퍼스 구축의 과정, 빈도 추출 및 빈도를 기반으로 하는 통계 분석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강범모(1999)와 강범모 외(2000)의 연구

- ✓ 텍스트 장르 분류 및 수집 계획 확정 : 36개 장르를 설정하였다.
- ✓ 텍스트 샘플 수집 : 1000어절의 텍스트 샘플을 한 장르에 대하여 10개 이상 확보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334개 텍스트 샘플의 37만 어절 정도의 코퍼스를 구성하였다.
- ✓ 기본 태깅 : 형태소 분석을 하고 품사를 형태소에 부착하였다.
- ✓ 언어 특성 분석 정리 : 82가지의 언어 특성을 정하였다.
- ✓ 다변량 통계 분석 : 텍스트 샘플에서 언어 특성의 빈도를 자동적으로 추출해 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다변량 통계분석을 통하여 동일 텍스트에 함께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 언어 특성들을 묶었다. 요인분석의 결과로 추출된 인자, 즉 차원들을 기능적 관점에서 언어학적으로 해석하였다.

- 통계적 분석이 기반이 되는 언어 특성 빈도의 추출은 각 인칭대명사, 시제(현재, 과거) 등 82가지 언어 특성을 기반으로 하였다.
- 82가지의 언어 특성 빈도를 텍스트 샘플별로 추출하여 언어 특성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수행하면 몇 가지의 텍스트차원(인자)이 추출된다.
- 통계에서 요인분석이란 변수(언어 특성)의 분포를 요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차원 1 : 비형식적 상호교류 대 계획된 산출

이인칭 > 현재 > 의문 > 짧은 부정 > 감탄 >
 명령 > 문두부사 > 청유 > 추측 > 강조 > 약속 >
 연결-조건 > 심리형용사 > 일인칭

➡ 차원 1에서, 이인칭 대명사(‘너, 당신’ 등)가 그 특성(비형식적 상호교류)을 가장 많이 반영하며, 어떤 텍스트에 이인칭 대명사와 현재 시제는 같이 나타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보인다.

차원 2 : 실시간 발화 대 정보 전달

접속사-이유/설명 > 대용용언 > 접속사-담화 >
 담화확인표지 > 시간부사구절 > 연결-담화 > 축약-기타 >
 존칭-동사 > 접속사-등위/부가 > 겸비어 >
 주제어 > 과거완료 > 지시사

➡ 차원 2에서는 이유, 설명을 나타내는 접속사(‘그래서’ 등), 대용용언(‘그렇다’)이 그 특성(실시간 발화)을 가장 잘 드러낸다.

- ➡ 이러한 인자 분석의 결과는 언어 사용의 상황에서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기능을 반영하는 언어 특성들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해석된 것이다.
- ➡ 제1차원과 제2차원이 모두 구어의 언어 사용 상황과 관련이 있지만 상호적 상황(제1차원)과 실시간 상황(제2차원)이 분리되어 나타나며, 이것이 드라마의 대화 등 일종의 대화 모형과 실제 전사 자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차원 1
대화-소설 > 대화-드라마 > 대화-연극 > 한국어 대화집 > 만화 > 일상대화 > 전화대화-방송 > 동화 > 소설-역사...
차원 2
방송대화 > 전화대화-방송 > 일상대화 > 중계방송 > 한국어대화집 > 대화-드라마 > 대화-소설 > 강연/연설 > 대화-연극 > 만화 > ...

- ➡ 시와 소설과 같은 문학적 장르는 언어 사용 상황에 따른 수많은 텍스트 장르의 일부이다. 언어 특성을 반영하는 문체에 대한 언어학적 논의는 문학적 텍스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14주차 1차시 언어와 컴퓨터 : 전산언어학 1

I. 전산언어학과 인공지능

1. 전산언어학의 개념과 목적

1) 전산언어학의 개념

- 전산언어학(computational linguistics)은 컴퓨터로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기 위한 기초적, 응용적 연구이다.
- 언어의 처리는 컴퓨터가 언어를 이해하는 것과 컴퓨터가 언어를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산언어학은 언어학과 컴퓨터과학의 공통 영역으로, 언어학자와 컴퓨터과학자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2) 컴퓨터의 언어 처리에 언어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

[예시]

✓ 그 문제는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이였다.

- 컴퓨터가 이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산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지식이(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필요하다.

- ✓ 각 단어의 의미 지식
- ✓ 문장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 기술이라는 지식
- ✓ 누군가 앞에서 해당 문제를 이미 언급했다는 지식
- ✓ 하나의 문제가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식
- ✓ '큰 어려움'에서 '큰'의 의미가 '큰 건물'의 '큰'과 다르다는 지식
- ✓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추론적 지식)

- 사람은 이와 같은 언어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 문장을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컴퓨터로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언어 지식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도록(계산될 수 있도록) 컴퓨터 속에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 언어학자의 임무는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에서 전산학자와 협력하는 일이다.
- 언어 지식을 탐구하는 언어학자는 원론적으로는 모두 전산언어학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만, 전산언어학에 기여하려는 언어학자는 컴퓨터의 언어 처리를 염두에 두고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좀 더 엄격한 규칙을 세운다든지 혹은 때에 따라서 이론적 일관성보다는 책략에 의한 언어 처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고 볼 수 있다.

3) 언어 연구를 위한 전산언어학

- 컴퓨터로 하여금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 전산언어학의 목적이지만, 언어 연구를 위한 컴퓨터의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전산언어학이다.

언어자료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nguistic data processing' ✓ 언어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언어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
자연언어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ural language processing' ✓ 컴퓨터의 언어 처리에 중점을 두는 연구

2. 인공지능과 언어

- 전산언어학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연구의 일부이다.
-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즉 지각, 인식, 기억, 추론 등과 언어를 컴퓨터로 구현하는 연구 및 개발 분야 혹은 그 결과물, 즉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이다.
- 인공지능 스피커, 자동 예약 시스템, 연설 로버트 등 특히 자동번역 시스템은 명백히 인간의 언어가 관련되는 인공지능이다.
- 인공지능이 인간에 필적하는 언어 능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시]

✓ 2019년 한국어 실력을 측정한 시험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이상의 인공지능이 사람의 성인 수준의 실력을 보인 적이 있다.

- 이러한 최근의 발달은 딥러닝(deep learning), 즉 신경망(neural network) 학습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 인공지능은 문제 풀이나 게임을 넘어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보이는 창작에까지 이용될 여지가 있다.
- 인공지능 소설은 컴퓨터가 실제 여러 소설 속의 수백만 개의 문장을 학습하여 소설의 표현과 전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가능하다.(소설 전체를 보면 구성이나 표현에서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그 일부만을 보면 인공지능이 쓴 소설과 사람이 쓴 소설을 구별하기 힘들다.)

II. 자연언어처리

1. 전산음성학·전산음운론

- 언어의 음성적인 면을 처리하는 전산언어학의 하위 분야가 전산음성학(computational phonetics)과 전산음운론(computational phonology)이다.
- 전산음성학은 인공적으로 음성을 만들어 내는 음성합성(speech synthesis)과 음파로부터 음성을 인식하는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을 연구한다.
- 음성을 음소(음운) 층위의 추상적인 단위로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전산음운론이다.

1) 음성합성

- 1939년 발명된 보코더(vocoder)는 인간의 음성을 합성하는 최초의 기계로 인간의 발음기관의 모양과 비슷한 형태의 물리적인 기구였다.
- 음성합성이나 음성인식은 음성의 음향적 특성의 이해에 바탕에 두고 있다.
- 분절음의 기본적인 음향적 속성 이외에도 실제 자연스러운 발화체를 합성해 내기 위해서는 소리 이상의 층위와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다.

[예시]

✓ 영어의 'perfect' (강세에 따라 품사가 바뀜)

- 음성합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품사에 따른 발음의 차이를 반영해야만 한다.

[예시]

✓ 영수가 밥은 안 먹었다.

- 우리말에서는 '-은/는'이 대조적 주제(contrastive topic)현상이 나타난다.(기본적으로 영수가 밥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밥'이 다른 음식과 대조됨으로써, 영수가 다른 것을 먹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 음성합성은 이러한 담화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소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음성인식

- 음파를 입력으로 받아 음성으로 분해하여 인식하는 음성인식은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단어 경계가 음파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
- 우리는 말할 때 단어의 경계에서 명확하게 휴지(pause)를 갖지 않으며, 말 속에서 소리들은 생략되고 융합되는 일이 많다.
- 생략되거나 변형된 음을 추정해 내는 일이 사람에게는 쉽지만, 오늘날의 기술 수준에서 기계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시]
✓ 콕테일 효과

2. 전산형태론·전산통사론·전산의미론

- 컴퓨터의 입력을 음성으로 하여 기계가 음성인식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든 혹은 컴퓨터의 입력을 문자로 하든 간에, 어절 단위의 문자 연속체를 단어의 구조로 분석하고, 나아가 단어의 연속체를 문장의 구조로 분석하여 문장의 의미를 추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전산형태론, 전산통사론, 전산의미론으로서 이론언어학의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에 대응한다.

1) 전산형태론

- 우선, 언어처리를 위해서는 어절 내의 언어 요소들을 형태소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어근과 접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단어의 의미와 문장에서의 단어의 문법적 기능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어절의 형태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현재 전산형태론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은 어간분리법(stemming)과 이층위 형태론(two-level morphology)이다.

(1) 어간분리법

- 어간분리법은 어절의 앞과 뒤에서 접사들을 차례로 분리해 내는 방법이다.

[예시]
✓ 기다렸겠습니다.

- 뒤에서부터 한 음절씩 떨어져 그것이 사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선 '-습니다'가 하나의 어미임을 찾아내고, 다시 '-겠-'과 '-었-'의 문법 형태소들을 찾아내고, 마지막에 남는 '기다리-'가 사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해진다.

[예시]
✓ 기다리-었-겠-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음절 단위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시]
✓ 가뭍니다 : 가물-뻬니다
✓ 더우면 : 덥-으면

(2) 이층위 형태론

- 이층위 형태론 방법은 표면 층위와 기저(어휘) 층위의 대응성을 규칙으로 명시하고 유한상태변환기(finite-state-transducer)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형태 분석을 한다.

[예시]
✓ cry+s → 어휘 층위
✓ cries → 표면 층위

- 유한상태변환기는 이러한 규칙을 바탕으로 표면 층위의 입력을 받아서 어휘 층위의 표상을 생성한다.
-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구현한 최초의 형태소 분석기는, 처음으로 이 방법을 찾아내고 구현한 핀란드의 전산언어학자 키모 코스케니에미의 이름을 본뜬 키모(Kimmo)이다.
- 이 방법은 외국어 형태소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어의 형태소 분석은 주로 어간분리 방법을 사용한다.

2) 전산통사론

- 전산통사론은 통사 구조와 관련된다.
- 단어 혹은 어절의 선형적 연속체로부터 문장의 의미를 직접 얻을 수는 없고 문장의 통사 구조를 먼저 얻어야 한다.
- 통사 규칙을 적용하여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일을 파싱(parsing)이라고 부르며, 그러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파서(parser)라고 한다.
- 파싱의 방법으로는 하향식(top-down) 방식과 상향식(bottom-up)방식이 있다.
- 전산통사론은 파싱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과정인 생성(generation)도 연구하며, 생성의 과정에는 파싱과는 다른 종류의 고려 사항들이 있다.

3) 전산의미론

- 전산의미론, 즉 의미의 전산 처리를 위한 연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연구 주제는 의미 표상(representation) 문제와 추론(inference)의 문제이다.
- 표상 문제는 통사적 구조를 가진 자연언어 표현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여 컴퓨터에 구현할 것이며, 구조와 의미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 추론 문제는 의미 표상을 이용하여 어떻게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 추론 문제를 위해 술어논리(predicate logic)를 이용하기도 하고 별도의 의미표상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 자연언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중의성의 표상과 그 해결도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 화용론적 관점에서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의 대화상의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일도 필요하다.

14주차 2차시 언어와 컴퓨터 : 전산언어학 2

I. 응용 시스템

1.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 전산언어학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실용적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음성인식의 경우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이 통신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시도되고 있다.

1) 음성인식과 음성합성이 사용되는 영역

(1) 외국어 교육

- 영어 발음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파악하여 올바른 발음과의 차이를 제시하는 상용 제품이 출시되었다.
- 사용자가 영어 단어를 발음하면 억양이나 악센트 등 요소별로 분석해 현지인의 발음과 비교, 진단을 해 준다.

(2) 의료기기

- 음성인식 내시경 기기와 로봇 수술 기계는 의사의 음성을 통한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내시경 기기가 작동하며, 수술의 정확도가 높고 수술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3) 자동차

- 텔레매틱스(telematics) → 'telecommunications'+informatics'
- 운전자가 운전 중 외부 세계와 의사소통을 하여 지능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서, 대표적인 것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
- 이때 필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데에는 음성합성 기술이 필요하다.

(4) 그 외

-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장난감,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로봇, 음성인식을 통한 전자서명 등이 있다.
- 인식률이 높은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은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매우 편하게 해 줄 것이다.
- TTS(text-to-speech) 시스템을 통해 글을 말로 바꾸어 주어 시각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구글홈(구글), 알렉사(아마존), 누구(SKT), 기가지니(KT) 등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음악, 영상 등을 제공하고, 일부 스피커는 필요한 식당 예약까지 대신해 준다.

2. 기계번역

- 전산언어학의 가장 종합적인 응용시스템은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이다.
- 한 언어의 말(음성)을 다른 언어의 말로 통역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는 음성인식과 음성합성 기술이 필요하다.
- 한 언어의 문자언어를 다른 언어의 문자언어로 자동으로 번역하는 시스템은 음성 처리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형태, 통사, 의미 처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 특수한 결합으로 사용되는 유행어 번역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 단순한 단어 의미의 문제가 아닌 경우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기계번역이 힘들고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힘들다.

- 시스트랜(SYSTRAN)이라는 다국어 기계번역 시스템이 개발되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주요 유럽 언어들 사이의 기계번역에 사용되고 있다.(대부분 동일한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인 만큼,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보다는 쉽게 고품질의 번역을 얻을 수 있다.)

[예시] 구글 번역(2019)의 예

- ✓ 나는 오늘 강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웬지 내키지 않아서 민이와 산책을 나가다가 대학교 다닐 때 사귀던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지만,
- ✓ I was going to lecture today, but for some reason (ㄱ)I did not want to go out for a walk with Min - so I met (ㄴ)a friend who was in college and drank coffee in the cafe,

- ➔ (ㄱ) ‘민이와 산책을 나가는 것’이 내키지 않은 것으로 오역되었다.
- ➔ (ㄴ) 번역이 잘 된 경우 → 다른 번역기의 경우 ‘사귀다’를 이성 친구와 교제한 것으로 해석하여 ‘a friend I had been dating’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 어떤 기계번역 시스템이든지 모든 종류의 문서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는 없다.
- 상세한 표현과 암시가 많은 문학 작품의 기계번역은 불가능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에 국한하여 실용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그러한 텍스트에는 해당 언어의 모든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어휘와 구조가 제한되고 정형화되어 있다. 이러한 언어를 부언어(sublanguage)라고 부르며, 부언어의 전산처리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예시]

- ✓ 캐나다 : 일기예보를 기계로 번역하는 시스템을 오래 전에 개발하여 사용 중(영어와 프랑스어)

3. 정보검색

- 넓은 의미의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은 사용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문서, 이미지, 영상, 음향 등을 찾아주는 기술이다.
- 오늘날 인터넷이 일상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우리는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
- 전산언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필요한 문서나 텍스트를 찾아주는 검색이며, 이때 최소한 어간 혹은 어근을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언어학적 분석을 전혀 하지 않거나, 어간 분리(stemming) 혹은 간단한 형태소 분석만을 사용한 정보검색 시스템은 실제로 필요 이상의 검색 결과를 줄 수 있다.

[예시]

- ✓ ‘감기’와 관련된 문서를 검색할 경우
 - ‘감기는 쉬어야 낫는다’
 - 실이 감기는 기계가 발명되었다’
 - ‘수상소감기록’

- 원하는 문서를 찾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시]

- ✓ ‘개’와 관련된 문서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불독’, ‘셰퍼드’, ‘치와와’ 등이 들어있는 문서를 찾지 못함

- 실제, 효율적인 정보검색 시스템은 여러 가지 확률적, 언어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모든 문서들을, 그리고 원하는 문서들만을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단어들은 여러 가지 의미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관계들 중 상하관계와 유의관계가 정보검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 정보 검색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가 있는 문서를 찾아주는 것임에 비하여, 정보추출 시스템은 주어진 문서로부터 특정한 유형의 대상을 찾아준다.
-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은 정보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텍스트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에 쓰일 수 있다.

[예시]

- ✓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하는 수많은 진료기록과 처방일지로부터 환자와 병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4. 기타 응용 시스템

1) 문서요약(text summarization)

-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문서들을 자동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를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 주어진 문서로부터 그 문서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용어와 정보내용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연스러운 언어표현으로 산출해 내는 것이다.

2) 자동 색인(indexing)

- 전문용어(term)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도 개발되어 사용된다.
- 새로운 전문용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것과 이미 알고 있는 전문용어를 문서 속에서 찾아내는 일이다.

3) 텍스트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 수많은 문서를 처리하여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거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해 주는 시스템이다.
- 원래 주어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해 주는 기술을 말하지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할 때에는 전산언어학 기술이 필요하다.

4) 대화 시스템(dialogue system)

- 전산언어학의 중요한 응용 분야이다.
- 컴퓨터는 방대한 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전문지식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
- 컴퓨터가 인간과의 대화를 통하여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단순히 대화의 상대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단순한 대화가 가능한 것도 노령화 사회에서는 매우 필요하다.

II. 코퍼스 언어학

1. 코퍼스 언어학의 개념

1) 코퍼스와 코퍼스 언어학

- 코퍼스란 텍스트, 즉 산출된 말 혹은 글의 집합을 뜻한다.
- 넓은 의미의 코퍼스란 여러 텍스트를 모아 놓은 것이다.
- 현대의 코퍼스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균형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텍스트를 모아서 컴퓨터에 전자(비트) 형태로 저장한 것이다.
- 코퍼스 언어학이란 코퍼스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언어에 관한 이론연구와 응용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이다.

2) 컴퓨터 코퍼스

- 최초의 컴퓨터 코퍼스는 1960년대 초 미국 브라운대학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백만 어절 규모의 미국 영어 텍스트 자료로 보통의 책 약 20권의 분량이었다.
- 브라운 코퍼스를 기반으로 영어 단어의 사용 빈도가 실증적으로 측정돼 언어 교육 및 심리학에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코퍼스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제한적이었다.
- 1980년대 영국 버밍엄 대학이 콜린스 출판사와 손잡고 2천만 어절 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고 이것에 기초한 코빌드(COBUILD)영어 사전을 편찬한 것이 언어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코빌드 사전은 대용량의 컴퓨터 코퍼스에 기초하여 올림말을 결정하고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용례를 찾아 사전에 수록할 수 있었다.
- 국내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 코퍼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코퍼스 구축이 시도되었다.
- 그 이후 사전 편찬에서 코퍼스는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1999)등 모든 주요 사전 편찬 사업이 코퍼스에 의존하고 있다. → 문화관광부 지원 「21세기 세종계획」(1998~2007) 말뭉치 구축
- 1990년대 이후 코퍼스의 크기는 1억 어절 이상이 일상적으로 되었고, 영국 국가 코퍼스(British National Corpus, BNC)가 대표적인 대용량 코퍼스이다.

➡ 컴퓨터 코퍼스는 연구자가 실제 언어생활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언어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언어학에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처리의 대상인 언어정보의 처리 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코퍼스 언어학의 역할

- 오늘날의 코퍼스는 양적인 면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형태, 통사, 의미적 분석을 한 결과를 기반으로 구축한 코퍼스 등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 언어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언어교육의 응용분야

- 코퍼스는 언어 교육의 응용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언어를 수집한 코퍼스(학습자 코퍼스)는 언어 학습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를 발견하게 해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2) 전통적 인문학

- 코퍼스는 문학, 역사 등 텍스트 기반의 전통적 인문학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과학 분야

- 신문 자료 코퍼스는 사회 변동 연구 등 사회과학적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

4) 통계적 정보

- 자연언어처리, 정보검색, 기계번역 등 컴퓨터의 언어 처리에서 코퍼스에 기초한 통계적 정보가 점점 더 중요시되고 있다.

5) 기계 번역 시스템 개발

- 두 언어의 문장들을 병치시켜 만든 병렬 코퍼스는 언어교육뿐 아니라 기계번역 시스템 개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코퍼스는 일종의 언어 빅데이터로, 오늘날 메시지나 검색어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들이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로서의 코퍼스는 언어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